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KTX

August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영주

느긋하게 자연스럽게, 영주가 선사한 휴식
윤영미 아나운서의 화천 예찬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안녕, 모란>





2021 Summer Collection
PARKLAND

AUGUST 2021

KTX

066

▶ **테마 여행**
느긋하게, 영주 힐링 여행

사진: 신구출

영주 소수서원 옆 죽계천

CHUNGHO 청호나이스

당신의 직수, 필터 속까지 깨끗합니까?



쓰면 쓸수록 쌓이는 필터 속 찌꺼기
'국내 유일, 필터 역세척'으로
필터 속 찌꺼기까지 살균 세척하는 - 셀프
이제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드세요

필터 속까지 살균하는
SELF CARE
셀프

렌탈 및
구입 상담 1588-2290

Contents

집에서 완성하는 럭셔리 라이프 결점없는 피부를 위한 LED케어



024

전국 맛집 탐방 강원도 속초청년물 갯배St에는 청춘 사장님과 맛있는 요리가 있다.



058

사진이 그린 여행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왕실이 사랑한 모란을 감상했다.



094

이 계절 이 여행 시 같은 섬, 기적 같은 공원. 인천 서구를 여행하는 동안 마음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150

작가의 방 이건용 작가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예술로 시대에 소통을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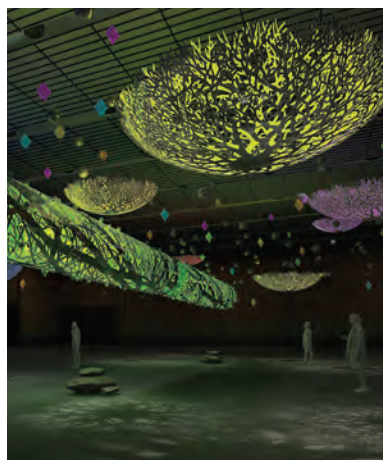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빛나기 시작하는
피부

Contents



040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세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북 영주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찾았다.



BOOK IN BOOK
전남 순천에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 카니발이 열린다.



118

문화 여행 ㉠
여행을 사랑하는 윤영미 아나운서와 강원도 화천의 여름으로 떠났다.

COVER STORY



소나무 수백 그루가 영주 소수 서원으로 안내한다. 어떤 어려움에도 변치 말라 이야기한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020
우연한 발견
우리는 이미 가상 세계에 '메머들었다'.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일까.

022
인물 탐구
이 땅의 첫 번째 천주교 신부 김대건이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았다.

036
잡학 사전
방구석 시청자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캠핑 유튜브버를 소개한다.

106
트래블 이슈 ㉠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광주의 예술 속을 거닐었다.

130
슬로 여행
여행자를 안아 주는 넉넉한 바다를 품은 경북 포항 양포항과 호미곶항에 다녀왔다.

158
문화 돋보기
햄릿, 제갈공명을 여성 배우가 연기한다. 성별을 넘나드는 젠더 벤딩 캐스팅이 화제다.

162
만나고 싶은 얼굴
원폭 피해자의 삶을 내밀한 시선으로 포착한 사진가 김효연을 만났다.

KORAIL INFORMATION

- 180 한국철도 소식
- 186 시간표
- 196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8 열차 이용 안내
- 200 비상시 행동 매뉴얼

18년 연속1위!*
당신과 캐논의
심머!
심머!
심머!



18년 연속1위! 캐논 스테디셀러 정품등록 이벤트

제품 구매 기간 | 2021.06.24[목] - 08.31[화] 이벤트 응모 기간 | 2021.06.24[목] - 09.06[월]
행사제품 | EOS R system 카메라 바디 / EOS 850D / EOS 200DII / EOS M6 MarkII / EOS M50 MarkII / EOS M200

AUGUST 2021

2021년 8월호 제18권 제8호 통권(제209호) 2021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정왕국(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진주영 swadjy@swadcom.co.kr 표다정 pdj123@swadcom.co.kr	
교열	오미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사진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실장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번역	박경리(영어)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ee_40@swadcom.co.kr
제휴 마케팅	(주)쓰누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제작 지원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종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굿초이스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후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비상하라

23만 동문의 불빛과 함께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21.9.10.(금) ~ 9.14.(화)
입학상담 | 051)200-6302, 6318
접수처 | <http://ent.donga.ac.kr>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꾸준히 스트레칭해서

"날씨가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좋다'는 내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뜻이니까요. 화창하다, 맑다, 청명하다, 이런 단어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내게 '좋은' 날씨가 누군가에게는 원망스러운 날씨, 나아가 어느 생명체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날씨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내리는 비가 농작물에 절실하다면 내 옷과 신발이 젖는 불편이 뭐라고요. 농사든 수렵이든 자기 입에 들어갈 식량을 직접 구하는 시대에서 멀어지다 보니 자연을 대하는 감각도 그만큼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 비는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다' 내지는 '한옥 처마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가 운치 있지' 정도라고 할까요.

반복하는 일상은 나의 행복행, 편리함과 불편함을 기준 삼아 감각을 끄그러들게 해서, 안 쓰는 감각은 굳어지고 무뎠어져요. 감각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다고, 내 위주로 불편한 사항을 투덜대기만 하다가 내 세계가 나를 중심에 둔 아주 작은 원이 되고 말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 해도 취재할 땐 그곳이 맑길 바라면서 기상예보를 몇 번씩 확인하고 일정을 잡아요. 해당 지역을 1년 내내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중 내가 촬영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쾌청한 날씨를 빌어도 괜찮겠지 합니다. 최상의 사진과 글로 여행지를 소개하는 일이 목표인 여행 잡지에서 파란 하늘과 햇볕은 '천연 포토샵'입니다. 바다, 숲, 문화유적은 물론 발에 켜 돌맹이 하나도 햇살을 받으면 예뻐져요. 여행이 여행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다 믿고, 여기를 여행하시라 추천하는 기사에서는 '천연 포토샵'의 혜택을 입은 사진이 간절하지요.

그 소원이 언제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번 포항 출장이 그랬어요. 야심 차게 기획한 패러글라이딩 촬영을 접을 마음의 준비를 할 만큼 오전엔 비가 쏟아졌어요. 지금이야말로 감각의 스트레칭 시간. '모든 여행지는 여행지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다. 잠시 스쳐 가는 손님 말고 여기살아가는 분이 주인공이고 기준이다. 세상 모든 땅에는 비가 필요하며 오늘은 이곳에 비가 내리는 날이다.' 정작 가장 불편할 규철 실장님이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흐린 날은 흐린 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대로 분위기가 있다고, 그냥 찍으면 된다고. 오후에 날이 개어 패러글라이딩을 촬영했고, 지면에 실은 사진은 단연컨대 그 날씨에 가능한 최고의 사진입니다. 화창하지 않아도 촬영 장소들은 아름다워서 숨이 막혔어요. 제겐 상상력이 있으니 하늘이 파란 날의 풍경을 그려 보기도 했지요.

다른 기자들은 날씨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다들 멋진 하늘과 풍경을 담아 왔어요. 접어서 편지를 쓰고 싶은 가을 하늘이더라고요. 벌써 추석이에요. 여행하고 달구경 하기 맞춤형 계절이예요. 여행과 달구경 또한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감각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죠. 펴고, 돌리고, 다른 방향을 보고, 울기엔 제 세계의 지름이 조금이라도 커지길 바라요.

그러하여 우리 사이에 교집합이 늘어나길. ☑

<KTxm거진> 편집장 김현정

교집합을 늘릴게요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기법 —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Park Inbee



EP-MAK1-E (베이지)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 프로 마사지사의 따뜻한 체온을 담아낸 기술 온열 마사지기법 —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6

Lee Jeong-eun



EP-MAK1-K (블랙)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볼 에어백 —

2018 LPGA 마이아클래식 우승 | 유소연

Yoo So-yeon



EP-MAK1-C (아이보리)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신진안마기술집약체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MAK1

 <p>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동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p>	 <p>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p>	 <p>온열 마사지볼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p>
---	---	--



판매점 |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접한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코리아 서울 본점 (02)942-8452 서울시 서초구 강남동 25A 오우관스텔빌 11층 | 파나소닉 유통판매처 (02)947-84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91 파나소닉 M&M센터 (02)759-8452 서울시 송파구 남포동로 471 1층 2층 | 파나소닉 홈케어판매처 (02)759-8452 부산시 수영구 영선로 127 1층 | 파나소닉 동아판매처 (053)427-3794 대구시 북구 율곡로 45 1층 2층 | 파나소닉 대전판매처 (042)223-8452 대전시 서구계룡로 36 1층 110 | 파나소닉 수성판매처 (053)426-8452 대구시 중구 영선로 35 1층 25 상가 110호 | 파나소닉 홈케어판매처 (053)259-0300 부산시 중구 광복로 95-2 | 파나소닉 명품판매처 (053)623-8452 부산시 동구 서문로 10 | 파나소닉 HD 판매처 (062)522-2000 광주시 북구 관남로 28 | 파나소닉 제주 판매처 (064)757-8452 제주시 구남동 4길 3 2층 | 파나소닉 천안 판매처 (041)522-845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병문로 209 2층

BEAUTY



L.ma LED 페이스 마스크

미세먼지, 자외선, 마스크에 자극받은 피부를 집에서 케어하자. 432개 LED 빛이 피부 속 세포를 활성화해 세포 재생과 항노화 작용을 돕는 'L.ma LED 페이스 마스크'는 피부 톤을 개선하는 토털 케어와 코 막힘 완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큐어 케어로 기능이 나뉜다. 마스크 사용 후 거치대에 올리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동시에 UV 살균 시스템이 작동한다. 엘마 1522-6626

BEAUTY



31 올데이 실드 크림 & 102 나이트 리뉴얼 크림

WJ 원진성형외과위원의 공식 스킨케어 브랜드 키네프의 '31 올데이 실드 크림'과 '102 나이트 리뉴얼 크림'은 색소침착으로 생긴 기미나 잡티 등을 개선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다. 건강한 식물 유래 비타민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아침저녁 세안 후 적당량을 덜어 얼굴과 목에 골고루 펴바른다. 키네프 02-3477-0808

통화 중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이드 톤 기능 탑재

Point



CX.TW

독일 오디오 명가 쟈하이저의 무선 이어폰은 트루 리스폰스(true response) 기술을 적용, 왜곡 없이 섬세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구현해 고음질을 추구하는 오디오 애호가에게 사랑받는다. 한 번 충전으로 9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다. 쟈하이저 1544-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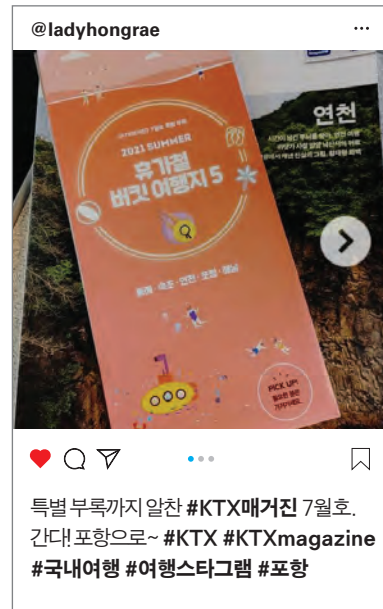


자파팜만의
반사 웨빙 스트랩

Point

윈드브레이크

바람은 막고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는 윈드브레이크는 캠핑 필수 장비다. 캠핑용품 제작하는 자파팜에서 2021년 버전 '윈드브레이크'를 출시했다. 세로 145센티미터, 가로 530센티미터로 기존 제품보다 크기를 키워 넉넉하다. 고정용 스트랩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짝이는 안전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웨빙 스트랩도 보완했다. 자파팜 010-4864-5968



#KTX매거진

#SNS에서 #찾은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진행. 표다정

SNS 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기차안SNS'에 선정된 분께는 내추럴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비더스킨의 '보테니컬 포어세럼'와 '비더스킨 이지 포밍 클렌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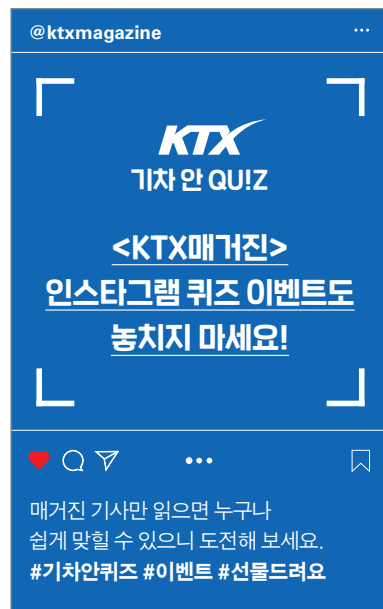


코앞이다!

1Hour 영주

서울에서 영주까지 1시간대 도착!

KTX는 영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의지를 이어 더 빠른 교통은 물론 도시성장, 문화융성, 수익증대, 산업발전, 생활향상에 이르기까지 더 큰 미래로 달려가는 혁신의 첫 단추입니다.



서울에서 영주까지 코...앞?



[이 계절 이 여행]
김은자
인천 서구청 홍보팀장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자 팀장님은 어떤 요청을 드려도 밝은 톤으로 대답하고는 정말로 바로 알아보셨다. 세어도 행정선 승선, 드림파크 취재 협조, 자전거 모델 섭외가 척척 해결되었다. 비예보 때문에 취재를 앞당겨 진행하느라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팀장님 협조로 모든 게 완벽. 더운 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딱 건네신 이온 음료는 최고의 맛이었어요.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 주신 홍영복 선장님과 민경선 사모님,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 끝없이 감탄하는 제게 끝없이 잘 설명해 주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배원희 주임님, 자전거 모델로 등장하신 세주무관님까지, 인천 서구 여행도 사람도 넘나 좋았어요! **김현정**



[전국 맛집 탐방]
박현수
갯배스트청년협동조합 조합장

'전국 맛집 탐방' 기사를 담당받고, 바다가 예쁜 속초의 어떤 맛집을 소개할지 고민했다. 맛집 리스트 중 1순위인 '속초청년을 갯배St'를 기획하니 곧바로 통과. 오케이! 돛을 달고 순항하는 듯하였으나 갯배St 대표 번호가 없어 잠시 주춤. 속초시청에 문의해 조합장님 번호를 알아냈다. 조합장님은 가게 열 곳(세 곳은 개인 사정으로 취재하지 못했다ㅠㅠ) 사장님들께 일일이 협조를 구하는 등 중간에서 항해사 같은 역할을 해 주셨다. 반짝 반짝 빛나는 청춘 사장님이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갯배St로 식사하러 가즈아! 식사 후 커피는 '안토니우스'에서 해결하세요. 지면엔 소개하지 못한 조합장님이 운영하는 카페랍니다:) **표다정**



[사진이 그린 여행]
김충배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과장

좋은 인연은 간혹 행운처럼 길 위에서 맺어지기도 한다. 김충배 과장을 처음 만난 곳은 취재 중이던 전시장. 인사를 나누며 가까운 시일에 꼭 방문하겠노라 한 약속을 두 달 만에 지면 취재를 통해 지키게 되었다. 호탕하고 밝은 성격의 과장님은 왕실 문화에 해박한 것은 물론 중요 문화재 발굴 경험도 많아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도 막힘이 없다. 특별전 <안녕, 모란>에는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의 안녕과 무탈한 일상을 기원하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 관계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겼다. 왕실 문화가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다르고 또 유사한지 김충배 과장님의 통합적인 안목을 믿고 꼭 관람하길 추천한다. **이영란**



[테마 여행]
박영화
영주시청 홍보기획팀장

"삼가야영장도 참 좋거든요~" 말 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영주를 애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취재를 준비하기 전 여행지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장소라 반가운 마음 반, 호기심 반~ 출장을 다녀와 제일 먼저 검색한 곳도 바로 이곳. 영주 관광지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시니 신뢰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마침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서도 영주를 다루는 터라 칼럼 내 '추천 여행지'에 담았다. 책이 풍성해지는 기분~ 뿌듯합니다:) 이번 8월호에는 숨은 주역이 정말 많다. 박은정 영주시청 주무관님, 촬영하는 하루를 고백 함께 다니며 유익하게 해설해 주신 김위정 문화관광해설사님까지. 모든 분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이내경**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로 편리함과 깨끗함을 한 번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요즘,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가 스마트한 삶을 보장해 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인 델타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언제쯤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질지 막막하기만 하다. 온 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진 최근, 삶을 편리하게 해 주는 스마트한 위생 가전이 필요하다. 특히 정수기는 방문 점검 서비스가 꺼려지는 데다, 셀프 관리로 구매해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불안감이 생기곤 한다. 루헨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스마트하게 풀어냈다. 편리함과 깨끗함에 올인한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를 출시한 것이다.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는 고객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관리 정수기로, '5 클린 케어(5 Clean Care)' 시스템을 통해 제품 스스로 케어하는 기술력을 갖추었다. 나노 단위 입자는 물론, 박테리아까지 걸러 내는 4단계 하이브리드 필터 시스템과 이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밀폐형 에어리스 직수 시스템으로 위생적인 워터 케어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한 자동 클린 케어를 위해 커피 등 이물질이 튀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코르크를 1시간에 한 번씩 UVLED로 자동 살균하며, 정제된 물로 유류관을 72시간마다 한 번씩 세정하고 비워 내 내부까지 관리한다. 필터 교체도 편리하다. 일반 정수기의 경우 필터 교체 시 반드시 필터를 세척해야 하지만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는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원터치 필터 세척 기능을 적용했다. 나아가 자주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 냉정수기(WHP-3030), 냉온정수기(WHP-3020)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해 전기료 걱정을 덜어 준다.

요금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설계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루헨스 서비스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하는 방문 관리 렌탈, 고객이 직접 필터를 교체·관리해 월 렌탈료가 합리적인 자가 관리 렌탈을 마련했다. 자가 관리 렌탈의 경우 8월 구매 시 월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망설였다면 더 고민하지 말고 생활을 스마트하게 바꿔 줄 정수기를 만나 보자. 문의 1577-8399 www.ruhens.co.kr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가 특별한 이유

- 1 아이스커피 4잔 가격! 저렴한 월 렌탈료**
스마트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성비. 8월 쿨 썸머 프로모션 기간에 구매 시 월 렌탈료 2만 900원(냉정수기).
- 2 환경 걱정 제로! 페필터 회수 서비스**
자가 관리 렌탈 시 가정에서 분리배출할 수 없는 페필터를 회수해 분리한 후 자원 순환 처리.
- 3 불안, 걱정 끝! 방문 점검 서비스**
'내가 잘 관리하고 있나'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자가 관리 렌탈 시 의무 기간 내 1회 전문가 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광활한 유니버스 메타버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상 세계에 '메머들었다'.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일까.

글. 이내경



METAVVERSE



“누구길래 이렇게 춤을 잘 추지?” 30초 분량의 한 보험회사 TV 광고에서 현란한 춤 솜씨를 자랑하는 친구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이나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인공은 지난해 8월 싸이더스튜디오엑스가 만든 가상 인간 ‘로지’. 인스타그램에서는 3만 8000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다. 로지 외에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많다.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미국에 사는 열아홉살 여성 릴 미켈라는 팔로어가 300만 명이 넘고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약 중이다. 그의 수익은 웬만한 유명 셀럽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활약하는 세계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현실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가 일상인 된 요즘 메타버스가 화두다.

메타버스는 이 순간에도 양상이 계속 바뀌어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 기술 연구 단체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증강 현실 세계, 라이프로그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등 네 범주로 정의한다. 이 중 놀랍게도 증강현실·라이프로그·거울 세계는 벌써 우리 삶에 스며들었다. 몇 해 전,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는 대표적인 증강현실 게임이다. 스마트폰을 비춘 거리, 공원 등 일상 공간에 게임 속 캐릭터가 등장하니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재미에 많은 이가 매료됐다. 외모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증강해주는 사진 보정 앱 ‘스노우’ ‘소다’도 마찬가지다.

증강현실 세계가 현실 위에 가상 이미지를 중첩한다면, 거울 세계는 거울에 비추듯이 실재를 허구에 그대로 투영한다. 포털 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가 제공하는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의 거리 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는 지금도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난해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비됐다. 학생은 학교에, 직장인은 회사에 가지 못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야 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에서 매일 수업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거울 세계에서 학생과 직장인은 이전처럼 본분을 다했다.

2018년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글로벌 AR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는 증강현실에 라이프로그 세계, 가상 세계가 어우러진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여기에서 자신을 형상화한 3D 아바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NS) 활동을 하고, 다른 사용자와 어울리고 소통한다. SNS가 바로 라이프로그 세계. 현재 제페토의 가상 세계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200여 개국의 1억 3000만여 아바타가 노닌다. 시장이 커지니 기업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연지사. 명품 브랜드 구찌는 아바타가 옷을 입어 보고 구매하도록 제페토에 ‘구찌 빌라’를 지었다. 현실에서는 거금을 투자해야 하는 아이템이 이곳에서는 1000~4000원이나 기본 좋게 플렉스~. 기업으로서는 수익을 창출할 시장을 넓힌 셈이다. 루이비통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수년간 협업을 했다. LOL은 게임 내에서 화려한 루이비통 로고가 담긴 스킨을 판매하고, 루이비통은 LOL 로고나 캐릭터를 활용해 ‘LV×LOL’ 컬렉션을 출시한다. 공상과 실제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기다.

18세기 제1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제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 초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중심에 섰다. 누구는 메타버스가 인터넷 다음 버전이자 일상을 영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청사진을 그리고, 누구는 법과 질서가 수립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범죄를 우려한다. 메타버스가 이상향이 될지 카오스가 될지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몫이다. ☑



믿음과 신념의 삶 김대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뜨겁게 걸어,
김대건은 이 땅의 첫 천주교 신부가 되었다.

글. 김규보

신화를 남긴다. 압록강을 지나 눈보라를 뚫고 중국 베이징에 닿아, 텐진과 난징을 통과해 마카오에 이르는 7개월 도보 여정이 김대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마카오에서 프랑스 신부에게 라틴어와 신학을 배우다 민란이 발생해 필리핀으로 피신하길 두 차례. 배움이 무르익은 1842년 고향에 돌아가던 중 국경 근처에서 만난 조선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는다. 조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박해로 아버지가 참수되고 어머니는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빌어먹는 신세가 됐다. 슬픔을 품고 조선에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 만주를 걸어 오갔으나 몇 차례 실패한 뒤 마침내 1845년 비밀리에 입국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태풍이 몰아치는 서해를 건너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조선교구 페레올 주교를 배에 태우고 한반도로 돌아왔다. 그때 상하이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 서품을 받았다. 신부가 되기까지 여정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성에서 전교하던 김대건은 1846년에 붙잡혔다. 배교를 강요하는 잔혹한 고문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자 대신들은 국법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청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교수들에게 글을 썼다. "용기를 잃지 마시다. 사랑을 잊지 마시다. 천국에서 그대들을 만나면 정답게 꺼안아 주겠소." 1846년 9월 16일, 스물여섯 김대건은 지금의 서울 노량진 인근에서 처형됐다. 신념을 모두 쏟아 부은 삶의 마지막 여정은 용기와 사랑이었다. 이제 세상은 그를 기억한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인으로 시성했으며 한국 천주교회는 성직자 수 호성인으로 모신다. 탄생 200주년을 1년 앞둔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친필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믿었고, 그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다. **☒**

천주교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1836년, 그는 열여섯이었다. 신앙에 죽을죄를 덮어씌워 효수하는 일이 반복되던 모진 시대였다. 증조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 또한 목숨을 잃어 집안은 충남 당진 슬픔을 떠나 경기도 용인 산골로 숨어들어야 했다. 박해 속에서도 천주교 교세는 조금씩 확장되었지만 아직 조선인 신부는 나오지 않은 그해, 그는 겨우 열여섯이었다. 살날을 고만하기보다 오늘 하루가 전부인 양 살아 내기 바쁜 나이에 삶과 죽음을 묵상하고 먼 길을 떠났다. 한 사람의 신념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김대건은 믿었다. 그는 이 땅의 첫 번째 신부가 되었다. 200년 전인 1821년 8월 21일, 슬위에서 태어난 김대건은 <성교요리> <십이단> 같은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며 자랐다. 가족이 모두 신자인 덕분에 신앙은 자연스러웠다. 용인에 온 프랑스 선교사 모방 신부는 믿음 깊은 단정한 아이를 눈여겨보았다. 마침 조선인 신부를 배출하겠다 다짐한 무렵이었다. "신부가 되어 보겠느냐." 아무도 밟은 적 없는 길이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다. 마음을 굳힌 김대건은 한성을 거쳐 평안북도 의주로가 국경을 넘었다. 가능한 범위를 확장해 불가능의 영역을 줄이려는 의지는



열정! 열정! 열정! 속초청년몰 갯배St

Sokcho!



쓰임을 다한 옛 속초수협 건물이 활기를 되찾았다.
청춘 사장님들이 진심을 다해 만든 요리를 맛보러 강원도 속초로 향했다.

글. 표다정 사진. 신규철



속초청년몰 갯배St



1920년에 지은 건물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 반짝 빛난다. 속초 어민의 작업장이던 속초 수협 건물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난해 4월 오픈한 '속초청년몰 갯배St'. 25~40세 청춘 사장님들이 진심을 담아 음식점과 핸드메이드 소품 숍을 운영 중이다.

☞ 속초시 중앙부두길 24
☎ 010-3666-5144





Chicken skewers

숯불와락꼬치



박원석 대표는 지난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생각은 단순했고 행동은 신속했다. 관광지에서 맛있게, 먹기 쉬운 메뉴가 무엇인지 고민한 후 수제 닭꼬치를 선택했다. 넓직한 닭 다리살을 숯불에 초벌구이해 향을 입히고, 한 입 크기로 잘라 꼬치에 직접 꿰다. 달달한 파와 숯불 향을 듬뿍 머금은 닭 다리살의 조화가 절묘하다. 기성품 닭꼬치는 흉내 낼 수 없는 맛이다. 채소와 치즈 떡, 소시지 등을 특제 소스에 볶은 참숯양념닭갈비도시락은 든든한 식사 메뉴. "저희 닭꼬치는 달라요"라는 박 대표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 수제참숯훈연닭꼬치 3000원 참숯양념닭갈비도시락 8000원

눈꽃



탕탕탕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진다. 대학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은 사장님이 만든 돈가스와 파스타, 얼~마나 맛있게요. 모든 돈가스는 생등심을 사용하는데, '겉바속촉' 돈가스 위에기는 치즈가 눈처럼 소복하게 쌓인 눈꽃돈가스를 주문했다. 돈가스를 자르는 순간 바사삭 하는 맛깔난 소리에 칼질이 더 빨라진다. 새우가 넉넉하고 툭툭 터지는 날치알이 매력적인 크림새우날치알파스타도 인기다.

☞ 눈꽃돈가스 8000원 크림새우날치알파스타 9000원



Pork cutlet

속초 품은 계란만두



미용사 경력 20년을 바라보는 김도운 대표는 꿈이 있었다. 나만의 푸드 트럭 운영하기. 그 꿈을 속초청년물갯배St에서 실현 중이다. 아이에게 해 주던 달걀 요리를 업그레이드해 속·품(속초 품은)계란만두를 내놓았다. 알끈을 제거한 달걀에 로즈메리 등 세 가지 허브를 넣어 1차 숙성하고, 채수와 쌀가루를 추가해 달걀물을 완성한다. 예열한 프라이팬에 달걀물을 두른 다음 오징어, 새우, 표고버섯, 양파, 당면 등을 올리고 재료가 보이지 않도록 감싸듯 달걀을 접는다. 밀가루나 조미료를 쓰지 않아 속이 편안하다. 치즈가 첩첩 흐르는 속·품치즈계란만두도 놓치지 말 것.

☞ 속·품계란만두 3900원 속·품치즈계란만두 4900원



Dumplings



Curry



구공카레



1990년생이 만드는 카레라는 의미의 '구공카레'는 속초에서 유일한 카레 전문점이다. 사장님의 카레 사랑은 속초 바다만큼 깊다. 집에서 카레를 직접 해 먹는 것은 기본, 여행을 가면 카레집부터 찾은 정도다. 고향인 속초에서 제대로 만든 카레를 먹고 싶어 직접 매장을 차렸다. 볶은 양파, 찐 감자와 고구마, 비빔 육수가 베이스인 카레는 깊은 맛이 일품이다. 달걀 프라이, 구운 소시지, 새우튀김 등 토핑도 다 채로우니 입맛대로 즐긴다.

☞ 구공카레 8000원 카레우동 7000원



안녕, 크레페씨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찾는다면? '안녕, 크레페씨'로 향하자. 속초청년물 갯배St에서 가장 어린 스물다섯 살 사장님이 크레이프를 굽는다. 서울의 유명한 크레이프 맛집은 모두 방문해 맛을 연구하고, 크레이프 굽는 방법을 수백 번 연습하며 익혔다. 보통 크레이프의 식감은 쫄깃하고 부드럽지만 이곳은 바삭함을 살렸다. 주문 즉시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완성하는 크레이프 위에 제철 과일, 초콜릿, 시리얼, 생크림이 한가득.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린 시원한 아이스크림크레페도 준비했다.

☞ 딸기바나나크레페 4500원 아이스크림크레페 5000원



블스테이크



구스쿠버다이버, 현 요리사. 바다를 사랑하는 청년은 이제 주방에 들어선다.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고기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다면, 지금은 좋은 고기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누구보다 잘 구울 자신 있다. "스테이크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속초에서 손꼽는 스테이크를 선보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이주경 대표의 표정이 진지하다. 영상 1도에서 드라이에이징 방법으로 일주일 정도 숙성한 고기를 특제 먹소스에 찍어 먹으니 환상적이다. 구운 양파, 감자튀김 등 곁들이도 푸짐하다.

☞ 먹물목살스테이크 1만 3900원

오징어순대집 퍼니주니



속초에 와서 오징어순대 안 먹고 가면 섭섭하다. 전설희 대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오징어순대를 만드는 시어머니의 뒤를 이었다. 당일 판매 원칙을 지키고자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속초산 오징어 속에 오징어 다리, 당면, 강원도 양양과 고성 찹쌀을 채운다. 아침에 만든 따뜻한 오징어순대를 먹는 순간, "포장도 해 주세요"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오징어순대와 타코야키를 접목한 오야끼는 오로지 '오징어순대집 퍼니주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다.

☞ 오징어순대 1만 2000원 오야끼 1만 5000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 발전 파트너”

부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랜디 뿌뜨라 달마완 소장에게 센터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 들었다.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화학, 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투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을 경제 발전 파트너로 선정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긴밀해지는 요즘, 그 가교 역할에 한창인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랜디 뿌뜨라 달마완 소장을 만났다.

부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Busan) 랜디 뿌뜨라 달마완 소장입니다. 부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수출개발처 산하의 부산 무역대표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수출과 수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석유, 가스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제품과 서비스 상품의 수출을 증진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촉진하고자 무역 관련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출입업체를 연결하고 미팅을 주선하기도 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인도네시아 제품을 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 제품을 홍보하고 한국 시장을 개척할 수출업체를 지원하며 무역 정책과 관련한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수출입업체를 방문해 좋은 제품을 발굴하기도 해요.

부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설립한 목적이 궁금합니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인과 한국 기업인의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 수입업체엔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외에 경제협력과 관련한 많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리의 일이 양국의 건전한 지속적인 경제협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고 싶다면 회사명과 회사 주소, 품목, 연락처, 담당자 성함, HS code, 제품 이미지를 메일(itpc-kor@kemendag.go.id)로 송부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과 관계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LASHEVAN

독도는 우리땅이다!

독도수호프로젝트 라쉬반DOKDO티셔츠 출시



독도 캠페인 티셔츠 3종



E131°
51'
54.6"
N37°14'
30.6"

편안함에 감탄하다! 라쉬반®

국가대표 송민규도
편안함에 감탄하다!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편안하다! 라쉬반®



DRYCELL

편안하다! 라쉬반®

토트넘 홋스퍼 공식 언더웨어

편안함에 감탄하다!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판매: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 (주)에스제이트랜드

편안하다! 라쉬반®

레알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 공식 언더웨어 라쉬반!

편안함에 감탄하다!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Real Mad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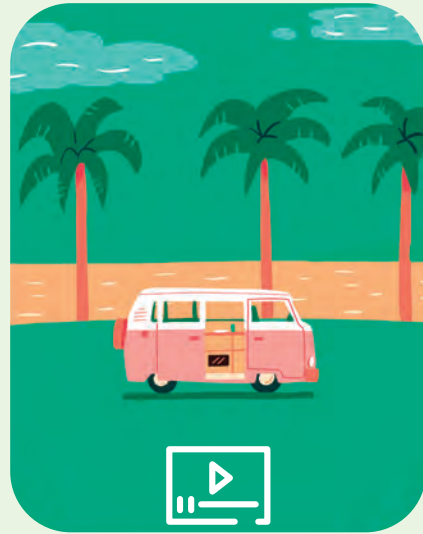


FC BARCELONA



VS

Rakuten



빈손으로 놀러 오세요 랜선 캠핑

오감 만족, 대리 만족을 주는
캠핑 유튜버를 소개한다.
이리 오세요~ 같이 불멍하고 숲멍해요.

글. 표다정



김숙이 장비빨? 장비가 김숙빨! 김숙티비

그라운드 시트, 오징어 팩이 뭔지 몰라도 연예인 김숙이 캠핑에 진심이라는 건 알겠다. 캠핑장에 못 가면 옥상에라도 텐트를 친다. 딱딱딱 텐트 설치 완료, 쓱쓱쓱 근사한 요리를 완성한다. 캠핑 숏에서 예쁜 아이템만 쓱쓱 고르는 그의 뛰어난 안목이 담긴 '캠핑의자 10종 리뷰' 영상에서 마음에 쏙드는 의자를 발견했다.



10년 노하우를 당신에게 슬기로운 캠핑생활

나도 캠핑해 볼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10년 차 프로 캠퍼가 캠핑장 바닥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캠핑장에서 사용하면 위험한 제품, 집에서 잘 쓰는 캠핑용품, 코스트코나 이케아에서 눈여겨볼 아이템 등 10년간 쌓은 캠핑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한다. 선생님은 살아 있는 캠핑 지침서예요. 나도 슬기롭게 캠핑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언니네영상관

언니는 방송국을 그만두고 방송국을 차렸다. 캠핑장으로 향하는 길, 텐트 치는 장면, 요리 준비하고 먹는 모습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20여 분 영상에 녹였다. 자신이 머무는 곳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여행법을 영상으로 배운다. 자연과 어울리는 음악, 캠핑하러 가기까지 감정을 정리한 문구가 따스하다. 위로를 받는다는 댓글이 많다.



캠핑장에서 정성스러운 한 끼를 캠핑한끼

이 정도면 캠핑 유튜버인지 요리 유튜버인지 헷갈린다. 참숯과 솔잎으로 훈연한 솔잎삼겹살, 낚시해 잡은 산천어 구이 등 침 고이는 영상에 당장 주방으로, 아니 캠핑장으로 달려가고 싶다.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마지막 부분. 깔끔하게 빼만 남은 우대갈비, 텅 빈 접시에 웃음이 난다. 주의 사항은 단 하나! 늦은 밤에 보지 말 것.



캠핑의 모든 순간 지오캠프

영상 퀄리티 무엇인가요? 시작은 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처럼 웅장하고 내용은 <인간극장>처럼 잔잔하다. 유튜버 지오는 오토바이를 타고 즐기는 백패킹인 모터 캠핑부터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캠핑을 즐긴다. 시설이 잘 갖춰진 캠핑장보다 강 앞, 자갈밭 등 노지 캠핑의 매력을 전파한다.



진정한 차박 고수 방바닥TV

"뷰자님들~ 우리 집 앞 풍경 훌륭하죠?"라면서 한강을 비춘다. 차박 8년 차 부부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쏘다닌다. 발길 닿는 곳이 부부의 집인 셈이다. 둘은 국내 차박지 스포부터 차박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조언까지 알짜배기 정보를 영상에 담는다. 뷰자는 '풍경(view) 부자'를 뜻하는 구독자 애칭이다. "모두 뷰자 되세요~"



'캠성 캠핑'의 완전판 PICNICAMP 피크니캠프

'비밀 정원' '대나무 숲에서' 등 감수성을 자극하는 제목처럼 영상도 잔잔하다. 영상 중 '어우비'는 우중 캠핑 ASMR의 정석. 텐트에 떨어지는 비, 선풍기 소리, 스피커에서 흐르는 재즈가 어우러진다. 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을 소리다. 채널 소개 글이 다음과 같다. "감성적이며 빈티지한 라이프를 추구하는 한 남자의 캠핑 이야기."



밴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밴라이프

헤아와 딘은 직접 개조한 밴을 타고 세계를 여행한다. 2018년 6월 영국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등을 여행하며 여행 팁이나 풍경을 공유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귀국하는 바람에 여행은 멈췄지만, 당시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다. 영국에 밴을 두고 온 헤아와 딘이 다시 영국에 가는 그날까지!



은하수처럼 빛나는 은하캠핑

'특전사의 캠핑 요리' 제목에 어그로당한다. 그런데 섬네일에 등장한 인물이 여자라면? 은하 언니, 저 구독했습니다. '은하캠핑'은 특수임무대대 출신 박은하 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불 지피기, 나무로 의자 만들기 등을 알려주는 은하 언니, 멋있다♥ 여성이 알아야 할 호신술, 군대에서 경험한 생존 기술을 접목한 캠핑 여행을 선보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준식이

창식이와 준식이의 캠핑 일지다. 여기서 창식이는 베들링턴테리어, 준식이는 창식이의 주인이다. 준식 씨가 텐트를 치는 동안 창식이는 본인 소파에 앉아 기다린다.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캠퍼의 자세다. 준식 씨와 창식이가 고대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각각 펫 밀크와 막걸리를 먹는다. 반려동물용 캠핑 용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❶ **빙그레 | 멘붕어싸만코** 2.2점

김현정 매운 음식 먹고 나면 달달한 아이스크림으로 달래는 게 국룰이지만 둘을 한꺼번에 먹을 필요는 없음을 깨달았다. 아이스크림은 역시 후식. ★★ / 김규보 불닭 소스로 자신을 볶게 달군 붕어가 내 입맛을 확끈하게 살렸다. 붕어의 뜨거운 마음이 고마워 남김없이 먹어 주었다. ★★★★★ / 이내경 스트레스는 굳것질로 해소하는 것 아닌가요? 불닭 소스를 품은 아이스크림의 오묘한~ 맛에 붕어도 '멘붕', 나도 '멘붕'. 우리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않기로 약속해요! ☆ / 진주영 '멘탈'이 붕괴돼서 멘붕어싸만코인 건 아니겠죠... 떡 붕어, 녹차 붕어, 초코 붕어까지 행복했잖아요. 우리 다시 잘해 봐요. ★☆ / 표다정 음, 어, 그러니까 초콜릿 맛, 녹차 맛은 좋았어요. 패키지도 보세요. 붕어도 슬퍼서 평평 울어요. 오늘 여럿 우네요... ★★



❷ **금비 | 불마왕 볶음면** 2.7점

김현정 이건 음식이 아니다. 무기다. 입안을 사정없이 구타당하는 느낌. 세상에 맵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 / 김규보 둘째 아이가 먹겠다고 고집을 부려 한 젓갈 건넸다. 기절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못난 아빠를 원망하지 않도록 안 매운 척 하며 먹었다. 이번엔 내가 기절하는 줄. ★★★★★ / 이내경 다 짐합니다. 보기만 해도 빨간 맛은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을. 젓가락질 한 번 했을 뿐인데, 입안에 여운이 길...게 남아 눈물 콧물이 찰끔찰끔... ☆☆ / 진주영 무섭게 불타오르는 고추마왕을 내세운 포장지를 보자마자 느꼈다. 이걸 다 먹었다간 엉덩이가 불탈 거라는 걸... 역시나 맵다. ★☆ / 표다정 ...저 울어요. 좋아서, 기뻐서 눈물이 나요. 이제 불닭볶음*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 사랑했다, 내사랑. 잘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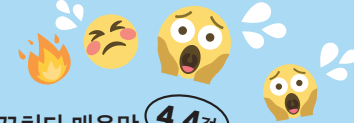
Hot 뜨거뜨거 Hot 빨간 맛 중독

맵질이, 맵부심 강한 이가 고루 모인 <KTX매거진> 편집부가 뜨거운 매운맛에 도전했다. 진행. **이내경** 사진. **이철**



❸ **와우작 | 매운불닭누룽지** 3.3점

김현정 라면 분말수프와 설탕을 묻힌 누룽지 맛. 맛없기 힘든 조합이지만 나트륨, 당분, 열량을 안 알려 줘서 마음 놓고 먹질 못하겠다. ★★★ / 김규보 보라. 내가 손대지 않는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인 누룽지가 불닭 맛 시즈닝 하나로 완전체가 된 장한 모습을. ★★★★★ / 이내경 유레카! 그 옛날 아רכι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기분이 이랬을까요?! 새로운 안주를 찾았어요!! 국내산 쌀로 만든 누룽지에 매콤한 불닭 맛 시즈닝이 골고루 배어 있어 맥주 한 캔이 생각나네요~ 카~ 딱이 예요! ★★★★★ / 진주영 자꾸만 손이 가는 적당한 매운맛에 한 봉지가 '순삭'되는 마법. 누룽지는 원래 맛있으니까요. 추가 주문합니다. ★★★★★ / 표다정 매운맛이 1도 안 나서 하나 더 남남. 그래도 매운맛이 안 나오! 매운 불닭 맛 시즈닝을 따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❹ **(주)사조대림 | 한입에꼬치다 매운맛** 4.4점

김현정 매운맛의 바른 예. 이름은 '한입'이라도 세 입쯤 나오는 넉넉한 크기도 호감. 포장에 쓰인 '거예요'만 '거예요'로 고쳐주세요(직업병...). ★★★★★ / 김규보 내 '흡술'용 최다 구매 안주인 꼬치와 불닭 소스의 조합, 이걸 흡술을 더 많이 즐기려는 계시와 같으니, 나는 그러기로 결심할 수밖에. ★★★★★ / 이내경 '톡' 아, 들켰네요. 맥주 한 캔은 아쉽잖아요~ 매운맛 소시지를 먹으니 술이 들어가네요~ 짹짹 p.s. 말랑말랑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먹었다가 후유증이... ★★★★★ / 진주영 네, 맵질이 맞습니다. 이것도 매워요. 그래도 다 먹을 만해요. 근데 이제 속 쓰림을 곁들인. 다음엔 기본 맛으로 즐길래요. ★★★★★ / 표다정 뿌이뿌이뿌이~ 그의 목에 걸리는 합격 목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운맛 꼬치입니다:) 그러니 '밎' 하세요. ★★★★★



세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경북 영주의 백년가계와 백년소공인에게서 100년을 이어갈 장인 정신을 엿보았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취재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대장간

세계가 인정된 K-호미의 주역



가마에서 빨강계 달군 강철을 꺼내어 망치질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석노기 장인의 54년 노하우가 집약된 움직임이다. 같은 호미라도 지역의 토질에 따라 날의 두께와 길이, 휘는 각도를 다르게 제작하는 게 장인이 오래 연마한 기술이다. 현재 호미, 낫, 망치 등 전통 농기구를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영주대장간'의 명성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들썩인다. 농기구를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 인도 등 7~8개국이다. 열네 살에 처음 대장간에 발을 디뎠던 1976년 이곳을 차린 석노기 장인은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면서 내구성 좋은 농기구 생산에 집중하고,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자 노력했다.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게 대표적 사례다. 지금도 장인은 꿈꾼다. 대장간 테마파크를 지어 후대까지 명맥을 잇기를. 한여름 무더위에도 멈출 줄 모르는 맑은 망치질 소리가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듯하다.

- 📍 영주시 구성로 199
- ☎ 054-632-5754
- 🛒 제품마다 다름



추천 여행지 '삼판서고택'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판서 세 명이 거처한 공간이다. 공민왕 시절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이 사위 공조판서 황유정에 게, 황유정이 외손자인 이조판서 김담에게 물려주었다. 사위가 처가의 가택을 물려받은 게 특이한데, 신라이 신부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고려 시대 '남귀여가혼' 풍습을 알 수 있다.





삼화직물

풍기 인견의 산증인



오르막길을 올라야 내리막길도 만난다. 1950년대 초반 전쟁을 피해 평안도 영변에서 경북 영주로 온 차대영 대표의 할아버지는 명주를 취급한 기술을 기반 삼아 가내수공업 형태로 인견을 생산했다. 당시 풍기에 들어선 인견 생산 업장이 수백 개. 지역 경제에 새 먹거리가 움튼 시절이었다. 1974년 인견 생산 업체로 거듭난 이곳은 아버지와 차 대표가 전성기를 이어 갔다. 호시절이 계속 되면 좋으련만, 2000년 화학섬유의 인기에 밀려 큰 위기가 닥친다. 원단 재고가 쌓여 휴업에 이를 정도. 이를 이겨내고자 아내는 재고를 활용해 옷, 이불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고비는 곧 기회가 되었다. 소재를 눈여겨본 고객이 하나둘 방문했고, 나아가 2010년에는 인견 패션 브랜드 '소담비'를 론칭했다. 원사 공정부터 제품 생산까지, 갖은 풍파에도 차곡차곡 쌓은 업력을 바탕으로 풍기 인견 시장을 이끈다.

📍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701번길 46
☎ 054-635-2156
🛒 제품마다 다름



추천 여행지 '삼가야영장'

소백산 비로봉 남쪽 아래 자리해 청정한 기운이 가득하다.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에코힐링야영장, 풀오피션야영장, 솔막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야영장 내에 아이가 물놀이하기 좋은 실개천이 흐르고 샤워실도 완비해 한여름 밤 소백산 정취를 만끽할 최적의 장소다.



풍기인견연구소 ©



소백산생고기

정직한 마음을 지켜 온 정육식당



1988년 신영주 번개시장 근처에서 부모님이 문을 열어 1층에는 정육점, 2층에는 식당을 운영하던 정육식당이 이 자리에 온 지도 벌써 24년째. 지금껏 변치 않고 지켜 온 한 가지는 한우 투플러스 등급 중에서도 마블링 점수가 가장 높은 BMS NO.9 원육을 직접 정형해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호텔 경영을 업으로 삼던 강동현 대표가 합류해 처음 배운 작업도 정형이다. 직접 손질해 낮아진 원가만큼 맛있는 부위를 착한 가격에 내놓는다. 2019년에는 리모델링하며 변신을 시도했다.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절반만 들어가게 개조했고, 운영은 가족이 맡기로 했다. 이유는 단 하나, 고객에게 더욱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다. 메뉴도 가짓수를 늘렸다. 그중 채굴에서도 좋은 부위만 발라낸 새우살이 인기다. 부모님처럼 꾸준하고 정직하게 경영하겠다는 강 대표의 각오가 다부지다.

📍 영주시 대학로 16
☎ 054-632-6784
🍴 소갈비살(150그램) 2만 7000원 새우살(150그램) 3만 7000원



한결청국장

41년 한결같은 청국장 맛



정성이 맛을 더한다. 조효정 대표는 시할머니에게 전수한 방식 그대로 청국장을 띄운다. 청국장 만드는 날은 어김없이 새벽 4시에 하루를 연다. 전날 불려 놓은 콩을 가마솥에 삶은 후 소쿠리에 담아 연탄불이 바닥을 뽕근하게 덮히는 방향으로 옮긴다. 소쿠리마다 지푸라기를 꽂고 그 위에 이불을 고르게 덮는다. 온도가 청국장 맛을 좌우해 사용하는 이불 두께도 계절마다 다르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 3일 동안 지푸라기에서 나온 고초균이 콩을 발효시키며 진이 생겼다가 콩 자체에 스며 맛이 들기를 기다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국장찌개는 1년에 한 번 담근 된장을 베이스로 한 국물에 청국장을 넣어 향은 구수하고 맛이 깊다. 자식이 어디에서나 "어머니가 풍기역 앞에서 '한결청국장'을 운영한다"라고 뽕뽕하게 말할 만큼 열심히 운영하겠다는 다짐이 청국장 한 그릇에 짙게 배어낸다.

📍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1
☎ 054-636-3224
🍴 한결 청국장 정식 1만원 청국장파 돼지불고기 1만 4000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과 함께하는 영주 여행



오크라

8월부터 10월까지의 오크라가 가장 맛있는 시기다.
 식탁으로 별이 쏟아진다.

글. 표다정 사진. 이철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오크라는 약 2000년 전 이집트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다. 언뜻 보면 크기나 모양새가 고추를 닮은 오크라는 송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 세척 시 소금으로 걸면을 문질러야 한다. 손질을 마친 오크라는 간장에 찍어 먹거나 튀김으로 바삭하게 즐기는데, 오각형 별 모양 단면을 살린 채소볶음, 장아찌도 추천한다. 맛있는 오크라는 영양분도 풍부하다. 오크라를 자를 때 나오는 끈적한 뮤신(mucin)은 위와 장 등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이 외에도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등이 풍부해 누구에게나 이롭다. ☑

© 영주대장간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공식 인증하고 있습니다. 백년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숙련 기술 기반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입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스캔하고 추천하기

국민추천제를 이용하면 우수한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백년로드

한길만 걸어도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 만든 다양한 제품을 위메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캔하고 접속하기

WHAT'S UP



WE LOVE DANCE 2021 Yeongnam Dance Festival

춤, 보고 싶다

2021 영남춤축제

2021. 7.14(수) - 8.14(토)

국립부산국악원 연극당·예지당

문의 051-811-0114

축제

한국 전통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꾼의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2017년 처음 막을 올린 축제는 영남 지역의 전통과 예술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미를 둔다. 올해는 서울, 전북 남원, 전남 진도, 부산 등 네 지역 국악원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장구 가락과 역동적 움직임 통해 삶의 여정을 풀어낸 설장구춤, 동래한량춤 등 한국 전통 춤을 즐긴다. 공모로 선정한 춤꾼 30인의 한국전통춤판, 안무가 7인의 창작춤판도 신명 난다.

장소 국립부산국악원 문의 051-811-0114

공연

2005년 영국 런던 초연 이후 전 세계에서 약 1200만 명이 관람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돌아왔다. 198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에 사는 열한살 소년 빌리는 자신이 발레에 재능을 지녔음을 깨닫는다. 남자는 축구나 권투를 해야 한다는 아버지와 형의 반대를 응원으로 바꾸면서 연습을 거듭하는 빌리의 성장기가 눈부시다. 세 차례 치른 오디션을 통과한 전강혁·이우진·주현준·김시훈 배우가 완벽한 빌리로 태어났다. 각자 다른 매력을 지닌 네 명의 빌리가 무대에서 새처럼 날아다닌다. 장소 서울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문의 02-2211-3000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ELTON JOHN LEE MALL STEPHEN DALEORY JOHN HALL

BILLY ELLIOT

THE MUSICAL

빌리 엘리어트

2021.08.31 OPEN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트라이앵글 리뷰>

캠퍼들이 엄선한 캠핑 필수 아이템 빅앤티 폴딩박스 & 카트



승용차를 폴딩박스 위에다 올려도 무게를 건디는 **튼튼한 내구성**은 물론 캠핑, 마트장볼때, 공구함, 트렁크정리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박스를 여러개 포갠 후에도 **안쪽으로 열리는 앞문**을 이용해 **물건을 손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도 **부드러운 핸들링**과 각도가 조절되는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합니다. 공정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100% 국내산** 제품입니다.



승용차를 건디는 튼튼한 내구성



공구박스로 활용



마트갈때



세차&트렁크 정리함



캠핑



실내수납



4개의 카트락 박스와 카트 고정!



대량 구매문의 055-344-0780

Made in Korea



캠핑, 나들이, 마트, 트렁크정리
공구수납과 이동 등 다양하게 활용!

빅앤티



07.14~08.14

08.31~2022.02.02



<익숙한 미래: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



전시

읽기 쉬운 기호와 픽토그램을 활용한 표지판, 땀별을 막는 그늘막 등 우리 일상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주는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 장벽을 낮추고자 기획한 전시다. 전시장에 놀이터, 공원, 거리, 학교, 골목길, 지하철 등 생활 공간 여섯 곳을 재현하고, 각 공간에서 만나는 실제 공공 디자인 사례와 아카이브를 더해 이해를 돕는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 만들기' 프로그램은 공공 디자인을 배우며 일일 공공 디자이너가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장을 나서는 순간, 무심코 지나치던 공공 디자인이 다시 보인다.

장소 문화역서울 284 문의 02-3407-3530

전시

아들리에 아키에서 진행하는 강예신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 특유의 동화적 세계가 담긴 드로잉 '책장' 시리즈부터 처음 공개하는 '레드문' 시리즈까지 강예신 작가의 확장된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페인팅, 드로잉 20여 점을 모았다. '레드문' 시리즈에서는 심드렁한 악동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는 작가 스스로 경험하는 환경과 관심사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작품은 한 편의 동화 같다.

장소 서울 아들리에 아키 문의 02-464-7710



<GREENLY: 경험하지 못한 경험에 관하여>

낙원속에서 즐기는 다이나믹한 액티비티 투어

천혜의 자연 '초콜릿 힐'부터 다이나믹한 액티비티까지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에 위치한 보홀은 아름다운 해변과 럭셔리한 리조트에서의 휴양을 찾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다. 제주도의 2배 면적의 크기이며 70여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홀에서는 자연이 선물해준 신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험가처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다. 신비로운 보홀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보자.



(사진설명: 보홀의 신비한 '초콜릿 힐' 전경)

눈까지 달달해지는 달콤한 '초콜릿 힐'

보홀섬 중앙으로 이동하면 마치 키세스 초콜릿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초콜릿 힐 (Chocolate Hills)'을 만나볼 수 있다. 1,268개의 여러 언덕들이 모여서 있어 웬지 바라보면 보는 눈까지 달달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일정한 언덕의 모양이 여러 개 모여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보홀이 유일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신비로운 자연 경관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이러한 자연의 신비는 어쩌면 구두로 전해오는 전설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아로고'라는 거인이 살았는데 약혼자가 있는 '알로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했다고 한다. 사랑한다는 명목 하에 아로고는 자신의 손에 알로야를 납치하여 도망쳤지만 너무 꼭 쥔 나머지 알로야가 죽고 만다. 슬픔에 빠

진 아로고는 며칠 밤을 울었고 그의 눈물이 땅에 닿으면서 초콜릿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초콜릿 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21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214개의 계단은 사랑하는 이에게 초콜릿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추었다고 한다. 살짝 체력에 한계가 느껴질 때쯤 전망대에 오르면 원뿔 모양 언덕들이 저 멀리 있는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11월 건기에 방문하면 언덕의 돌들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 정말 초콜릿인 것처럼 보인다. 원근감을 이용해 마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에서 찍은 듯한 멋진 사진을 만들어 보자.

도심을 벗어나 심장 뛰는 오프로드 체험!



(사진설명: 보홀에서 즐기는 ATV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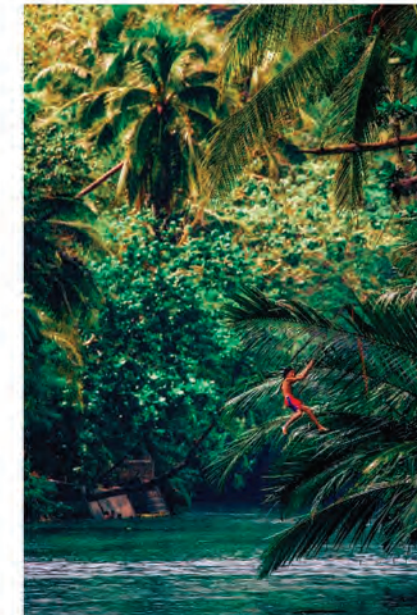
천혜의 자연 보홀 자연을 몸소 체험하고 싶다면 탁빌라란 시 중심에 바클레온 '피콕 가든'을 찾아보자. 피콕 가든 호텔에서 아름다운 경치의 다시탐(Dasitam) 길을 따라 로욜라(Loyola)호수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ATV라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도로와 산길을 오가며 천혜의 자연 보홀에서 숨겨진 야성을 마음껏 발산해보자.

인디아나존스가 되어보자! 필리핀의 아마존 '로복강'

누구나 한번쯤은 영화속 모험가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로복강'이 추천된다. 바클레이온에서 강쪽으로 가면 보홀에서 가장 큰 강으로 필리핀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로복강 크루즈'를 탈 수 있다. 크루즈를 타고 21Km에 이르는 긴 강을 가로지르며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정글사이를 흐르는 신비로운 녹색의 멋진 강에서 마치 내가 모험을 떠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로복강의 시파탄 강가에는 '행잉 브릿지'라는 흔들 다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자신이 인디아나존스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든다.



(사진설명: 필리핀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로복강')

이와 같이 보홀은 신비한 자연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하고 프라이빗한 리조트에서 마지막 휴양을 즐기며 자연이 선물해준 필리핀 보홀의 낙원을 만끽해보자. 코로나로 지친 일상, 하루 빨리 회복기가 찾아오면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청정지역 보홀에서의 언택트한 여행을 즐겨보자.



(사진설명: 로복강 시파탄 강가 '행잉 브릿지')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tsmorefuninthephippines.co.kr/>에서 볼 수 있다.

06.30~08.29

08.10~09.11

WHAT'S UP



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 영화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올해도 사회 이슈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목한다. 아동 폭력에 상처 받은 가족의 이야기 <긴 밤> 등 여성 영화인 창작 지원 프로젝트 '피치&캐치' 본선에 진출한 10편도 만난다.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 <두 사람>은 시니어 여성의 강인한 삶을 관찰한다. **장소** 서울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외 **문의** 02-583-3598

08.26~09.01



축제

무안연꽃축제

이맘때 전남 무안은 만개한 연꽃이 장관이다. 마을 주민이 백련 12주를 심은 것이 시초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백련, 수련, 가시연꽃 사이를 가르며 생태탐방로를 걷는 기분이 상쾌하다. 화산 백련지에는 108출렁다리, 수생식물생태관, 물놀이장과 오토캠핑장도 자리해 여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장소** 전남 무안 화산 백련지 **문의** 061-285-1323

08.12~22



영화제

제23회 정동진독립영화제

2021. 08. 06 Fri - 08. 08 Sun | 11월 11일 10시



정동진독립영화제

밤하늘 아래에서 영화를 관람한다. 한국 최초 야외 영화제인 정동진독립영화제의 올해 콘셉트는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 공모작 단편 954편, 장편 47편 중 단편 19편과 장편 3편을 선정해 상영한다. 성소수자 자식을 둔 두 가정사를 담은 <너에게 가는 길> 등 사회의 현실을 풀어낸 작품도 많다. **장소** 강원도 강릉 정동초등학교 운동장 **문의** 033-645-7415

08.06~08



공연

2021 국립합창단 기획 공연 SUMMER CHORAL FESTIVAL

국립합창단이 준비한 기획 공연이다. 8월 24일에는 국립합창단 윤의중 단장의 지휘로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이 울려 퍼진다. 25일에 공연하는 '코리아 판타지'는 한반도의 역사와 일제강점기의 독립 투쟁, 끝없는 도전을 함축한 교향시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7-8111

08.24~25



축제

2021 오감만포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경새재도립공원 1관문부터 3관문까지 약 7킬로미터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동안 몸이 가벼워진다. 맨발 단체 줄넘기, 맨발 제기차기, 숲속 음악회, 노래자랑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다. 참가신청 필수. **장소**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문의** 053-754-7981

08.21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TX Magazine × OK* CASHBAG

K.O.패키지

온·오프 강자의 강력한 마케팅 펀치 한 방, 케이오패키지

핫한 제휴로 비용은 합리적으로 **Down** 마케팅 효과는 **UP! UP!**



KTX Magazine 기사

전국 최고 발행 부수(매월 10만 부)

KTX | itx 청춘 | itx 새마을
좌석 내 독점 비치

대한민국 OK* CASHBAG, 핫오브핫



1000만 유저, OK* CASHBAG 앱 내
지자체 마케팅 플랫폼 '대한민국 핫오브핫'
타깃 및 위치 기반 실시간 푸시 알림 병행



☺ 케이오패키지로 온·오프 결합 광고, 한 방에 해결하세요 ☺

- ☺ 첫째, <KTX매거진>의 우수한 내용으로 콘텐츠 해결
- ☺ 둘째, OK캐시백 메인 노출로 고객 방문 및 경험, 홍보 효과 극대화
- ☺ 셋째, 진행 후 케이오패키지 노출 확인 및 마케팅 분석 가능

광고 문의 성우애드컴 02-890-0907

우리 가게&제품 홍보하기



공감페이퍼

예쁘고 감성 있는 파라솔을 찾는다면? 사장님이 직접 재단하고 봉제해 튼튼함까지 더한 파라솔을 소개합니다. 마당, 해변에서 펼치는 순간 햇볕을 막는 동시에 멋스러운 포토 존을 완성합니다.



- * 파라솔 단품, 하단 지지봉, 파라솔 커버로 구성
- * 파라솔 받침대는 별도 구매

가격 5만 9000원(대)
문의 010-8014-9614



행복드림플라워

바라만 봐도 좋은 꽃, 선물을 하거나 받으면 더 좋지요. '행복드림플라워'에서는 생일, 기념일, 프러포즈, 개업, 이사, 조문 등 경조사에 필요한 꽃과 나무를 전국에 배송합니다. 꽃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행복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가격 꽃, 나무마다 다름
문의 1877-4777



눈떠야

'눈' '떠' 보니 '야'침, '눈떠야'입니다. 신체 굴곡에 따른 지지력, 매일 새것 같은 메모리폼의 복원력이 뛰어난 눈떠야 메모리폼 토퍼 매트리스로 쉽게 잠들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세요.



- * 멀티싱글, 싱글, 슈퍼싱글 사이즈로 구성
- * 압축팩 무료 증정

가격 9만 9000원(싱글)
문의 010-3956-0350



자파팜

코로나19 시대에 어울리는 '감성 캠핑'을 준비 중이신가요? 캠핑용품 제작하고 유통하는 '자파팜'은 윈드브레이크, 우드 테이블, 두루마리 화장지 가죽 커버, 램프 수납 가방, 스탠드 화로대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 16만 9000원(윈드브레이크)
문의 010-4864-5968



오동재·영산재

무더운 8월, 전남 여수와 영암으로 초대합니다.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는 편의 시설을 갖춘 한옥 호텔입니다. 편백향 가득한 객실에서 쉽게 집중해 보세요.



- * 오동재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모집 중(주 단위 가능)

주소 전남 여주시 박람회길 99(오동재), 영암군 삼호읍 나불의도로 126-17(영산재)
문의 061-650-0300(오동재), 061-464-4600(영산재)



수리상회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엄선한 재료로 조리하는 '수리상회'입니다. 굵이 가득한 곱창, 고소한 대창, 쫄깃함이 매력적인 막창과 특양, 매콤한 맛이 일품인 소곱창전골을 생산합니다. 필수 캠핑 요리 곱창&막창, 푸짐하게 즐기세요~



가격 한우 1인 세트 3만 5900원(곱창 200그램, 대창 200그램, 엽통 200그램, 김치볶음밥, 찰소스와 콩고물로 구성)
문의 032-565-5930



구로정성한의원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한의원입니다. 통증·관절 클리닉과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진료합니다. 늦게 퇴근하는 분, 휴일에 일하는 분을 위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엽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26, 2층
문의 02-866-6600



농업회사법인(주)지앤인

플랜테리어 인기가 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지앤인'은 20년 넘게 구근식물과 숙근식물에 열정을 쏟은 화훼 농장입니다. 한국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튤립, 히아신스, 백합, 수선화로 나만의 정원을 가꿔 보세요.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연정말길 97
문의 031-544-9436

* 배송료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주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



미리 시차에 적응해 더욱 즐거운 여행을

다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그날을 대비해 효과적인 시차 적응 방법을 소개한다.

글. 김지현(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

여행과 수면의 관계를 생각할 때, 시간대가 다른 해외로 떠나는 여행에서 경험하는 시차가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긴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어디로 떠날지 미리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시차는 생체 시계와 여행지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불면증과 주간 졸림, 피로, 의욕 감소, 집중력 저하, 설사·변비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생체 시계는 다른 시간대에 놓이면 하루에 한 시간씩 적응해 가므로 일주일간 여행할 경우 적응할 무렵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는 여행지 시각에 적응돼 역시차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 유행인 한 달 살기처럼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짧은 시간 즐기 위해 시차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차 극복은 개인차가 있고 연령에 따른 차이도 크다. 서쪽 여행지에서는 한국보다 늦은 시각에 자야 하고, 동쪽 여행지에서는 이른 시각에 자야 한다. 사람마다 다르나 대부분 서쪽 여행지 시차에 적응하기 쉽다.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 여행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잠드는 시각이 오후 11시라 할

때 파리에선 7시간 전인 오후 4시다. 한국에서는 자야 할 시각이나, 파리에서는 한참 낮은 것이다. 졸려도 참고 관광하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잠자리에 들기에 쉽게 잠들 가능성이 크다. 동쪽 여행지는 반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후 11시가 한국에서는 오전 8시다. 보통 일어나는 시각이니 잠들기 힘들다. 졸린 건 참을 수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데 잠들려고 하면 힘들다. 이런 시차를 극복하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게 있다. 2~3일 여행 시 여행지 시각에 적응하기 어려워 애써 적응하지 않는 게 낫다. 더구나 시차가 큰 여행지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적응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하자면, 서쪽 여행지는 2~3일 전부터 하루에 한 시간씩 늦게 자고 저녁에는 밝은 빛을 쏘이며, 오전에는 밝은 빛을 피해 수면 스케줄을 조절한다. 단,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수면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좋다. 또 현지 도착 직후 깨어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비행 중 여행지 시각에 맞춰 잠을 잔다. 기내에서 귀마개나 안대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도착 해선 현지 시각 저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여

행지의 낮이 출발지의 밤이기에 커피를 마시거나 짧게 낮잠을 자는 것도 추천한다. 동쪽 여행지는 수일 전부터 저녁에 빛 노출을 피하고 수면 시간을 매일 한 시간씩 당긴다. 생체 시계를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을 초저녁에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낮에는 분비되지 않는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멜라토닌은 해외에서 수면 보조제로 판매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수면 전문의와 상의해 평상시 잠드는 시각의 4~5시간 전에 복용할 경우 생체 시계가 앞 시간대로 이동한다. 동쪽 여행지도 기내에서 현지 시각으로 수면을 취하거나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시차로 인해 생기는 불면과 수면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여행지에서는 오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오후에는 밝은 빛을 쬐는 게 빨리 적응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차에 완벽하게 적응한 채 여행을 떠나긴 어렵다. 시차가 큰 여행지는 현지 시각에 적응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간다면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수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면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면제 복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수면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수면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이에 올해 슬로건을 '수면과 일상의 삶'으로 정한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수면의 중요성을 연구해 숙면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면 장애인 불면증, 주간 졸음, 수면 주기 장애, 노화와 수면, 수면 무호흡(심한 코골이), 하지불안증후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로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수면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은 대한수면연구학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대한수면연구학회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ID picture', acrylic on canvas, 220×180cm, 2021

'ID picture'

옥승철

글. 김규보

클로즈업한 얼굴, 과장된 눈, 감정을 숨긴 표정과 이 모두를 강조하려는 듯 무엇도 그리지 않은 배경. 얼핏 만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기묘한 감상이 그런 인상을 지운다. 들여다볼수록 낮설어지고 친근함 대신 괴리감을 주는 얼굴은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양가감정을 선사하는 이미지가 계속 저를 주시하도록 시선을 붙든다. 어느덧 작품 속 얼굴처럼 감정을 숨기고 눈을 크게 뜬다. 이미지는 단순하나 관객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진다. 옥승철 작가는 컴퓨터로 회화 작업을 시작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이 확대된 장면을 캡처한 뒤 재조합해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창조한다. 이를 캔버스에 비추고 물감을 거둬 칠해 가면서 그리는 방식이다. 작품 14점을 선보이는 이번 세 번째 개인전 제목 '相'은 작가가 제안한 것으로, '서로' '자세히 보다' '고르다' 등 20여 가지 뜻을 지닌다. 하나의 글자에 여러 의미를 지닌 전시 제목과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가 변주되는 과정을 상상하는 일이 작품 감상에 흥미를 더한다. **▶**

* 서울 스페이스 이수 (相)전, 9월 12일까지. 문의 space.isu.info@gmail.com

travel

066
영화로운 도시, 경북 영주 힐링 여행

094
작은섬과기적같은공원의 이야기, 인천

118
윤영미아나운서의 화천예찬



사진: 신규철

인천 서구의 섬 세어도

공주님, 모란으로 위로를 주시네

서울 경복궁에서 만난 복은공주 활옷에 새겨진 모란이
금방이라도 붉게 피어날 듯 화려하다.

글. 이영란 사진. 신규철 자료 협조. 국립고궁박물관



북은공주 혼례용 방석
 봉황, 백로, 원앙과 모란·연꽃·작약 등
 다양한 꽃, 나비를 수놓아 백년해로와
 자손 번성을 기원했다.
 1830년/ 비단에 자수



왕실의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는 모란

조선 23대 왕 순조의 둘째 딸 북은공주(1818~1832)는 모란이 만발한 음력 4월에 안동 김씨 김병주와 혼인했다. 국혼 당일, 13세의 어린 공주는 궁중 수방에서 정성껏 만든 활옷을 입고 자수 방석에 앉아 혼례를 올리며 행복한 삶을 꿈꿨을 것이다. 정조를 비롯한 여러 임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던 모란도 병풍 11점에서는 슬픔이 묻어난다. 전시 공간 세 면을 장식한 병풍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왕을 떠나보내는 신하와 백성의 한숨과 눈물이 붉은 모란이 되어 되살아나는 듯하다.

INFORMATION

〈안녕, 모란〉 특별전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이 '모란'을 주제로 조선 왕실용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부귀와 풍요, 평안을 상징하는 모란을 장식한 각종 생활용품과 의례용품이 왕실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모란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창덕궁 낙선재 정원과 꽃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전시가 흥미롭다. 10월 31일까지, 무료 관람. 문의 02-3701-7500



<안녕, 모란> 주요 전시 작품

<안녕, 모란>전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은 그릇, 가구, 의복 등 왕실 생활용품부터 화려한 혼례용품, 흥례 때 고인의 시신과 혼을 달래는 자리에 놓는 의례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시각적 만족감 외에 모란 향, 전시 패널을 이용한 체험 존, 1층 카페의 모란 세트 메뉴까지 오감을 충족시킨다.



모란 무늬 장신구 상자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양자 윤용구 가문의 전래품이다.
20세기/ 나무, 비단, 종이, 상아



꽃·나비·새 무늬 보자기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 유품으로, 다양한 무늬를 색색의 비단실로 직조했다.
20세기 초/ 비단, 국가민속문화재



심사정이 그린 모란과 새 그림
색을 배제한 채 먹의 번짐과 농담으로 모란을 표현했다.
1767년/ 종이에 먹/ 국립중앙박물관



백자청화 모란 무늬 발
임금이 머무르는 대전에서 사용하던 그릇. 굽 주변에 제작 연도와 장소 등을 새겼다.
1852년경/ 국립중앙박물관



향로
왕의 초상인 어진을 모시는 진전에서 사용한 향로. 몸체에 모란을 가득 새겼다.
조선 시대/ 동에 도금



나전 주철 이층농
주철을 하고 자개로 모란과 길상무늬를 장식해 격조 있고 품위가 느껴진다.
20세기 초/ 나무에 주철, 자개



모란을 수놓은 혼례용 부채
흥례 때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부채로 만개한 모란을 수놓았다.
조선 시대/ 비단, 금속/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향기로운 왕실 모란이 선사하는 휴식

지난 1년여 간 <안녕, 모란>전을 준비한 국립고궁박물관의 두 주역에게 개최 전후 얘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영란

-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이 총 4만여 점인데, 그중 모란을 소재로 전시를 준비한 이유가 있나요?** 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식 물이자 누구나 친숙하게 느낄 만한 소재예요. 특히 모란은 조선 왕실 유물을 장식한 꽃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와 영화를 상징할 뿐 아니라 왕족의 마지막 가는 길에 쓰인 용품에도 등장하죠. 이렇듯 왕실과 관련이 깊은 모란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 **이번에 전시한 120여 점 중 특히 애착이 가는 유물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홍색과 초록색 비단 전체에 수놓은 복은공주의 혼례용 방석은 좌우 테두리를 장식한 정교한 모란 무늬에서 조선 왕실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한 창덕궁 전래 활옷은 장기간 보존 처리하던 중 활옷 안 심지가 1880년 헌종(재위 1834~1849)비 효정왕후의 50세 생일 기념 과거 시험 답안지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김재은) 저는 향로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습니니다. 향로에 새겨진 무늬가 신비로운 만큼 정교해 전시 공간 입구의 그림자 문양으로 활용했지요.(이세영)
-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정조가 그린 화훼도로 만든 6폭 병풍이 일본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매화·모란·연꽃·국화·오동나무·대나무를 그린 작품인데, 다양한 경로로 수소문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김재은) 고궁에 핀 모란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전시 공간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더 멀리까지 퍼지는 창덕궁 낙선재에 핀 모란에서 포집한 향을 1부 '가우고 즐기다'가 열리는 정원에서 18~19세기 대표적 모란 그림과 함께 느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고궁박물관 1층 휴게 공간을 방문하시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조선 궁궐 곳곳의 화계에 만개한 모란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이세영)
- **관람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쉬었다가시면 좋겠습니다. 왕실이 사랑하고 직접 사용한 유물이 전하는 치유 에너지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김재은) 아이와 함께 방문할 관람객을 위해 반응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남녀노소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시 제목인 '안녕, 모란'처럼 우리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이세영) ☑



(왼쪽부터) 김재은 학예연구사, 이세영 전시 디자이너



2021. 7. 7. ~ 10. 31.



영화로운 도시 영주 힐링 여행

14
50

선비 문화를 꽃피운 경북 영주에서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늘 푸른 소나무처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참된 선비가 되라는 의미를 지닌 학자수가 소수서원으로 인도한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길이다.



healing

휴식은 곧 회복이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숨이 간절해지는 휴가철,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움츠러들기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피로를 해소할 휴가를 계획했다. 여행지를 고른 원칙은 이렇다. 첫째, KTX 열차가 가는 지역일 것. 둘째, 자연과 가까울 것. 셋째, 전통문화와 트렌디한 문화를 고루 체험할 것. 이 모두를 충족하는 도시가 떠오르자 여행지를 결정하기는 쉬웠다. 국립공원 소백산 자락의 청정함 기운이 감도는 경북 영주에서 휴식의 의미를 찾기로 했다.

Rest is essential for recovery, and all the more so under the scorching sun. Instead of throwing out plans altogether amid the COVID-19 pandemic, I wanted to enjoy my summer vacation, and laid out some rules in choosing my destination. First, it should be accessible by KTX. Second, it should be close to nature. Third, it should embrace both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 The city that satisfied these conditions was Yeongju.

자연과 어우러진 소수서원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영주로 달리는 KTX-이음 열차 안에서 문득 호기심이 생긴다. 선인은 여가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 답을 찾을 곳을 궁리하니 단번에 소수서원이 생각났다. 소수서원과 함께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 총 아홉 곳은 조선 중기 이후 선비가 유학을 공부하던 사립학교다. 과거 합격을 우선하는 국립 교육기관 향교와 성균관의 교육 방

Sosu-seowon, One With Nature

I boarded the KTX-Eum train bound for Yeongju, known as the hometown of *seonbi*, or virtuous scholars in the Joseon era. I wondered how the scholars passed their free time. The answer was likely to be found in Sosu-seowon, the first Neo-Confucian academy in Korea that produced more than 4,000 scholars in a period of 345



향을 안타깝게 여긴 뜻있는 선비가 학문에 집중하도록 한적한 자연 속에 설립한 것이다. 서원은 학식을 쌓기 이전에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할 사람을 기르는 데 근본을 두었다.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서원은 존경하는 스승을 기리는 제향 공간, 스승·벗과 교류하는 유식 공간, 학문에 힘쓰는 강학 공간으로 구분해 건축했다. 유생이 지켜야 할 본분을 다하면서 여유를 잃지 않던 선비의 지혜가 녹아든 장소다.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으로 향한다. 345년 동안 4000명 넘는 유생을 배출한 이곳의 역사를 말할 때 주세붕과 이항을 빼놓을 수 없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 선생은 한반도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 선생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 그의 고향에 사당을 건립하고, 이듬해인 1543년에 백운동서원을 창건한다. 뒤이어 부임한 이항 선생은 백운동서원의 교육 방향에 공감해 명종에게 공식 교육기관 인정을 청하는 진언을 올린다. 1550년 명종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무너진 교학을 이어서 닦는다는 뜻을 담아 '소수(紹修)'라는 이름

years. The two most prominent figures in its history are Ju Se-bung and Yi Hwang. Magistrate Ju Se-bung of Punggi County built a shrine in the memory of An Hyang, who introduced Neo-Confucianism in Korea, and founded Baekundong-seowon in 1543. Yi Hwang strongly supported the educational goals of Baekundong-seowon, and asked King Myeongjong to declare it an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 In 1550, the king responded by renaming the academy as Sosu-seowon, which means to "reawaken scholarship," and bestowed a handwritten signboard. This marked the start of academies accredited by the king. At the entrance, I am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영주역까지 KTX-이음을 타고 1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맑은 죽계천 옆 정자 경렴정, 숙소에서 내려다보이는 연못 탁청지. 소수서원은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닦는 공간이었다.

과 친필 현판을 내린다. 사액서원의 효시가 되는 순간이었다. 소나무가 뻗뻗한 초입에 다다르니 세상이 온통 초록빛이다. 겨울에도 이 빛을 잃지 않았을 터. 사시사철 잎이 푸른 소나무처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참선비가 되라는 의미를 담아 조선 효종 대에 조성한 학자 수림이다. 약 360년 전 유생의 본보기가 되었던 학자수가 서원으로 인도한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길이다.

서원에 도착하기까지 몇 분 안 되는 거리에서 발걸음을 몇 번이나 늦추었는지 모른다. 하늘 높이 자란 소나무를 따라 고개를 뒤로 쪽 젖히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죽계천 너머에 이황 선생이 조성한 대(臺)를 정자로 세운 취한대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한다. 연화산의 청명한 기운과 맑은 죽계천 물빛에 취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속뜻처럼 분위기가 한가롭다. 서원의 정문인 지도문 근방에서 또 멈춘다. 옆에 주세붕 선생이 서원과 함께 세운 정자가 있다. 얼마나 많은 유생이 이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흥에 취했는지 정자에는 시가 적힌 편액이 가득하다. 가장 눈에 띄는 현판은 같은 글자를 다른 필체로 새긴 '경렴정(景濂亭)'. 바깥쪽에는 스승 이황이 또박또박 적은 글자가, 안쪽에는 제자 황기로가 운율이 느껴지게 휘갈겨 쓴 초서체 글씨가 대비돼 재미있다.

공간에 스며든 선비 정신

새로운 시도이기에 정해진 법도는 없었다. 다만 전통예를 따라 서원을 건축했다. 서쪽을 으뜸으로 해 안향 선생을 배향하는 문성공묘를 모시고 동쪽에는 학습하는 강학당을 배치했다. 강학 공간은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리를 정했다. 정문에 들어서서 처음 마주하는 강학당은 기둥을 세우고 벽 없이 사방으로 문을 낸 특이한 구조로, 창호 문을 열어 놓으면 유생이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학당 뒤편, 원장과 교수가 기거하는 집무실 겸 숙소인 직방재와 일신재의 현판은 스승도 매일 덕을

greeted by a lush pine forest, which would stay green throughout the cold winter months. The trees, a symbol of resilience and perseverance, were plan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to remind scholars of staying strong in the face of adversity. They served as a role model for scholars about 360 years ago, and continue to soothe the souls of visitors today.

I slowed my pace several times during the short walk to the academy. I stopped to look up at the towering pine trees, and took a photo of Chwihandae Pavilion across the Jukgyecheon Stream. The name "chwihandae" means "to write poems and enjoy the arts while being drunk in the beautiful scenery." Next to the main entrance is a pavilion built by Ju Se-bung. Inside, there are tablets covered with poems that hint at how much the scholars were touched by nature. One of the most noticeable structures is Gyeongryeomjeong, where you can see the neat handwriting of Yi Hwang outside the pavilion, and the more cursive script of his student Hwang Gi-ro inside.

A Tribute to Joseon's Intellectuals

Attempting something new means there are no rules to follow, but traditional practices were observed. The Munseonggongmyo Shrine was built in the west, generally reserved for the best, and Ganghagdang Hall in the east. The study hall was placed in the opposite end to keep in

소수서원 강학당은 유생이 책을 리듬에 실어 소리 높여 읽던 교실이였다. 현재 유생복을 입고 유교 경전을 성독하는 체험을 진행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의 054-639-7691



nature

죽계구곡이 경쾌하게 흐른다. 산을 휘돌아 지나가는 물길에서도 경치가 빼어난 구곡은 선인이 깨달음을 구한 아홉 굽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주의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쌓고, 한결같이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라고 인지시킨다.

혹여 스승의 그림자를 디딜까 마당을 두고 물러난 지락재와 학구재는 제자가 머물던 기숙사다. 학문의 기본인 독서의 낙을 알아 가고 성현을 좇아 공부에 힘쓰는 유생이 머물기에 화려한 치장 없이 소박하다. 특히 지락재에서는 담장 너머 연꽃이 피어나는 탁청지가 내려다보여 자연을 벗 삼아 식견을 쌓기 좋았을 것이다. 서원에서 취하는 휴식은 온화한 인성을 배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길인 셈이었다.

구곡과 숲을 두루 거니는 소백산자락길 1구간

소수서원 앞에 소백산 정기가 흐른다. 소백산맥 최고봉인 비로봉과 그 북동쪽의 국망봉에서 발원한 지류가 죽계천이 되어 서원에 정기를 전한다. 이 아름다운 계류를 지나칠 수 없어 고려 시대 안축 선생은 경기체가 '죽계별곡'을 지었다. 죽계천을 거스르는 소백산자락길 1구간이 다음 여행 코스다. 1구간은 소백산 자락

line with the traditional saying that students must avoid stepping on their teacher's shadow. The first structure you see upon passing the main gate is Ganghaktang Hall, which has doors on all four sides instead of walls. The sound of scholars reading aloud from their books would have rang throughout in the old days. To the back of Ganghaktang Hall are Jikbangjae and Ilsinjae, which were the teachers' living quarters and offices. A spacious yard keeps them separate from the student dormitories, Jirakjae and Hakguae. The humble space was furnished only with bare necessities, allowing students to stay fully focused on learning. The picturesque view of Takcheongji Pond from Jirakjae would have inspired an appreciation of nature. All in all, the academy's relaxing atmosphere helped to instill a gentle yet unrelenting spirit in the scholars.



을 한 바퀴 둘러 가는 143킬로미터 열두 구간 중 숲과 계곡이 어우러지는 돌레길이다. 선비의 자취를 엿보는 선비길, 계곡이 굽이치는 구곡길, 잣나무 숲이 우거진 달밭길 등 세 코스로 이어져 원하는 지점을 골라 걸을 수 있다. 총 12.6킬로미터 거리를 완주해도 좋지만, 여름에는 역시 계곡이 최고다. 구곡길 시작점인 배점분교로 이동하는 길, 평온한 순흥저수지 풍광이 눈에 담긴다. 저수지 가장자리를 잇는 톱 길은 운치를 더하는데, 현재 10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올가을에 다시 오고 싶은 길이다.

비 온 직후라서 계곡물 소리가 웅장하다. 촉촉하게 습기를 머금은 나무가 띄약벌로부터 보호해 주는 구곡길에서 걸음을 편히 옮긴다. 산맥을 휘돌아 지나가는 물길에서도 경치가 빼어난 구곡은 선인이 깨달음을 구한 아홉 굽이를 뜻한다. 죽계구곡은 대학자 주

소백산자락길은 영주, 봉화, 단양, 영월에 걸쳐 소백산 한바퀴를 에 두르는 열두 구간, 총 143킬로미터 돌레길이다. 영주 지역 코스는 1·2·3·8·9·10·11·12구간이다. 문의 054-637-8586



Appreciating Nature on Jarak-gil Trail 1

In front of Sosu-seowon, Sobaeksan Mountain exudes a refined energy. The same energy is released by Jukgyecheon Stream, formed by tributaries originating from Birobong Peak and Gukmangbong Peak. Up on my itinerary is Sobaeksan Jarak-gil Trail 1, which cuts across the stream. Among the 12 trails that run for 143 km around the mountain, Trail 1 offers a good mix of forests and streams. Take the Seonbi-gil route to immerse yourself in the spirit of scholars, the Gugok-gil route to walk along winding streams, or Dalbat-gil route to explore the nut pine forest. You can walk the full length of 12.6 kilometers, but there's nothing like dipping yourself in a mountain stream in summer. The starting point of the Gugok-gil route offers a breathtaking view of Sunheung Reservoir.



**달밭길의 잣나무 숲은 신선하고
중후한 자연 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쉽터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니
세상 평화롭다.**



세봉과 이황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선비가 성지처럼 방문해 자취를 찾곤 했다. 현재는 순흥부사 신필하가 바위에 새긴 글자대로, 상류 1곡 금강반석부터 9곡 이화동까지 옥녀봉에서 이자산 사이를 흐르는 약 2킬로미터 거리의 계곡을 칭한다. 산을 오르며 계곡 하나를 놓칠세라 표지를 찾아 눈을 반짝인다. 작은 소가 있는 6곡 목욕담은 용모를 단장하는 것처럼 마음도 맑은 물로 씻으라 전하고, 초암사 인근에서 만나는 2곡 청운대에서는 물결이 거칠게 휘감아도 자리를 지키는 바위를 보며 꿈을 위해 노력하면 이를



The stream is roaring harder after the rain. The name "gugok" refers to the nine bends where scholars reflected on the meaning of life. Jukgye Gugok Valley was popular among scholars because it had been visited by Ju Se-bung and Yi Hwang. The distance from the first bend at Geumgangbanseok to the ninth bend flowing between Ogyeobong Peak and Ijasan Mountain is about two kilometers. The trail also passes the famous Choamsa Temple.

것이라는 응원을 받는다. 구곡의 기점인 1곡 금강반석은 화강암 너럭바위를 맑게 투영하는 물빛이 인상적이다. 의상대사가 초암사에서 움막을 짓고 부석사를 구상했듯이 새로운 도전은 바른 정신에서 출발해야 함을 가르친다. 물소리가 들리는 계곡 곁에서 지칠 때마다 쉬어 가도 짧게만 느껴지는 길이다. 1구간의 대미는 달밭길의 잣나무 숲. 비에 젖어 신선하고도 중후한 자연 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그냥 지나기 아쉬워 곧게 자란 잣나무 사이 쉽터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본다. 세상 평화롭다.

Yeongju's Villa, a Time of He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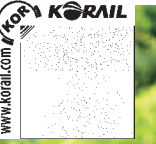
At Yeongju's Villa, you can rest all you want, but you must do your best to eat. I head to Yeongju's Villa, where I'll be spending the night. As I get higher up the ridge, I find myself surrounded by a lush forest. It feels like a world of its own, unfettered by mundane concerns. Yeongju's Villa is the lovely white house that greets me at the top.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스토리를 만들고
공간에 감성을 채운다.
영주 곳곳에 트렌디한
문화가 피어난다.



Culture





온전한 힐링을 선물하는 '영주네 별장'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언제인가? 공유 주방이자 숙소인 '영주네 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만히 있어도 된다. 다만 먹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목을 영주네 별장으로 이동한다. 점점 가팔라지는 능선을 올라가자 사위가 울창해진다. 숨겨놓은 나만의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정상엔 그림 같은 하얀 집이 반긴다. 통창이 난 건물에 들어가니 대촌리 풍경이 액자 사진처럼 가득 찬다.

푸드 스타일링을 하는 배지현 씨가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은 공유 주방으로 활용하다 확장한 장소다. 건강한 지역 먹거리로 제작한 밀키트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만들어 맛있게 먹도록 한 것까지는 완벽했으나, 그 후가 아쉬웠다. 멀리에서 온 이가 서둘러 떠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 숙소를 마련했다. 주방은 여전히 중요한 공간이다. 콘셉트에 맞게 조리 도구, 기본 조미료는 물론

Bae Ji-hyeon, a food stylist, opened the villa this year under the concept of "a food stylist's space." She used it as a shared kitchen before expanding it into an accommodation facility. Of course, she paid the most attention to the kitchen, which is fully equipped with not only basic seasonings, but also plates, wine glasses, tablecloths, and a centerpiece. Visitors can cook to their heart's content simply by preparing their favorite ingredients. Those who are more used to food delivery can experience the fun of cooking and eating with their loved ones. If you're looking for a healing experience, Yeongju's Villa is highly recommended.

영주네 별장에서 찍은 사진은 모두 근사하다. 크루아상 생지, 사과, 청란 등을 예쁜 쟁반에 담아 주는 조식 키트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다. 크루아상만 구워 올리면 훌륭한 브런치가 완성된다.

문의 @_Ojune





접시, 와인 잔, 식탁보, 센터 피스까지 완비했다. 고객은 식재료를 가져와 요리하고 취향껏 차리기만 하면 된다. 소품이 예쁘니 찍는 사진마다 소장용이다. 배달 음식에 익숙해진 이들도 여기서는 함께한 이와 지지고 볶으며 요리에 재미를 붙인다. 기분 좋은 과정이 힐링을 선사한다.

문화가 익어 가는 '만수주조'

2010년 설립해 소백산 맑은 물에 쌀과 누룩으로 2대째 지역 막걸리를 생산하는 '만수주조'는 언제나 모두에게 열린 양조장이다. 양조실 일부를 도서관처럼 개방해 책을 읽고 쉬어 가게 했을 뿐 아니라 체험 학교를 운영해 술 빚는 공장의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는 데 앞장선다. 2014년 오픈한 '발효 체험 학교 띄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만의 전통주 빚기, 누룩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침 전통주 빚기 체험 시간이다. 적정 비율로 재료를 배합하는 중요한

Mansu Brewery, Where Culture Ripens

Established in 2010, the family-run Mansu Brewery has been brewing *makgeolli* (Korean rice wine) using water from Sobaeksan Mountain, rice and *nuruk*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for two generations. Since 2014, it has offered classes under the Fermentation Experience School Ttuium for children, teenagers, and the general public to learn traditional brewing and *nuruk* cookie-making. A traditional brewing class was being held during my visit. "Pound the dough ball until the starter is bubbly and active," says Lee Boyeong, who runs Mansu Brewery and Ttuium.

만수주조는 당해 수확한 쌀로 막걸리를 빚는다. 충분히 발효해 술 본연의 깊은 맛이 우러나고 숙취가 없는 게 특징이다. 1년에 한번 술과 책,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날을 주최한다. 문의 054-634-5641

양조장에 문화가 깃들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찾아온다. 전통주의 내일을 열어 간다.

순간 저울에 무게를 재는 체험객의 눈빛이 예리하다. "누룩이 잠에서 깨어나게 열심히 치대세요." 이보영 대표가 말하자 모두 집중해 쌀과 누룩을 주무른다. 뽀얀 물이 우러나올 때 완성! 체험객의 뿌듯한 표정에 이 대표도 빙그레 웃음 짓는다. 미래의 전통주 업체 CEO를 꿈꾸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막걸리 담그기, 양조장 경영하기 등 직업 교육도 시행한다. 전통주의 내일을 그리는 문화공장이다. 휴식을 취하고자 굳이 무엇인가 할 필요는 없다. 막걸리를 빚는 마지막 단계는 숙성이다. 막걸리 원액과 물이 어우러지며 맛이 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열심히 살아왔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도 좋겠다. 그 순간이 바로 충전이다. ☑

Everyone begins to knead the rice and *nuruk*. A milky white color is a sign of success. Lee smiles when she sees how satisfied the students are. Ttuium's vast range of programs includes *makgeolli*-making and brewery management for potential CEOs of traditional breweries. You don't always have to do something while you rest. The last stage of making *makgeolli* is fermentation—waiting for the brew to blend and for the taste to develop. It's okay to stop and get away from the everyday. Considering how far you have come, think of it as an opportunity to relax and recharge. ☑



영주의 또 다른 볼거리



국립공원산림치유원

산림 치유는 숲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활동이다. 이곳은 숲속에 설치한 해먹 위에서 운동하거나 휴식하는 숲 치유 프로그램과 건강 증진센터·수치유센터·산림치유문화센터에서 장비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기력을 충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약 50킬로미터의 치유 숲길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가볍게 산책하는 마실치유숲길부터 산악스포츠치유숲길까지 7개 길을 조성했다. 문의 054-639-3400



영주 가을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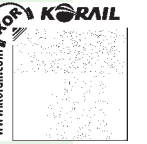
10월의 영주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려 풍요롭다. 인삼 영양분이 풍부해지는 계절에 풍기 인삼으로 만든 요리를 맛보고 약주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는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는 온라인에서 한 달간, 오프라인에서는 7일부터 5일간 이어지며, 달빛에 물든 소수서원을 걸으며 선비가 되어 보는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는 15일에 시작해 4일 동안 개최한다. ‘영주사과축제’ ‘영주무섬외나무다리축제’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문의 054-630-8703



희방폭포

조선 시대 문장가 서거정은 “하늘이 내려 준 꿈에서 노니는 듯한 풍경”이라고 평했다. 연화봉에서 발원해 희방계곡을 이루다가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소백산 중턱 해발 700미터에 자리한 폭포는 높이가 28미터에 달하며 영남 지역 제1의 폭포로 꼽힌다. 암벽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올라가면 웅장한 폭포와 소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인근에 신라 시대에 창건한 사찰 희방사가 자리해 함께 둘러보기 좋다. 문의 054-638-5833

영주의 맛있는 먹거리



태극당

1980년 4월 1일 영주가 시로 승격할 날에 문을 열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태극당’의 대표 메뉴는 인절미 카스텔라. 30년이 넘도록 부동의 판매 1위다. 찌지 않고 삶아 낸 찹쌀떡에 고운 카스텔라 가루를 고루 묻혀 입안에 넣으면 한순간에 사르르 녹는다.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이곳 빵은 국내산 버터를 사용해 풍미가 뛰어나고 당일 생산·판매를 고수해 신선하다. 남은 빵은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착한 빵집이다. 문의 054-633-8800



풍기삼계탕

지역 특산물인 풍기 인삼을 넣은 삼계탕 메뉴 하나로 승부한다. 3대 김수미 대표는 어머니 쪽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수했다. 풍기 인삼, 은행 등 다섯 가지 재료를 듬뿍 넣은 국내산 닭을 담백한 채수로 끓인 삼계탕은 사시사철 특별한 보양식. 특히 여름철에는 잃은 기력을 복돋아 준다. 김장 김치가 떨어지면 내놓지도 않을 정도로 가족에게 줄 음식만 상에 낸다는 주인장의 소신이 지조 있는 선비처럼 대쪽 같다. 문의 054-631-4900



나드리

이토록 다양한 쫄면을 선보이는 곳이 또 있을까. 시원한 육수를 곁들인 냉쫄면, 매운 양념을 따로 제공해 매운 정도를 조절하는 간쫄면, 소갈비를 고명으로 올린 쌀로 만든 쫄면까지 특 특 튀는 아이디어가 메뉴에 녹아들었다. 30여 가지 재료를 배합해 20일간 저온 숙성한 기본 쫄면은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데, 맛보고 반해 찾아와서 먹는 사람도 많다. 쫄면 하나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맛집이다. 문의 054-633-5482



떠나온 기분이 물씬 나는 인천 여행자의 방

공항과 바다가 있는 인천에서 여행하는 즐거움을 더해 줄 숙소를 찾았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취재: 릴로, 한국관광공사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 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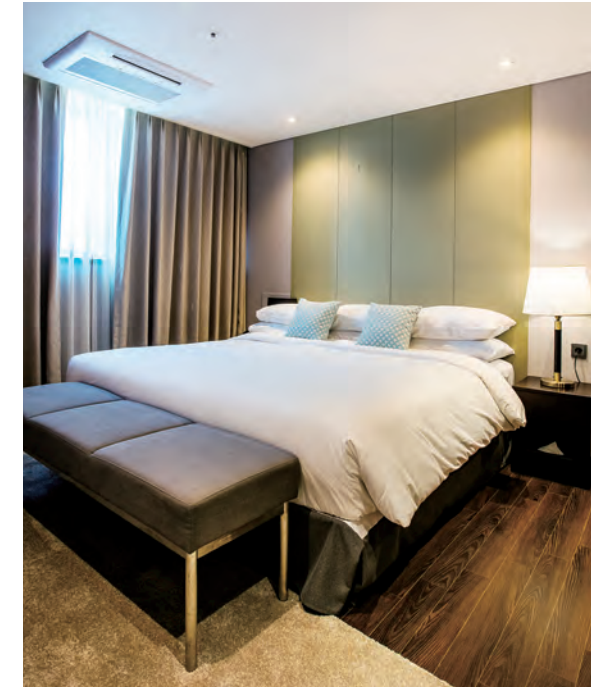


대형 호텔 브랜드의 전문성과 신뢰도 하워드존슨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로비에 들어서자 바쁜 마음이 문득 여유로워진다. ‘내가 쉬러 왔구나’ 하는 느낌을 절로 선사할 만큼 로비가 넓다. 공항 근처라는 위치 특성상 비슷한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더라도 소란스럽지 않겠다. ‘하워드존슨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는 세계 95개국에 8900개 이상 호텔을 운영하는 윈덤 호텔&리조트의 체인이다. 본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호텔 시설의 수준, 청결, 서비스를 보장하는 셈이다. 실제로 17개 항공사가 이곳을 선택해 승무원이 오가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로비의 스크린에서는 항공기 시간표가 나온다. 요즘은 이것도 볼거리가 되어, 여행하고 싶은 도시행 비행기가 언제 뜨는지 확인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객실로 향하는 길, 복도 또한 로비처럼 널찍하다. 고객의 편한 이동을 고려한 설계가 코로나 시국과 맞아떨어졌다. 윈덤 브랜드는 숙소마다 시그너처 컬러를 도입하는데, 이 호텔의 색상은 주황과 노랑. 객실의 머그잔이나 전기 주전자 등에서 컬러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하에는 수영장, 키즈 존 같은 레저 시설이 코로나19이후를 기억한다.

INFORMATION

주소 인천시 중구 신도시남로142번길 6 문의 032-722-0000
홈페이지 www.howardjohnsonincheon.com
주변 여행지 소나무 숲과 노을이 아름다운 을왕리해수욕장



숙소의 보물 1호



곳곳에 설치한 예술 작품

해외 아트 페어에서 출품작이 속속 매진되어 ‘아트 페어가 사랑한 작가’라는 명성을 얻은 고재권을 비롯해 김명실, 김보배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호텔을 빛낸다. 숙박도 하고 예술 감상도 할 기회다.





‘꿀잠’과 친환경의 만남 지엘시티호텔

숙소를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이다. ‘지엘시티호텔’은 기본기가 탄탄하다. 모든 객실에 ‘과학’으로 유명한 최고 품질의 침대를 놓았다.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침대라 생각해서다. 몸에 닿는 침구는 세계적 호텔 침구 업체의 친환경 제품을 비치했다. 옥수수를 원료로 한 소로니는 제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학섬유보다 절반 이상 적고 생분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다. 사소하다 여길 수 있지만, ‘청소해 주세요’와 ‘방해하지 마시오’ 표시를 쉽게 손상시키는 종이 아니라 자석으로 하게 한 점도 호텔의 환경 의식을 나타내는 듯해 신뢰가 간다. 싱크대와 세탁기, 수납장, 빨래 건조대를 갖춘 레지던스형 호텔이라 객실에서 간단한 조리가 가능해 장기 투숙객이 유난히 많다. 운서역 맛집, 영종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1층 레스토랑 ‘가이아’는 일부러라도 방문할 만하다. 전문 셰프가 요리한 스테이크와 초밥을 한자리에서 맛본다. 비대면을 권장하는 시대, 키오스크 체크인 시설을 입구에 마련해 놓았다.

INFORMATION

주소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196번길 19 문의 1599-1123
홈페이지 www.glcityhotel.com
주변 여행지 썰물 때 실미도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무의도



레스토랑 ‘가이아’ 채승현 셰프의 요리
성악을 전공하다 20대에 요리에 빠져 미국 베벌리힐스 등에서 20년간 경력을 쌓은 채승현 셰프가 음식을 책임진다. ‘셰프가 알아서 코스’를 주문하면 그날 재료, 손님 취향을 감안해 독창적 요리를 선보인다.





특별한 인테리어 속 친근한 휴식 호텔월미여관

1883년 개항한 인천은 역사의 아픔과 영광을 함께 겪으며 성장했다. 동서양이 혼재한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도시이기도 하다. 월미도는 이 땅 최초의 유원지라고 해도 무방한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여가 시설이 생겨났고, 지금도 월미도 하면 놀이공원을 떠올린다. 놀이공원에서도 보 3분, '호텔월미여관'은 허름한 여관을 리모델링한 숙소다. 건설업을 하는 대표가 인천의 근대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어 한식에 일본식을 접목해 꾸렸다. 격변의 개화기, 새로운 문화가 밀려 들어와 서로 섞인 당시를 재현하려 자료를 찾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했다. 인천시의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된 일이 힘을 보태고 책임감을 더해 주었다. 객실에는 두툽한 이불을 깔고 그 위를 '청실홍실', 빨간 비단과 파란 비단으로 예쁘게 장식했다. 가구는 마음에 차는 게 없어 주문 제작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로비도 호텔 명물이다. 로비의 책은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방에서 툇툇 툇툇 쉬고 놓고, 만화책을 빌려 읽는 시간을 놀이공원에서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재미있다.

INFORMATION

주소 인천시 중구 월미로 247-21
문의 032-764-0720 홈페이지 hotelwolmi.modoo.at
주변 여행지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지금도 핫한 유원지, 월미도

숙소의 보물 1호



다정한 이모님 같은 지배인 가족, 친구 손님이 많은 이곳에 대표의 이모인 이덕희 지배인은 보물 같은 존재다.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의 '비즈니스적 친절함'이 아닌 세련되고도 포근한 응대에 숙소 후기에도 지배인 이야기가 잔뜩이다.



새 발견, 인천 서구

자동차 없는 섬을 둘러 걷고,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드림파크를 산책했다.
하루 여행하는 동안 마음이 밑물처럼 차올랐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육지가 산문이라면 섬은 시 같다. 하고 싶은 이야기, 보여 주고 싶은 풍경을 압축한 땅. 세어도는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면서 눈에 스쳤을 작은 섬이다. 그동안 스치고 놓친 수많은 사람처럼, 잠시 눈길 뒀다가 지나친 세어도를 오늘의 여행지로 골랐다. 육지와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섬은 다리가 놓이지 않아 배를 이용해 입도한다. 내 일정이 아니라 배 일정에 맞추자니 섬의 초대를 받는 기분이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른다. 운항 시간은 짧아도 '정직한' 방법으로 섬을 만난다는 사실이 즐겁다. 배 위에서 보는 바다와 섬, 영종대교는 육지에서와 확연히 다르다. 바다와 밀착한 느낌이라 할까. 10여 분이 지나고 어느새 세어도다.

길을 잃지 않는 섬, 세어도

인천 서구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는 40만 8000제곱미터(약 12만 3000평) 면적에 해안선 길이가 약 4.2킬로미터인 섬이다. 선착장 앞바다엔 고만고만한 어선이 점점이 떠서 조업 중이다. 이 계절에는 주로 농어를 잡는다고 한다. 어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이 도시의 까막눈 여행자에겐 서정적인 풍경으로 다가오는



세어도까지는 행정선인 정서진호가 다닌다. 가격은 무료이며 경인항 관리부두 임시 선착장에서 10여 분 걸린다.



바다에서 불쑥 솟아난 땅, 섬은 시 같다. 자동차 한 대 없는 섬을 배 타고 들어가 두 발로 걸어 여행한다. 섬을 섬답게 만난다.



**갯벌, 해발 0미터.
무수한 구멍을 게가
드나든다. 바쁘게
움직이는 0미터의 삶이
경이롭다. 갯벌이 있어
1미터, 100미터의
삶이 존재한다.**

것이 죄송스럽다. 여정을 계획하려 안내판을 살핀다. “우리 섬에 서는 길 안 잃어버려요.” 한 주민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넨다. 우와, 세상에 그런 곳이! 확신의 조언이 반갑다. “길을 잃지 않는 섬”이라 발음해 본다. 시작이 좋다.

5킬로미터 돌레길 초입은 마을이다. 안내판에는 26가구 37명이 산다고 해 놓았다. 자동차도 한 대 없는 작은 섬. 벽화를 그려 색을 입힌 단층집이 정겹고, 곳곳에 꽃을 가꿔 마을이 화사하다. 지붕 너머, 발 너머 펼쳐지는 바다가 아름다움에 절정의 점을 찍는다. 곧 숲으로 접어든다. 과거에 주민이 모여 제를 올렸다는 신성한 소나무 숲을 지나고 얼마쯤,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가 놓여 있다. 앞은 당연히 바다다. 이 동화 같은 장소에 사랑하는 이를 데려오고 싶다. 풍경이 미소를 선사한다. 세어도에서는 몇 걸음 걸었다고 이토록 황송한 대접을 받는다.

숲은 점점 울창해지고 길은 세어도 북쪽 끝 전망대에 다다른다. 맞은편 강화도 동막해변까지 광활한 갯벌이 장관이다. 지금 누군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선이 뭐야?” 묻는다면 바다가 갯벌을 어루만지고 가며 남긴 갯골의 선이라 답하겠다. 세상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 문답하는 시간이 마음껏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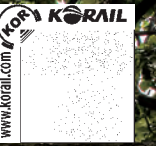
전망대 다음은 갯벌과 가까워지는 내리막 숲길이다. 갯벌, 해발 0미터. 인천항 간조와 만조의 해수면을 평균 내어 해발고도 기준 점을 정했기에 이 갯벌을 해발 0미터라 치고 가까이 가 들여다본다. 무수한 구멍을 게가 드나든다. 네가 사람보다 바쁘게 사는구나. 0미터의 삶이 경이롭다.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키우는 0미터 갯벌이 있어 1미터, 10미터, 1000미터의 삶이 존재한다. 이제 0미터에서 출발해 고도를 높인다. 길 잃을 염려해 접어 넣고 바다와 갯벌과 갈대밭과 숲이 번갈아 시를 쓰는 섬 풍경만 편안하게 누린다. 길을 따라 원점인 선착장에 돌아왔다. 육지로 태워다 주는 선장님은 마지막까지 친절하다. 40명도 안 되는 주민이 전부인 섬, 심성 나쁜 사람은 못 살 테니 아무렴 당연하겠다.

쓰레기 위에 피어난 공원, 드림파크

꽃씨 심은 데 꽃이 난다. 나무 씨앗 심은 데 나무가 자라 그늘을 드리운다. 심지어 쓰레기 위에서라도.

드림파크는 이름처럼 꿈의 공원이다. 1992년부터 9년간, 2600만

●● 세어도 선착장에서 가까운 역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다. 서울역 출발을 기준으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40여 분이 걸린다.





과거에 이곳이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드림파크는 아름답다.
꽃과 나무를 심은
사람의 노력에 자연은
이토록 상냥하게 응답해
주었다. 초록의
절정 속을 산책한다.





수도권 주민이 버린 쓰레기를 묻은 땅이 공원이 되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2000년 매립을 끝낸 제1매립장 409만 제곱미터(약 124만 평)에 나무를 심어 꿈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1000만 그루 심기. 쓰레기 6500만 톤을 40미터 높이로 묻은 땅에 가능한 얘기가 누구는 의심했으나 1000만 그루도 한 그루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연을 믿고 힘을 합쳐 심고 또 심었다. 그게 지금껏 550만 그루에 이른다. 참으로 너그럽게도, 인간의 노력을 받아들인 자연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주어 일부는 골프장으로 단장하고 일부는 야생화단지로 조성했다.

2004년 가을에 단지를 잠시 개방하자 반응이 뜨거웠다. 쓰레기 하면 연상되는 악취나 불결함이 전혀 없었다. 어느 공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오히려 내 발 밑에 쓰레기가 수십 미터 높이로 쌓여 있다는 사실에 웬지 몽클한 마음을 갖게 되는 장소다. 그저 휴식하기 위해 인간이 이용하는 공원을 넘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일상과 삶과 자연의 의미를 새기는 공원.

봄에서 가을까지 문을 여는 86만 제곱미터(약 26만 평) 규모의 야생화단지에는 꽃과 나무가 한창이다. 초록의 전성기 속을 산책한다. 각양각색 꽃은 어찌나 하나같이 예쁜지. 단풍나무, 자작나무, 직립느티나무 등 같은 종류 나무가 나란히 선 오솔길도 마음에 쏙 든다. 매 순간이 감탄의 연속이라 한 군데를 골라 드림파크의 하이 라이트라고 할 수가 없다. 넓은 지대에 한 가지 꽃을 심는 이벤트도 매년 진행하는데, 8월에는 황화코스모스가 일제히 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쓰레기 매립가스를 에너지화해서 이 많은 꽃과 나무를 키웠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냥저냥 살아갈 때 나무를 심고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고맙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얼마나 될까 싶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버려진 고철을 되살린 예술 작품도 공원과 잘 어울린다. 날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드림파크는 꿈과 감동, 반성의 공간이다. 무엇이 좋은 삶일까, 가끔 떠올리는 물음에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이라는 답을 얻고 나온다(문의 032-560-9940).

끝과 시작, 정서진과 아라자전거길

드림파크 바로 옆이 한강과 서해를 잇는 21킬로미터 거리의 아라자전거길이다. 한여름에도 자전거 끌고 천변을 달리는 사람이 줄줄이 지나간다. 자전거 대여소와 휴게 시설 등이 마련된 시



**쓰레기 위에 피어난
꽃과 나무가, 스스로
물기 머금어 생겨난
습지가 희망을 전한다.
찬란한 아름다움에
둘러싸인다. 매 순간이
최고의 장면이다.**



천가람터는 검암역에서 진입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도 편리하다. 여기서 정서진이 약 8킬로미터. 서울 광화문을 기준 삼아 동쪽이 정동진, 서쪽이 정서진이다. 서해와 섬, 영종대교 풍경이 일품인 정서진은 노을 명소, 야경 명소이기도 하다. 두 발로 페달 밟아 마침내 바다에 다다라 바라보는 노을이 잊지 못할 기억이 된다. 인천과 부산 사이 총길이 633킬로미터의 국토종주자전거길 출발점과 도착점도 이곳 정서진이다. 끝과 시작이 함께한다. 땅의 끝, 바다의 시작. 길의 끝, 다시 길의 시작.

시가 되는 여행, 희망이 차오르는 여행

섬을 둘러 걷는 일은 몸으로 시를 쓰는 일 같다. 시간을 들여 책을 읽듯, 사람과 대화하며 알아가듯 두 발로 섬의 모든 길을 밟는 동안 과거에 무심히 스치고 지나친 섬이 선명한 의미로 남았

다. 드넓은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는 지구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의 노력을 자연이 너그러이 받아들일 때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지 목격했다. 공원 안 습지는 사람이 일부러 땅 파고 물을 퍼 담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더욱 감동이다. 사람이 손 내밀면 자연은 몇 배의 보답을 쥐여 준다. 쓰레기 위에 피어난 꽃과 나무가, 스스로 물 먹은 습지가 희망을 전한다. 자전거를 타고 바다로 향하면서는 바다를 만나는 가장 낭만적인 방법이 자전거라고 생각했다. 길 끝에 바다가 기다린다는 말은 설렘의 다른 말이었다. 인천 서구의 새 발견. 거기에 여행이, 보물이 있다. ☑



역동적인 예술 도시, 광주

9월에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광주의 예술을 여행했다.

글. 김규보 사진. 박정우

바
규보

사적도서관



QR코드를 스캔하면
광주의 예술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거상들이 살던 양림동은 1900년대 초 외국 선교사가 이주하면서 거상이 후원하는 예술 문화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다. 예술가가 활동하고 기독교계 병원과 대학이 잇달아 설립돼 북적이던 마을은 도시 개발 속에서 비켜난 1980년대 들어 조금씩 쇠락했다. 사람이 드물어진 낡은 골목이 되었으나 마을의 가치는 그대로였다. 시인 김현승, 화가 배동신, 음악가 정율성을 배출한 거리엔 고택과 선교사 사택 등 근대의 흔적이 여전했다. 2010년 이를 지키기로 결심한 광주는 거리와 인프라를 정비했다. 이어 이한호 주식컴퍼니 대표를 비롯한 문화 기획자와 예술인이 속속 터를 잡아 양림동만의 분위기를 재건했다. 현재 한희원미술관, 이강하미술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레지던스, 10년후언더그라운드 등 스물다섯 곳의 미술관과 문화 공간이 작은 마을을 예술로 채운다. 양림동은 근대와 오늘이 조화하는 광주의 미래가 되었다.

아름드리나무 그늘로 들어간다. 목적지가 멀지 않지만 반듯한 거리를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 땀을 식히며 카페와 미술관이 띄엄띄엄한 길을 눈에 담는다. 자그마한 접시꽃 정원 옆에서 넝쿨이 담벼락에 몸을 기댔고, 멀리서는 우체통과 벽화가 예쁜 포장지처럼 길을 감쌌다. 늘어선 한옥 사이로 하얗고 빨간 벽돌 건물이 작품인 듯 고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같은 양림동 거리 아름다리나무 그늘에서 인사를 건넌다. 반가워, 예술 도시 광주.

올여름 광주를 거닐기로 했다. 2년마다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여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의 촉감이 궁금해서다. 전 세계 작가들이 모여들고 곳곳을 미디어아트로 장식하는 도시는 어떤 느낌일까. 광주의 예술 여행 동선 가운데 하나를 골랐다. 양림동을 기점으로 스페이스 5G네, 전일빌딩 245를 잇는 여정은 이렇게 시작부터 예술이다. 그늘에서 나와 다시 그림 같은 양림동 거리를 걷는다.

마이스 포스트 인센티브 투어 최적의 도시 광주

광주에는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 박람회 같은 마이스 행사 후 비즈니스 방문객이 들르기 좋은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양림동과 남도 관광센터 등 여행 자원을 기반으로 예술과 여행을 접목한 마이스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의 062-611-3622

광주 미디어아트 명소, 이이남스튜디오

며칠간의 아트 투어도 가능할 양림동의 예술 공간 중 이이남스튜디오를 선택했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이 작업하고 작품을 전시하면서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양림동의 새로운 명소다. 1층 카페에 앉아 이이남의 작품을 감상한다. 나비가 날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미디어아트가 여기저기에서 반짝인다. 걸어오느라 가빠진 숨결을 벽을 뚫고 나온



자연이 온화하게 가다듬는다. 시선 닿는 대부분이 작품이어서 예술로 우거진 숲속에 들어온 기분이다. 너 나없이 편한 자세로 음료를 마시며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들. “누구나 미디어아트를 즐기는 동시에 관람객이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공간이에요.” 배효경 사무장의 설명을 듣는 동안 양림동을 만들어 가는 관람객들을 바라본다. 이런 지금을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근사한지.

카페 한편은 미디어아트 뮤지엄으로 연결된다. 뮤지엄에선 어둡고 밝은 전시장을 밝고 어스름하게 뒤덮는 미디어아트 8점을 만난다. ‘생명의 경계’ ‘생명의 터널’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다’ ‘기온생동’을 거쳐 ‘공존의 빛’에 이른다. 태어나 살고 죽는 서사가 빛의 점멸을 따라 마음에 내려앉는다. 몇 걸음 옮기는 사이에 미디어아트가 빛은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뮤지엄을 빠져나와 스튜디오 옥상으로 올라간다. 무등산이 보이고 양림동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그늘에서 휴식한다. 담벼락 넝쿨을 구경한다. 미술관을 두리번거린다. 우린 함께 양림동의 이야기를 듣는다.



지난해 11월에 개관한 이이남스튜디오는 이이남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와 미디어아트 뮤지엄, 카페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문의 062-655-5030



콘텐츠의 보고,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가 광주 예술 여행의 마지막 장소다. 상업과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지상 10층 빌딩은 광주의 랜드마크로 유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피신처가 되었고, 바깥에서 수백 발의 총탄을 맞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전일빌딩245는 오늘날 광주만의 콘텐츠를 탄생시키는 터전으로 다시금 유명해졌다. 광주·전남 관광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2층 광주관광재단 남도관광센터와 9~10층 5·18 기념공간을 둘러보고 5~7층 광주콘텐츠허브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남도관광센터에서는 마이스 행사 후 비즈니스 방문객이 들러 광주 여행 코스 정보를 얻는데도 좋다. 건물에 예술과 문화가 가득하다. 1층으로 돌아왔다. 견학 온 직장인들이 해설사의 말을 경청한다. 곧 남도관광센터부터 5·18기념공간까지, 우리가 거친 길을 걸을 것이다. 저들 중 몇몇이 거쳤을 양림동과 스페이스 5G네를 우리가 걸었듯이. 예술 도시 광주가 두뼉두뼉 견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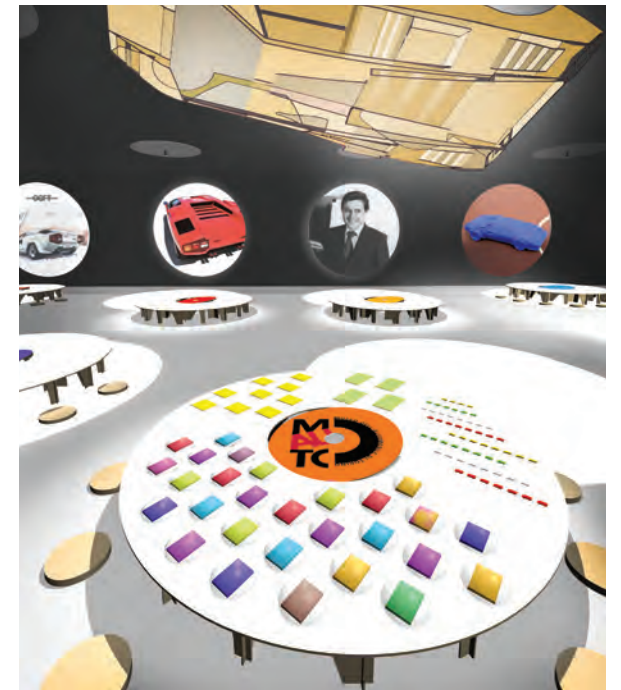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까지 1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도시가 예시하는 내일의 예술, 스페이스 5G네

광주는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는 데에서 나아가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지난해 문을 연 빛고를 시민문화관 1층 스페이스 5G네에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5G 기술을 기반으로 미디어아트를 실감 나게 만끽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의 방법과 노하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도시가 또 하나의 예술을 예시하는 것이다. 스페이스 5G로 진입하자 강렬한 이미지가 시야를 메

운다. 광주·전남의 명소와 미디어아트 작품을 5면 큐브 체험관에서 살피는 네모네모 체험관이다. 큐브 안에 선다. 앞과 옆, 위와 아래로 보이는 모든 게 영상이다. 화면은 쉴 틈 없이 변화한다. 무등산이 나올 땐 산을 오르는 듯하고, 양림동이 등장할 때는 직접 거리를 누비는 것 같다. 몽환적인 우주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몸이 빨려 들어가 동등 떠다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는데 감상은 입체적이면서 압도적으로 다가온다. 스페이스 5G네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이뿐 아니다. 360도 라이브 공연 영상을 선보이는 움직이는 공연장은 실제 콘서트장의 현장감을 그대로 옮겼다. 이이남을 포함한 지역 작가의 작품은 물론이고 방문객이 만든 작품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앉아보는 미술관, 태블릿에 그림을 그린 뒤 외부 복도 디지털 액자에 전시하는 내가 그린 거북이, 초대형 터치스크린에서 원하는 작가의 작업을 만나 보는 반짝반짝 유미씨 모두 예술 작품. 가볍게 즐기기도, 예술의 내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좋은 광주의 이색 여행지다.





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 흐름을 소개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로 거듭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9회를 맞은 올해의 주제는 'd-Revolution(디-레볼루션)'으로, 디자인의 d와 혁명을 뜻하는 레볼루션을 합성한 것이다. 산업 개발에 의한 혁명이 아닌, 디자인을 통한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디자이너와 일반인, 해외 디자이너의 협업에 방점을 둔 행사는 여러 나라의 디자인 작품을 초청하는 한편, 인공지능 차량의 지능화 기술을 소개하고 관람객에게 인터랙티브 경험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모색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국제포스터 초대전>을 특별전 형식으로 연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문의 062-611-5130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파트별 구성

장소	내용
1관 주제관	d-Revolution_그 너머 [Zone 1] FROM COLOR TO ETERNITY [Zone 2] 혁명, 다시 듣다 [Zone 3] 5월의 향기로 피어난 혁명의 빛 [Zone 4] 고요함 속에 움직임-비일상 [Zone 5] 생명을 그리는 그림자 [Zone 6] 생명을 품은 빛 [Zone 7] 5가지 혁명을 위한 빛나는 생각들
2관 국제관	DUB Revolution_덤 레볼루션 [Zone 1] DUB STAGE: Intro-DUB Revolution [Zone 2] DUB FLOOR: International DUB Revolution [Zone 3] DUB RECORD: Arrivederci(또 봐요, C U later)
3관 시관	d-Revolution for Day_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상의 혁명-DNA X [Intro] DNA x concept [Zone 1] DNA x 天 [Zone 2] DNA x 地 [Zone 3] DNA x 人
4관 체험관	d-Revolution for Evolution_진화가 되는 혁명 [Zone 1] New Normal Sapiens 일상 [Zone 2] Phono Sapiens 공존 [Zone 3] Homo Sapiens 노력 [Zone 4] Homo Sapiens Sapiens 가치
5관 지역산업관	d-Revolution for Gwangju_디자인을 통한 광주의 혁명 [Zone 1] 광주 지역 대표 비즈니스 [Zone 2] 광주 첨단기술융합 문화산업 [Zone 3] 광주 뷰티&패션 비즈니스

같이 숲길 걸을까?

뜨거운 여름 햇볕을 피해 걷는다.
같은 수종을 꼭 심은
이색 숲길에서 힐링하자.

글. 표다정

경기도 가평_ 경기도잣향기푸른숲



고소한 잣 향기가 폴폴 풍길 듯한 경기도잣향기푸른숲은 들어가기 전에 지도로 탐방로 코스를 살펴보는 게 좋다. 잣향기길, 피톤치드길 같은 길 말고도 명상 공간, 출렁다리, 잣향기 유아 숲 체험원 등 둘러보야 할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잣나무 숲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해설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언택트) 관광지 100선' 중 하나다. 문의 031-8008-6769

제주도 제주_ 안돌오름 편백숲길



이 숲의 또 다른 이름은 '비밀의 숲'. 혼자만 알고 싶을 만큼 예쁜 길이다. 가만히 서서 미소만 지어도 인생 사진이 된다. 편백이 일렬로 늘어선 길을 지나면 목초지를 둘러싼 편백 숲이 나오는데 포근한 분위기에 걸음이 느려진다. 편백 숲 속에는 민트색 트레일러를 개조한 카페와 돌담과 돌집도 자리한다. 안돌오름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계속 보고픈 풍경이다. 문의 0507-1349-0526

전남 장성_ 백양사 비자나무숲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백양사에는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된 비자나무숲이 있다. 백양사 비자나무숲은 고려 시대 각진국사가 당시 구충제로 사용되던 비자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심은 게 기원이라고 전한다. 숲길은 경사가 가파른 편이지만, 가는 잎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모습에 절로 힘이 난다. 비자 열매가 맺히는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온 산이 상큼한 향으로 뒤덮인다. 문의 061-392-7502

경북 영양_ 죽파리 자작나무숲



산림청이 꼽은 '국유림 명품숲'에 이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1933년에 조성한 죽파리 자작나무숲은 면적이 30만 6000제곱미터(약 9만 3000평)에 달한다. 높이 20미터의 자작나무가 빼곡한 3.2킬로미터의 숲길에서는 휴대전화도, 대화도 필요없다. 흰 눈처럼 깨끗한 나무껍질에 시선을 빼앗긴다. "청량하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문의 054-680-6410



**“6,000만원대 회원권으로
누리는 골프, 리조트, 호텔 멤버십 하나로!”**

8월 31일, 업그레이드 마지막 기회!

소노호텔앤리조트 (구.대명리조트) 독보적 혜택의 프리미엄 회원권 출시!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대명리조트)가 VIP고객을 겨냥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골프 특화 혜택으로는 18홀 코스로 구성된 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C.C, 델피노C.C를 주중 무료, 주말 5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만여 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 명의의 임직원 복지 목적으로 분양시 부가세 환급 및 손비 처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전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7월 소노벨 천안이 이스타타워를 증축하여 성황리에 오픈하였고,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번에 리뉴얼 출시한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이 더 특별한 3가지

- 100%** 반환형 상품 (20년 만기형 멤버십)
- 20년** 상시혜택 (이그제큐티브 클럽)
- GOLF** 주중 무료 (골프특화 선택시 [4년])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 열차 내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010-4140-6540

문의전화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02)2222-5917**





출처: 광주문화관광 홈페이지

지금 뉴트로 광주의 명소를 방문하고 '페이백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2인 챌린지 성공 시 최대 4만 원 페이백

광주의 숨은 명소를 여행하세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동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시장, 남광주시장 중
최소 두 곳을 방문하고 인증하면 1인당 여행 지원금 1만 원을 드립니다!

- * '페이백 챌린지'는 한국관광공사와 광주광역시의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 * 인증 시 수집한 개인 정보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 인증 시 개인 정보와 영수증, 방문 증빙 사진을 모두 제출해야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 * 최소 방문 관광지 2개소, 식사 1식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ORAIL/SR 공식 협력사 (주)마실에서 광주 여행을 운영 및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노조건물 1층 '기차여행센터'



홀리데이 인 광주

조명의 거장 알랭 길로(Alain Guilhot)가 외관 조명을 디자인한 호텔로 럭셔리 스파와 수영장이 유명하다.



A.C.C 디자인 호텔

핫플 금남로에 위치하며 11층 '텐원' 라운지 바가 20-30대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하다.

핫한 올리데이 인 광주 /
A.C.C 디자인 호텔 택일

광주 대표 호텔 1박 포함

2인 KTX+렌터카
~~정상가 277,600원~~
198,000원~

여행 문의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masilhub.com/KTXMAGAZINE
카카오톡 채널 상담: KTX매거진 로컬여행센터 | 문의: 1899-2550



광주광역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과 함께합니다.

운영미 아나운서의 화천 예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여행하는 운영미 아나운서와 강원도 화천을 다녀왔다.

글: 윤다정 사진: 신규철

“해외보다 국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강원도 화천은 정말 근사하죠(여기서 엄지를 치켜들었다). 10년 넘게 화천산천어축제 MC를 맡았어요. 겨울에는 쌓인 화천도 아름답지만 녹음이 짙은 이 계절의 화천은 찬연합니다.” 화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운영미 아나운서의 화천 예찬이 이어진다. 로컬 맛집,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 추천 여행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이 막힘없다. 화천을 흰히 꿰뚫고 있는 그는 유튜브 채널에 올릴 맛집 소개 영상 촬영차 두 달 전에도 화천에 다녀왔다고.

취재 전날까지 부산에서 일정을 보내다 온 그는 새로운 것, 재미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한다. 다채롭게 보고 느껴야 나만의 여행 포인트가 생긴다는 팁도 전한다. “저는 오래된 건축물을 감상하거나 한적한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여행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풍경만 봐도 화천임을 안다는 그의 시선이 북한강에 닿는다. “화천에 다 왔네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다는 다짐

북한강을 따라 화천으로 들어섰다. 차창 밖에 잔물결을 이루는 북한강과 푸른 산을 앞에 두고 차량의 속도가 느려진다. 앞차도, 따라오는 뒤차도 느긋하다. 섭씨 30도를 육박하는 더위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풍경이다. 첫 여행지인 거례리 수목공원은 둘러 산책하기 적당한 규모에 메타세쿼이아길, 파크골프장, 분수, 자전거길 등을 알차게 꾸며 화천군민에게겐 쉼터 같은 공간이다. 본래 이곳은 논이었다. 그 중심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논일을 마친 농부에게 그늘을 내어 주던 존재다. 봄에 새잎으로 몸집을 부풀리다 가을이면 발갛게 물드는 나무를 보러 알음알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연인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해서일까. 누가 명명하지 않았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 ‘거례리 사랑나무’라고 불린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 수령 400년이 넘는 나무가 사랑을 만나 의미가 깊어졌다. 그 덕분에 셀프 웨딩 사진이나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여행객의 발길도 늘어났고,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 ‘귀를 기울이면’ 뮤직비디오 배경이 되기도 했다.

붉은 셀비어, 개맨드라미가 거례리 사랑나무 앞에서 자태를 뽐낸다. 곧 해바라기가 가득해진다니 그 모습도 궁금하다. 나무를

••
 화천에서 가까운 역은 춘천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ITX-청춘을 타고 춘천역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



반지 조형물을 올린 칠석교(반지교)는 북한강으로 나뉜 하남면을 잇는다. 다리에 올라서면 거례리 수목공원이 한눈에 담긴다.





“여행을 기록하는 법이요? 순간의 감정이나 느낀 점을
메모해요. 우린 생각보다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SNS에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도 같아요.
오늘을 기억하려는 거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의 댐을 바라본다.
아찔한 125미터 높이의 스카이워크는
짜릿함을 선사한다. 문의 033-440-2575

한 바퀴 돌며 거례리 사랑나무를 카메라에 담는 운영미 아나운서 너머로 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거례리 사랑나무 이름에 맞춰 반지 조형물을 올린 칠석교다. 북한강으로 나뉜 하남면을 잇는 다리로, 자전거와 사람만 지날 수 있다. 칠석교에 올라서면 거례리 수목공원이 한눈에 담긴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가 여럿이다. 북한강 봉어섬 인근의 산소100리길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거례리 수목공원과 북한강 일대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바람과 강에 깃든 평화의 숨결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굽이가 얼마나 많은지 차 안에서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 이 정도면 도로가 산을 휘감은 게 아닐까 싶다. 굽은 도로와 터널을 지나자 시야가 탁 트인다. 지금 달리는 도로는 평화의 댐 위에 있다. 높이 125미터의 평화의 댐 앞뒤로 높고 굽은 산세가 웅장하다.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댐으로 걸어간다. 평화의 댐은 1987년에 기공해 3단계로 나눈 보강 공사와 증축을 거쳐 2006년에 완공했다. 주변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먼저 125미터 높이의 스카이워크는 짜릿함을 선사한다. 스카이워크 투명한 바닥을 밟고 올라선 운영미 아나운서의 표정이 화천의 풍경처럼 맑다. “기자님도 오세요”라는 부름에 “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스카이워크 난간에 기대 풍경을 눈에 담는 그를 바라만 볼 뿐 정말 아찔해서 걸음을 떼기 힘들다.

평화의 댐 상부와 하부를 잇는 데크 길을 따라 내려간다. 한 계단씩 걷다 보면 평화의 댐 얼굴인 ‘통일로 나가는 문’이 보인다. 음영과 원근법을 통해 그림을 실감나게 표현한 트릭 아트로 높이 93.5미터, 폭 60미터에 달한다. ‘통일로 나가는 문’은 정면에서 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댐 한가운데 구멍을 뚫은 듯한 리얼함에 “우아” 소리가 절로 나온다. 평화의 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국제평화아트파크가 자리한다. 탱크, 전투기, 대북 확성기로 평화를 표현한 설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냉전과 대립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로 영어 단어 PEACE(평화)를 표현한 ‘평화의 합성’, 놀이기구에 둘러싸인 탱크 작품 ‘놀이터’ 등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 각국에서 보낸 탄피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에서 찾은 탄피로 제작한 세계평화의 종, 평화의 댐 건설 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는 평화의 댐 물문화관도 근방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화천의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로 영어 단어 PEACE(평화)를 표현한 '평화의 함성', 놀이기구에 둘러싸인 탱크 '놀이터' 등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행을 일상처럼

평화의 댐에서 화천 시내로 내려가는 길. 운영미 아나운서가 손을 뻗는다. “근처에 1945년에 세운 다리가 있어요. 석탄 타르를 칠해 색이 까매서 꺼떡다리라고 불러요. 한국전쟁 당시 포탄과 총알 흔적도 보이거든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건축물 감상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이 기억났다. “그럼요!”

교각 위를 운영미 아나운서와 걷는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여행을 놓치지 않는 그가 여행을 기록하는 방법이 궁금했다. “순간의 감정이나 긴 점을 메모해요. 우린 생각보다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SNS에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도 같아요. 오늘을 기억하려는 거죠.” 수많은 날 중 보통의 하루를, 그저 지나가는 하루로 보내기 아쉬워하면서도 우린 머물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탓에 여행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듯이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제약을 만들면 떠나지 못하는 구실만 늘어나요. 그 대신에 떠나야 할 이유와 보아야 할 것을 충분히 사유하고, 여행 기사도 찾아 읽으며 여행을 준비하세요. 메모장에 가고 싶은 곳을 적어 보고요. 가장 먼저 화천은 어떨까요? 물론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요.” ✉

평화의 댐 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장이던 화천을 조형물과 영상으로 만난다. 북한강에 건설한 한국의 모든 댐도 미니어처로 만들어 전시한다. 문의 033-480-1512



화천의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



하트섬

화천은 물의 도시가 아니라 하트의 도시가 아닐까. 도시 곳곳에 하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파로호에 있는 하트섬은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가 떠오르는 사랑스러운 장소다.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느티나무 한 그루만 있던 섬을 화천에서 육지와 이었다. 공사 당시 상공에서 바라본 섬이 하트 모양

이라 하트섬이라 이름 붙였다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좋은 독길을 지나 하트섬으로 들어간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양옆에 소나무와 흔들의자가 그림처럼 서 있다. 이곳은 햇볕이 짙은 시간대보다 노을이 질 무렵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윤슬처럼 부드럽게 반짝이는 사랑이 깊어진다.

주소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481
문의 033-440-2575(화천군 관광안내소)



주소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53-2
문의 033-441-2501

화천힐링센터

지난 5월에 오픈한 셰프 양성 교육기관이다. 전문 셰프가 화천에서 나는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채소와 과일, 산나물을 이용해 한식, 양식, 일식, 제과·제빵 등을 가르친다. 셰프에게 레시피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셰프로써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재료 간 어울림, 식재료 손질법과 보관법 등 기본 지식도 폭넓게 배운다. 하반기에도 화천 공취로 채소 초밥 만들기, 화천 연꽃단지에서 탄 연꽃으로 전통주 담그기, 화천 내 명인 만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층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1층에서는 다른 셰프가 교육생에게 알려 줄 레시피 개발에 한창이다. 그 모습에 신뢰가 간다. 현재는 화천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기에도 화천 공취로 채소 초밥 만들기, 화천 연꽃단지에서 탄 연꽃으로 전통주 담그기, 화천 내 명인 만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층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1층에서는 다른 셰프가 교육생에게 알려 줄 레시피 개발에 한창이다. 그 모습에 신뢰가 간다. 현재는 화천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당신을 위한 바다 포항의 국가어항

나만의 아지트를 찾으러 경북 포항의 국가어항
양포항과 호미곶항에 다녀왔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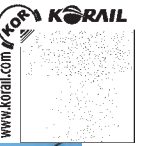
슬로
여행





**언제든 기대고 싶은 바다를
찾아 기차 여행에 나섰다.
차창 너머 풍경이 든든한
말동무가 되어 준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까지
2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여행의 설렘을 한 아름 안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해가 긴 계절이라 이른 오전에도 세상이 환하다.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기차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간다. 무더운 여름날의 여행이니 바닷가에 가 보기로 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해수욕을 즐겨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잔잔한 바다를 옆에 두고 사색하고 싶었다. 포항의 국가어항인 양포항과 호미곶항을 목적지로 정한 이유다.

서울역을 출발해 포항역으로 가는 KTX에 탑승했다.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해 본다. 최근 선물 받은 시집 한 권을 펼친다. 바다로 떠나는 여정이라 정호승 시인의 '바닷가에 대하여'라는 시가 눈에 들어온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누구나 바닷가 하나씩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닷가가 있는 게 좋다". 이번 여행에서 나만의 아

지트를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상 깊은 구절을 메모장에 옮겨 적는다. 그러고는 차창 밖 경치에 시선을 빼앗긴다. 햇살 머금은 드넓은 들판이 초록빛 생명력을 뽐낸다. 온 세상에 여름이 반짝이고 있다. 기차의 속도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풍경이 아쉬울 무렵, 포항역에 도착했다.

한낮의 여유로운 정취, 양포항

역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양포항에 내리자마자 갈매기 우는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한적한 포구에 방문한 여행자를 정답게 맞아 주는 듯하다. 캠핑하기 좋은 양포항 복합문화공원을 시작으로 삶의 정취가 배어든 포구를 천천히 산책한다. 문어와 아귀의 주산지 이면서 가자미, 청어, 방어 등 풍부한 어종을 품은 항구답게 선박 수십 척이 정박했다. 새벽마다 활발한



활어 경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정오에 가까운 시각, 텅 빈 위판장을 어슬렁거리던 고양이 한 마리가 이내 잠을 청한다. 분주한 오전 일과를 마무리한 포구에 한가로운 시간이 지나간다.

양포항 끝자락에 설치한 방파제 위를 걷는다. 양옆에 바다를 두고 나아가는 기분이 묘하다. 방파제와 연결된 요트 계류장에는 20여 척의 요트가 출항을 기다리는 중이다. 돛을 펼친 요트가 너른 바다를 가르는 상상을 해 본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온갖 근심을 실어 갈 것 같다. 항해의 꿈은 잠시 접어 두고, 방파제 산책을 이어 간다. 끄트머리에 다다르자 양포해상공원이 나온다. 해상 공연장인 이곳에선 때때로 연주회가 열린다. 그 앞에 낚시대가 늘어섰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낚시에 열중하는 모습을 조심스레 살펴본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도 여럿이다. "낚시대 확인해 봐!" 누군가 한 아이를 부른다. 공연장 계단 아

어부가 자리를 비운 한낮의 포구는
한없이 조용하다. 파도마저 잔잔한 바다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Yangpo

호미곶 해맞이 광장은 포항을 대표하는 일출 명소다. 화합을 의미하는 '상생의 손' 조각상은 바다엔 오른손을, 광장엔 왼손을 놓아 마주 보게 했다.
문의 054-282-1222

래 그늘에서 쉬던 아이가 뛰쳐나와 낚시줄을 당기고는 환호성을 내지른다. 성인 팔뚝만 한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한껏 신난 꼬마 낚시꾼이 주변에 행복한 기운을 전한다. 덩달아 기쁜 발걸음으로 방파제를 돌아 나왔다.

삶의 활력을 선사하는 호미곶항

호랑이 형상인 한반도 지형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호미곶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출 명소인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마지막 여정지로 짚해 두고, 바로 옆 호미곶항부터 둘러보기로 한다. 지난해 연말 대보항에서 호미곶항으로 명칭을 바꾼 이곳은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분 좋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이라 돌문어, 가자미, 오징어, 콩치, 전복 등 다양한 수산 자원의 터전이기도 하다.

2014년 이곳 방파제에 조성한 트릭 아트 벽화길은 포항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살아 움직이는 듯 실감나게 그린 문어, 돌고래, 상어 같은 벽화를 배경으로 재미있는 인증 사진을 남긴다. 그중 제일은 호미곶의 상징인 '상생의 손' 벽화다. 동해에 우뚝 솟은 '상생의 손' 조각상에 실제로 오르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늘을 향해 내보인 손바닥 위에 앉은 것처럼 촬영에 임한다. SNS에 올리고 싶은 멋진 사진을 얻었다.

벽화 구경을 마쳤다면 호미곶항과 바다를 찬찬히 눈에 담을 차례다. 방파제 말미에 위치한 빨간 등대에



Homyeomgi





기대 평화로운 호미곶항 전경을 바라본다. 한낮의 포구는 그저 조용하다. 물에 닿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다. 방파제를 벗어나 항구 안쪽으로 진입한다. 손때 묻은 어구가 여기저기 쌓여 있다. 생기 넘쳤을 오전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 본다. 천막 아래서 그물을 손질하는 몇몇 어부의 손길에서 경쾌한 리듬감이 느껴진다. 삶의 활력을 간직한 항구를 빠져나오는데 위판장에서선 소규모 경매가 시작되려는 참이다. 수산물을 나르는 어부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하다.

자기만의 바다, 그 안의 위안

호미곶항에서 바닷길을 따라 10분쯤 걸으면 호미곶해맞이 광장에 도착한다. 트릭 아트 벽화로 먼저 만난 '상생의 손' 실물이 코앞이다. 바다 가운데서 일렁



이는 물결에도 꿈쩍 않는 손을 바라본다.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조각상을 등지자 또 다른 '상생의 손'이 보인다. 오른손은 바다에, 왼손은 호미곶해맞이 광장에 마주 보고 선 형태다. 1999년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며 세운 이 조각상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가 찾아온다.

4만 8000제곱미터(약 1만 5000평) 규모의 호미곶해맞이 광장에는 지름 3.3미터, 깊이 1.2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가마솥과 <삼국유사> 속 설화를 표현한 연오랑세오녀상, 고래 모양을 본뜬 해오름 무대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광장 한 바퀴를 크게 돌아보는데 빨간 우체통이 눈에 띈다. 매년 12월에 엽서를 발송해주는 느린 우체통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훗날의 나에게 미리 연하장을 쓰기로 한다. 현재의 고민이 그뻐 별일 아니길 바란다는 위로가 푹 푹 눌러 담았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벤치에 앉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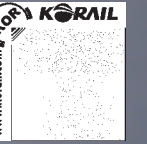
차에서 읽은 시를 되새긴다.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바닷가". 어디든 마음의 안정을 선물하는 곳이면 되지 않을까. 포항의 국가어항인 양포항과 호미곶항에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누렸다. 바다와 삶을 동시에 품은 항구에서 절반이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출발할 때보다 한결 사뭇한 발걸음으로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



포항 양포항과 호미곶항 1971년 국가어항으로 선정된 양포항과 호미곶항은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항구로 발돋움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길 91(양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길 292(호미곶항)

홈페이지 www.fipa.or.kr



보이지 않아도 산은 거기 있었다. 엄숙한 순례자의 행렬처럼 안개가 밀려왔다. 폭염이나 폭우를 예상했기에 안개는 의외였다. 완전히 감추지도, 드러내지도 않는 미묘한 풍경이 굴곡진 능선 어딘가로 흘러갔다. 섬인지 산중인지 가늠할 수 없었으나 불안하지 않았다. 흐릿하게 펼쳐진 대파밭, 포화 속을 헤치고 나오는 거인 같은 풍력발전기, 파도 소리만 울려 퍼지는 백짓장 해변, 절벽에서 수줍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원추리꽃. 안개는 풍경의 원본에 기교를 더해 신비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자은도 두봉산 산행의 대표 기점인 도명사에서 블랙야크 익스트림팁 손창건·김민선 씨가 배낭 허리끈을 제대로 조인다. 탄 세상으로의 입국인 양 산길은 초록

으로 무성하다. 잠깐 방심하여 시선을 놓으면 짙은 수풀에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다. 선두에 선 사람은 덩불과 수풀, 쓰러진 나무, 이슬, 거미줄 제거와 길 찾기까지 하느라 바쁘다.

두봉산(斗峰山) 이름엔 자은도의 전설이 담겨 있다. 자은도는 원래 바닷속에 잠긴 상태였는데, 한 말(斗)의 땅덩어리가 솟았고, 세월이 흘러 섬이 되고 두봉산이 되었다고 한다. 두봉산 정상 바위에는 이 전설을 뒷받침하는 조개껍데기가 붙어 있다. 지능선 위에 올라서자 정상부의 흰칠한 바위 능선이 모습을 드러낸다. 머릿속에서 ‘짜잔’ 하는 등장 효과음이 울리는 착각이 들 정도로 멋있는 암봉이다. 먼 섬까지 온 보람을 느끼며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길 바랐다.

바다를 유영하는 신안의 능선

소나무, 소사나무, 노간주나무, 생강나무, 싸리나무, 졸참나무가 숲을 이루며 경치를 앗아갔지만 숲 향 가득한 오르막이야말로 고향 집 고봉밥처럼 소중하다. 반갑게 숲을 치고 오르자 얼마안가 암릉길이다. 철제 난간으로 이은 바윗길, 난간이 없으면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좋았겠지만 등산객 사고가 잦아 안전에 세심히 신경 쓴 지자체의 노력이기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난간 덕분에 고도감을 여유롭게 즐기며 오른다. 발품에 비해 경치는 과할 정도로 화려하다. 섬이 1004개 있어 ‘천사섬’이란 별명을 가진 신안답게 거북이 떼인 듯 무수한 섬이 바다에 떠 있다. 바다로 옮겨 간 무

수한 능선은, 곧 바다를 유영하는 첩첩산중이다. 바윗길 한 구간 오르면 계산이라도 한 양 벼랑 끝 전망대가 나타나 숨 돌리고 경치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올해 이화여대 산악부 재학생에서 졸업생이 된 김민선 씨는 “바위 빛깔이 완전 예쁘다”라며 두봉산의 사소한 것도 신기해했다. 두봉산은 작지만 화려한 바위 날개를 갖고 있었다. 불꽃같이 뜨겁게 솟은 바위 지능선이 섬세하고 힘 있게 날개를 펼쳐 바다를 향해 뻗었다. 명당에 제대로 자리 잡은 도명사와 마을의 색색 지붕, 이국적인 흰색 바람개비(풍력발전기)도 각도를 바꿔 가며 황금 비율의 경치를 소화하고 있었다.

다시 짙은 숲에 들어 잠념을 떨쳐 내자 정상이다. 표



내 안의 안개 섬 자은도

안개가 삼킨 몽유도원도, 전남 신안 자은도 암릉을 산행했다.

글. 신준범 사진. 주민욱(이상 월간 <山> 기자) 진행. 김규보

* ‘건강 여행’은 월간 <山>과 제휴한 칼럼으로 ‘BAC 섬&산 100’ 시리즈를 재편집했습니다.



**희미하게 안개가 드리운 산은
몽롱한 한 폭의 동양화다.**

지석은 의외로 경치 좋은 바윗길을 지나 나무가 에워싼 좁은 숲에 있다.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빗방울이 흩날린다. 몸을 키운 구름은 짙싸게 바다를 숨기고 맞은편 능선도 반쯤 삼킨다. 배낭에 레인 커버를 씌우고 조심스레 산행 후반전에 나선다. 희미하게 안개가 드리운 산은 몽롱한 한 폭의 동양화였다. 이대로 풍경에 취해 걸으면 취생몽사할 듯싶었다. 안개에 숨겨진 낭떠러지, 허공을 닫지 않도록 주의해 걸으려 했으나 마음은 허공을 걷는 듯 들떠 올랐다.

전망바위라 할 만한 바위벼랑이 여럿 나타났다. 맑은 날이라면 등산객이 감탄하며 기념사진을 찍을 곳이지만 여백의 미 가득한 지금과 바꾸고 싶지 않았다. 벼랑 끝에 핀 노란 원추리가 몽유도원도 끝자락에 느낌표를 찍고 있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언제 마음 놓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날들이 안개 자욱한 예측할 수 없는 산길과 닮았다. 몽롱한 정신을 현실로 내동댕이친 건 마을 이장의 안내 방송이었다.

낮은 산이라 마이크 소리가 귀에 딱딱 꽂혔다.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가 울리더니 박자가 넘어갈 때쯤 “초복을 맞이하여 삼계탕용 닭을 마련하였으니 조합원들께서는 지금 오셔서 닭을 받아 가시라”라는 내용이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땀에 전 일행은 너나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도시에서 만나기 어려운 후덕한 시골 인심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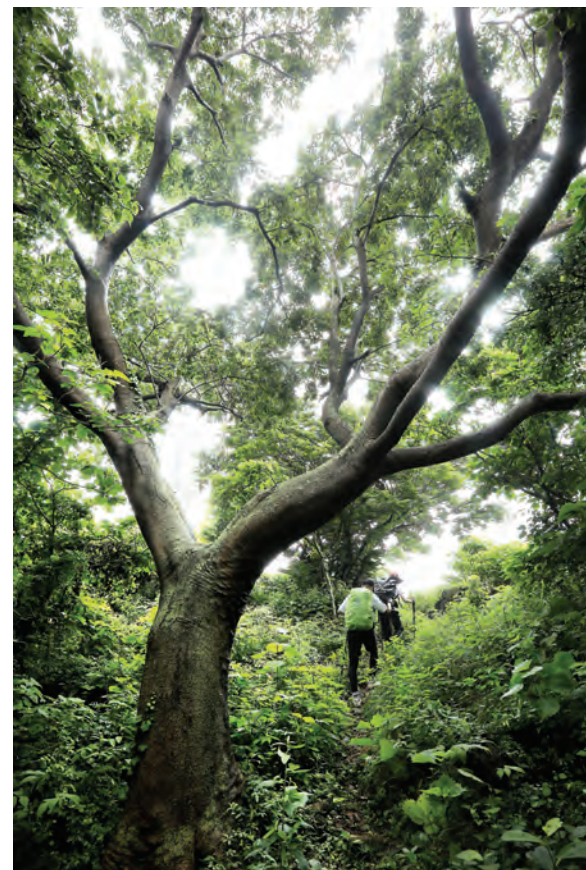
하산 가능한 안부사거리 대울재에서 곧장 직진하자 두봉산의 다른 모습이 다가왔다. 밀림이란 표현이 딱 맞는 짙은 녁쿨 숲이었다. 정상이 골산이라면, 성제봉은 육산이었다. 초록 잎 뺨뺨한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거친 면모가 방심한 이의 옆구리를 훑치고 들었다. 해발 225미터 성제봉의 높이만 보고 만만히 여겼다고 후회할 법한 급경사가 쉴 틈 없이 들이닥쳤다. 강수는 정수로 받는 법, 같은 속도로 꾸준히 걸어 내자 먼저 온 일행이 널브러져 있는 정상 정자가 나왔다.

따뜻하게 위로하는 너그러운 섬

능선을 타고 내려서는 길, 날씨가 개고 있었다. 지도 상에 작은 봉우리들이 보여 열린 경치를 기대했으나 김칫국이었다. 초반엔 길이 나쁘지 않았지만 덩불이 도사리는 정글로 변해 잘못 온 건 아닌지 확인차 지도와 GPS를 꺼내게 만들었다. 송신탑이 있는 봉우리에서 쫓기듯 내려서자 자은초등학교 입구 구영저수지였다. 장난기 있어 보이는 하교하는 남매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으나, 코로나 시대에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신안에서 가까운 기차역은 목포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친절한 자은면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도명사로 돌아와 차를 타고 해변으로 나갔다. 허가받은 해수욕장만 아홉 곳, 미등록 해변까지 스무 곳의 해변을 품은 자은도의 바닷가를 보고 싶었다. 자은이라는 이름처럼 예쁜 해변을 걸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 두서춘이 반역자로 몰려 겨우 목숨을 부지해 이곳으로 도망왔을 때, 사람들이 인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하여 자은(慈恩, 너그러운 마음)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안개 짙은 해변에 파도가 끝없이 밀려들었다. 등산화 끈을 풀어헤쳐 맨발로 걸었다. 온통 안개 속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으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생계의 위협 같은 불안한 시간 속에 움츠러들었던 사내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우여곡절 많았던 할매 육자배기같이 따뜻하게 몸을 휘감고, 모래의 부드러운 촉감이 열을 식혀 주었다. 살다가 도망치고 싶을 때, 자은의 안개가 생각날 것 같았다. ☒



주안DH비즈타워 1차 조감도



또 한 번의 상전벽해 인천J밸리

50년 세월 속에 노후한 인천 주안 국가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 '주안DH비즈타워'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 일대가 1960년대에 공업지구로 지정되고 1967년 기공식이 열린다.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주안 국가산업단지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 과거 어느 날에 가장 젊고 역동적이던 산업단지는 세월과 함께 노후화했다. 거대한 산단을 그대로 둔 채 추억만 곱씹을 수 없는 법. 새 술을 담기 위한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였다. 이곳에 2018년 7월 (주)준서예건이 첫걸음을 디뎠다. 그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주안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주안DH비즈타워

건축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건물을 올려 사람이 살고 일하고 휴식하고, 길을 놓아 사람과 물건과 소식이 오간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활동하지만 인천이 주요 기반이라 이 도시를 잘 알고 책임감과 애정을 가진 회사는 수익성보다 당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아무도 선뜻 시도하지 않는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인천J(제이)밸리'라 이름을 바꾼 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다. 마침내 2020년 2월 주안DH비즈타워가 모습을 드러냈다. 1980년대 후반 건축업에 뛰어들어 1998년 법인을 설립한 (주)준서예건의 30여년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역작이다.

지하 1층에 지상 15층, 175실 규모의 주안DH비즈타워는 제조형 공장, 지식산업 기반형 사무실은 물론 기숙사와 상가를 갖춘 원스톱 단지로 설계했다. 입주사의 필요와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했음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층고가 최대 6미터에 이르러 다양한 업종이 입점 가능하고, 각 호실에는 2.5~5톤 차량이 도어 투 도어로 진입하도록 해 물류 입출고와 운반에 최적화했다. 차량이 오르내리는 램프는 그 자체가 아





주안DH비스타워 2차 조감도

래층의 지붕 역할을 해서 눈이나 비가 와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전동 리프트 하역 시스템 설치의 기본이다. 지하 1층 하면 연상되는 답답함도 걱정 없다. 성큰가든이 있어 채광과 환기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8층부터 12층까지는 스마트 업종 사무실에 적합하다. 제조 공장과 사무 공간을 분리해 입주자는 소음이 없다고 만족스러워한다. 13층에서 15층은 기숙사로 지었다. 복층형 다락 구조라 안락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계단 아래쪽을 수납장으로 쓰는 등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것이 장점이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기본 비치한 방은 인천J밸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너른 유리창 덕분에 더욱 넓어 보인다. 여기에 8층, 9층, 옥상의 테라스와 정원이 바쁜 일상에 휴식을 선사한다. 원스톱 단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1층과 2층 도로 면에는 상가 공간을 마련했다. 2층 외부에 상가로는 진입 계단과 널찍한 테라스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법정 대비 240퍼센트에 달하는 주차공간 또한 사업·영업상 근심을 덜어 준다.

준공 후 불과 1년도 안 되었지만 어느새 입점사가 건물을 착착 채우고 사람이, 특히 청년이 바빠 왕래하며 1층엔 편의점과 카페가 문을 열었다. 주안DH비스타워가 들어서기 전 주안 국가산업단지에서는 흔치 않은, 아니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풍경이다.

세심한 설계와 시공에 좋은 입지

과거 국가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이니만큼 교통은 사통팔달이다. 경인고속도로 가좌나 들목이 직선거리로 1.2킬로미터고 인천 북항, 인천국제공항도 가까우며 전철 주안국가산단역에서 걸어서 5분 이내 거리라 물류 이동과 출퇴근 모두에 유리하다. 인근에 유관 기관과 기업이 밀집해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다. 좋은 입지에 좋은 건물.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주안DH비스타워는 이제 '주안DH비스타워 1차'가 되었다. 바로 옆에 비스타워 2차가 건축을 시작한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임한 건물답게 대지 일부를 할애해 길을 내도록 했다. 과거의 영광이 바래가던 주안 국가산업단지, 인천J밸리는 변신 중이다. (주)준서예건이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있다.

(주)준서예건

1980년대 후반 건설업에 뛰어들어 송문성 대표가 1998년 법인을 설립하고 2000년에 (주)준서예건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민간 주택과 상업 시설부터 공장, 상점사 본사, 학교, 관공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는 평가 속에 종합 건설회사로 착실히 성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체크인카운터 리모델링,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인천 신항 진입 도로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맡아 역량을 보여 줬다. 지난해에는 인천J밸리(주안 국가산업단지)에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노후한 산단에 새바람을 불려일으키고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 2차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수많은 감사패와 표창장이 (주)준서예건이 쌓아온 신뢰와 능력을 대변한다. www.준서예건.com

송문성 대표 미니 인터뷰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회사 이름이 독특해요. 건축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어떤 건물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행복하게 해 주고 싶었어요. 실용적이고 튼튼한 건물은 물론, 건물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냥 건축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은 건축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예건'이라 지었습니다. 앞의 '준서'는 두 아이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습니다. 이 건물은 아빠 작품이라고 자식에게 당당히 자랑할 만한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지극껏 지켜 왔습니다.

그야말로 맨땅에서 출발하셨음에도 30년간 꾸준히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본을 충실히 하자고 날마다 다짐해요. 자재만 해도 가격대가 다양하죠. 거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는 알아요. 친환경 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비싼 친환경 페인트를 썼고, 채광이나 환기를 고려해서 내부를 최대한 쾌적하게 설계했어요. 회사 운영 초반부터 공장을 많이 지었거든요. 사람이 일하고 휴식하는 공간이잖아요. 단순히 '공장처럼' 짓지 않고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고민하다 색을 넣어 봤어요. 특정 시설을 세로로 놓느냐 가로로 놓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끝에 탄생한 공간을 고객과 사용자가 만족스러워할 때 정말 보람 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지난 30여 년간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가 기억에 생생해요. 그중 인천국제공항 체크인카운터를 언급하고 싶어요. 국제적 시설의 리모델링이고, 24시간 내내 이용객이 오가는 환경이라 조심스러웠어요. 체크인카운터

는 한국과 그 항공사의 얼굴이니까요. 11개월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건설업도 진심을 다하면 진심을 알아줍니다. 이번 지식산업센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나 되어 쇠락해 가는 산업단지에 누가 들어갈까 했거든요. 변화가 필요한 곳이었고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소명 의식만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듯 주안DH비스타워가 노후한 산단이 도약하는 기점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뿌듯한 결과가 나왔고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시죠. 어려서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교육이 사회의 뿌리니까요. 실제 학교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업이고, 기부는 제 꿈을 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제 삶을 살면서 더 나은 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런 생각에서 일터 또한 상식에 맞게 운영하려 합니다. 직원은 각종 경조사비, 해외여행, 학자금 등을 지원해 복지에 힘쓰고, 하도급 업체도 협력 업체라 부르며 공사 대금을 100퍼센트 현금 지급하죠. 현장에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 공사 품질과 안전 문제를 매 순간 최우선으로 다루고요. '정직하게 하면 내가 알고 우리 직원이 알고 고객과 사용자가 안다. 결국 내게 돌아온다.' 힘든 순간이 많았어도 이 말을 새기고 열심히 바쁘게 달려 왔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고요. 그나저나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굴포천이 산책하고 자전거 타기 참 좋거든요. 앞으로는 그곳을 즐길 여유 정도는 갖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Buddhist Gong Inscription of
"Heungdeoksa Temple"
Goryeo Dynasty, diameter of 45.9 cm

Buddhist Gong

In Buddhist temples, bronze gongs known as "geumgo" or "geumgu" in the Korean language are struck to declare offerings or to gather people. Similar in shape to the Korean instrument *jing*, a gong produces a sound when struck on the front part. One such gong was unearth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residential site in Uncheon-dong, Cheongju-si,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front left portion was found in 1985, followed by the main body in the following year.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roken up by one of the construction machines. This gong revealed important information that would not have been known otherwise. Inscribed on the side is the phrase "created in Heungdeoksa Temple of Seowon-bu Prefecture in May of the Gabin year (1554)." Seowon-bu Prefecture is today's Cheongju, and Heungdeoksa Temple is where the world's oldest moveable metal print book titled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was printed. In other words, the location of Heungdeoksa Temple became known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gong. Today, the gong is on display at Cheongju National Museum, but *Jikji Simche Yojeol*, printed in 1377, is kept at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May there come a day when both the gong and anthology can be admired at the same place and time. 

Goryeo Culture Hall, Cheongju National Museum
For inquiries, contact 043-229-6300

culture

150
사유하는 예술, 이진용

158
문제는 성별이 아니야! 젠더 벤딩 캐스팅

162
1945년 히로시마와 사진가 김효연



필름 사진. 이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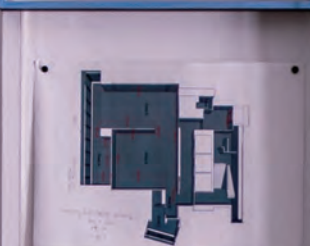
이진용 작가와 그의 스튜디오

작가의 방

너와 나의 예술, 이건용

보지 않고 그렸고, 달팽이 걸음으로 나아갔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이건용의 예술은
모두가 할 수 없는 소통을 시대에 새겼다.

글. 김규보 사진. 이규열



QR코드를 스캔하면
이건용 작가의
LeeKY 스튜디오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 드로잉 76-2’, 1970년대 후반 퍼포먼스 기록 사진. 갤러리현대 제공

작가는 작품에 개입하지 않고 몸을 휘둘러 그린다. 작품은 작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완성한다. 작가와 작품의 그 궤적에서 이견용의 소통이 시작된다.

이견용이 붓에 물감을 찍는다. 그린다는 행위에 앞서 누구나 하게 마련인 준비 동작이다. 특별하다 할 순 없는 움직임에서, 다만 한 가지가 머릿속을 건드린다. 작가가 캔버스 앞이 아닌 뒤에 있는 것이다. 준비를 끝내면 캔버스를 자기 쪽으로 돌리거나 직접 앞으로 이동하겠지? 그러야 할 테니. 작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캔버스 뒤에서 튀어나온 붓이 화면에 들어와 선을 내리긋는다. 검은색에 하얀색이 덧입혀지고, 그 위에 노란색이 덧입혀진다. 구상하고 보고 재는 과정이 끝내 생략된 채 작품은 완성된다. 무작위한 붓질의 무질서한 흔적들. 몸과 붓, 캔버스가 교차하는 순간의 총체. 작가는 작품에 개입하지 않고 그렸다. 작품은 작가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완성했다. 이제 머릿속은 복잡하다. 작품은 왜 작품인가, 작가는 어떤 존재인가, 예술은 무엇인가. 이견용이 비로소 캔버스를 돌려 작품을 본다. “좋네요, 아주 좋아요.” 유쾌한 웃음소리가 어리둥절해하는 관객에게 날아온다. 그가 보지 않고 그리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다. 다시 질문이 떠오른다. 그는 무엇을 보았으며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사유하고 상상하는 그대로 예술

이견용은 ‘한국 1세대 행위 예술가’ ‘한국 전위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린다. 추측하건대, 예술의 정체를 탐구하는 그만의 방식을 사람들이 독특하다 느꼈기 때문이겠다. 그는 1973년 제8회 파리 비엔날레에서 나무를 전시장에 옮긴 ‘신체향’으로 프랑스 국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았다. 1975년에는 팔을 봉대로 묶어 가면서 건빵을 먹는 ‘건빵 먹기’ 퍼포먼스를 통해 신체 제약이 일상에 관여하는 양상을 관찰하도록 했다. 같은 해, 원 밖에서 “저기”를 외치고 원에 들어가 “여기”를 외치다 원을 따라 걸으며 “어디”를 외치는 ‘장소의 논리’ 퍼포먼스는 불변이라 여기곤 하는 관계가 몸의 위치로 인해 비틀리는 장면을 선보였다. 그의 작업은 생각과 감정을 촉발했다. 작가의 개입 없이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선으로 포착하는 ‘신체 드로잉’ 시리즈처럼, 이견용은 생각과 감정이 분출하는 경험을 선사해 왔다. “인간은 사유합니다. 상상을 펼치고요. 우주를 생각하지요.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본성이 그래요. 모두가 가

진 그것을 그대로 보여 줄 때, 모두가 가진 그것은 극대화됩니다. 이게 예술이예요.”

그래서 ‘건빵 먹기’ ‘장소의 논리’ 같은 퍼포먼스를 행위 예술이라든가 전위미술이라는 정의에 붙잡아 두는 건 부당한 일이다. 세간의 논리로 1세대이면서 선구자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 사실이 그렇고, 이를 부인하긴 힘들다. 시대의 인식과 방법론을 혁신하는 작업들은 작가 이견용을 상징하고 대변한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식과 방법론은 시대에 묵일 수 없는 동시에 단어에 갇힐 수 없다. 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이견용의 예술, 작가의 조작을 불허하되 자연 질서의 제약은 포용하는 이견용의 예술은 늘 세간의 논리를 벗어난 저곳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다. 그는 ‘신체향’ 이후 몸을 매체로 삼은 일련의 작업을 ‘이벤트-로지컬’로 명명했다. 자그마치 50여 건의 ‘이벤트-로지컬’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한 1970년대 중·후반 작업 중 단연 돋보이는 건 ‘달팽이 걸음’. 1979



‘신체향’, 1973, 파리 비엔날레 설치 전경. 갤러리현대 제공



‘달팽이 걸음’, 1980, <제7회 ST전> 퍼포먼스 기록 사진. 갤러리현대 제공



년 대전 남계화랑에 이어 제15회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관객과 평론가를 사로잡아 단숨에 대표작이 된 퍼포먼스다. 비엔날레 프레스 오픈링 날, 파티가 벌어지는 공간에서 맨발인 이견용이 쪼그려 앉아 분필로 선을 그어 나갔다. 전진하는 발바닥은 이내 선을 지웠다. 손은 흔적을 남기고, 발바닥은 흔적을 소거했다. 수선스럽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쪽 벽에서 출발한 이견용은 반대편에 이르러 동작을 멈추고 벽에 이마를 댔다. 파티 홀은 거대한 예술이 되었다. 박수가 쏟아졌다. 몇몇은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단순해요. 회화의 기본은 그리기와 지우기입니다. 회화만 그럴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사회도 그랬다 지우고, 만들었다 허물지요. ‘달팽이 걸음’은 본질의 현상을 눈앞에서 열어 줍니다. 선이 저절로 그려지고 지워지는 ‘달팽이 걸음’이 가슴을 울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이유일 거예요.”

작가의 몸이 창조 매체로

누구는 이견용을 천재라 말한다. 불과 4~5년 만에 50여 작품을 발표한 재능에 어찌 감탄하지 않을까. 혹은 캔버스 앞에서 고민과 구상이 거추장스럽기라도 한



‘체-71’, 1971/2016, 나무, 흙, 가변 크기, 2016년 갤러리현대 전시 전경. 갤러리현대 제공



**관념과 주관을 배제한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문화에 선진과 후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
이견용은 이를 예술로 표현했다.**

양 붓질부터 해 나가는 모습을 신비롭게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겠죠. 아닙니다. 제 삶은 스스로 정한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의 반복이에요. 나만의 연구가 작품으로 표출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 새벽 5시가 되면 이젤을 들고 남대문으로 가서 도시 풍경을 그리다 등교하는 한편, 프랑스·미국·독일 문화원을 순례하듯 드나들며 최신 예술 정보를 섭렵했다. 아버지가 수집한 1만 권의 장서에서 서양철학·동양철학·선사상을 흡수했고, 방학마다 집에서 벗어나 텃밭과 생활하며 삶을 배웠다. 그건 모조리 사유였다. 이견용은 세상을 궁리하고 연

구에 천착했다. 고등학생 때 ‘기독교의 토착화’ 논문이 궁금해 학교를 빼먹고 강연장에 갔다. 몰래 아버지 양복을 입었으나, 학회엔 아버지도 참석했다. 그를 발견한 아버지는 호되게 야단쳤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짓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 중입니다.” 무위자연 사상,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명저 <논리철학 논고>를 거쳐, 그는 관념과 주관을 배제한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문화에 선진과 후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 삶의 양태에서 파생된 문화는 서로 다를 뿐이었다. 그러곤 1973년, ‘신체향’ 전시가 끝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



이건용 1942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났다. 논리학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면서 혁신적 교육을 실시하던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미술을 배우고 철학을 공부했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뒤 1973년 제8회 파리 비엔날레에서 가공하지 않은 나무를 전시장에 옮긴 '신체향'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장소의 논리' '달팽이 걸음' 같이 몸을 매체로 삼은 '이벤트-로직컬' 작업을 잇달아 선보여 전위미술을 선도했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달팽이 걸음-이건용>전과 2016년 갤러리현대 <이벤트-로직컬>전 등 수십 차례 열린 개인전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군산대학교 교직을 정년 퇴임하고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몸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찰나의 인식을, 작가의 몸도 예술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발전시켰다. 계시와 같은 사건이었다. 어떤 이는 유행을 모방한다. 양식을 따라 하고 스타일을 베낀다. 누군들 그런 유혹에 자신을 맡기고 싶지 않을까. 편한데 성공마저 쉽게 보장하는 그 길을 왜 걷고 싶지 않을까. 그래도 누군가는 길을 낸다. 내일을 보려고 시대를 선도한다. 제 생각을 강요한 체 세계를 통제하던 근대의 불온한 사상이 스민 일부 예술을, 예술 바깥에서 통찰한 이건용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작가 스스로 끝까지 알지 못하는 '신체 드로잉'을 창조했다. 관념과 주관을 훌훌 털고, 그리는 행위가 나타내는 현상을 오직 드러낼 뿐인 작품에 오늘날 많은 이가 열광한다. 40여 년 전 퍼포먼스가 21세기의 환호를 받고, 페이스갤러리와 갤러리현대 등 세계적 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이끈다.

"신체 드로잉 방법으론 아이도 손을 휘두르기만 하면 그릴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에게 붓을 물려도 똑같은 것이고요. 모두에게 가능한 예술, 이 지점이 소통의 단서입니다. 제 작업은 사람들을 잇는 순간 마무리됩니다. 독선을 버리고 기만을 해체해 너와 내가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기보다 눈빛과 눈빛이 닿는 수평선에서 마주 보게 하는 것.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런 시대가 돼 가고 있지 않나요."

시대에서 시대로, 이건용의 예술

'이건용 현상'이라 칭할 만한 이 시대의 경탄을 그는 소탈하게 설명했다. 응당 도래할 일이 도래했다는 듯 겸손한 말투로. 이는 어쩌면 이건용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땅바닥에 그린 원의 안과 밖을 오가는 내내 "여기" "저기" "어디"를 외치고, 붓대를 칭칭 감은 손으로 부스럭거리는 흘려가면서 건빵을 먹고, 줄줄 흐르는 땀줄기를 짐짓 모른 척하며 달팽이 걸음을 걷기 이전에 이건용은 알았는지 모른다. 당신도 할 수 있는 이 예술이 우리를 소통하게 해 주리라는 사실을. 나만 옳다는 주장이 더는 설 곳 없는 그곳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때에 그는 1975년 공안 당국에 끌려가 고문당한 일을 말했다. 퍼포먼스가 권력을 조롱했다는 명목이었다. 10년간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하루아침에 호전됐다는 기적



(위부터) 'Bodyscape, 76-3-2021', 2021, 'Bodyscape 76-3-2020', 2020, 'Bodyscape 76-3-2021', 2021, 'Bodyscape 76-3-2021', 2021. 갤러리현대 제공

같은 옛일 또한 유쾌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았으나, 이윽고 어리둥절해하던 관객은 알게 되었다. 권력에 탄압받은 이건용과 세상이 환호하는 이건용 사이에 놓인 길, 그가 개척해 온 그 길엔 눈으로 보지 않고 손만 움직였으되 당신을 응시해 그린 예술이 차곡차곡 쌓였음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바로 이건용을 보고 있다. **☐**

<Bodyscape>전 이건용의 1970년대 퍼포먼스를 재조명한 2016년 전시에 이어 갤러리현대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 캔버스를 정면으로 보지 않거나 손목을 각목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신체 행위를 캔버스에 옮긴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문의 02-2287-3500

Gender - bending



문제는 성별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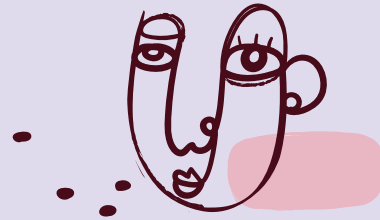
햄릿, 파우스트, 헤롯왕, 제갈공명을 여성 배우가 연기한다.
성별을 넘나드는 젠더 벤딩 캐스팅이 화제다.

글. 김현정

Gender - casting



©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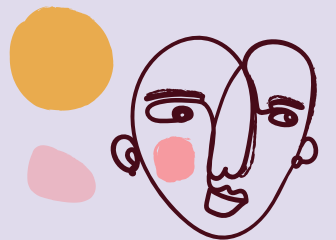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고뇌하는 젊은 남성이 다. 2018년 영국 런던의 극장 셰익스피어글로벌에서 배우 미셸 테리는 여성으로서 햄릿을 연기했다. 사실 여성이 못할 이유가 없다. 저 대사 뒤에 이어지는 말처럼,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 나서 참아야 할지 힘으로 물리쳐야 할지 고민하는 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을 테니. 이미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배우 사라 베르나르가 햄릿을 맡기도 했다. 어느 배역이 반드시 그 성별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움직임이 공연계에 일고 있다. 젠더 벤딩, 혹은 젠더프리 캐스팅이다.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 역사는 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의 개념에 남성만 들어갔고, 소유물 취급을 받은 여성은 외출조차 어려웠기에 여성·남성 모든 역할을 남성이 했다. 오늘날 젠더 벤딩과는 거리가 멀다. 요즘의 젠더 벤딩은 특정 성별만 연기하던 배역을 다른 성별이 하는 것으로, 주로 남성 역할을 여성이 맡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남성 중심으로 흘러온 세상의 '히스토리(history)'에서 사건을 겪고 각성하고 해결하고 성장하는 주인공은 남성이다. 인류의 역사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남성 캐릭터와 달리 여성은 남성 주변을 맴도는 성녀 아니면 약녀에 그쳐 캐릭터가 알팍하다. 여성 배역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여성 배우가 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절대 부족하다.

이런 인식하에 몇 년 사이 젠더 벤딩 캐스팅 작품이 여러 편 등장했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을 여성이 맡았고,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는 한 배우가 10개 이상 역을 담당

하는 극 특성을 살려 여성이 중국 마오쩌둥, 미국 존슨 대통령 등을 연기했다.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 속에 방황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비클래스>는 2017년 초연을 남성 배우로 채웠다가 2019년에 아예 여성 배우만 캐스팅해 소녀의 이야기로 바꾸는 신선한 시도를 했다. <적벽>에서 여성 제갈공명, 조조를 보여 주는 등 창극의 젠더 벤딩도 계속된다. 뮤지컬 또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헤롯왕으로 출연한 김영주가 지금껏 회자되는 연기를 펼쳤고, 차지연은 <더 데빌>에서 미스터리한 존재인 X-블랙과 X-화이트 역에 남성 배우들과 함께 캐스팅되어 번갈아 무대에 올라 자기만의 캐릭터를 구축했다. 올 상반기 연극계 최대 화제작도 김성녀가 파우스트를 맡은 <파우스트 엔딩>이었다.

젠더 벤딩 캐스팅은 남성 캐릭터는 당연히 남성 배우가 연기하고, 성별이 모호한 캐릭터도 남성에게 돌아가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이 해도 무방한, 오히려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한 작품이 많다. '회전문 관람'의 대명사와 같은 남성 2인 뮤지컬 <쓰릴 미>를 여성 2인이 연기한다면? 회전문 입장 예약. 호기심과 관람 의지가 솟구친다. 무수한 '숨음마(줄여서 숨이라고도 하는)' 덕후를 낳은 남성 2인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여성 2인이 해도 재미있겠다. <헤드워>은 진작 시도했어야 했다. 젠더 벤딩 캐스팅이 단순히 여성에게 역할을 할당하고 화제성을 노리는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고정된 성별 관습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데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다. 물론 '기존 극을 다시 보는' 수준을 넘어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창조하는 노력이 최우선이다. ☑



이 캐릭터도 젠더 벤딩 캐스팅해 주세요!



뮤지컬&영화&연극 <레 미제라블>_장 발장

인간의 운명과 정의를 말하는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 미제라블>. 주인공 장 발장은 죄수·사업가·시장으로 변신하면서, 자신을 추격하는 자베르 때문에 갈등하는 입체적 캐릭터다. 그가 겪은 일과 고뇌는 성별을 떠나 인류 보편의 주제다. 이 정도 무게감 있고 매력 넘치는 배역을 여성이 맡아야 젠더 벤딩의 의미도 제대로 산다고 믿는다. 여성 자베르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 내친김에 여기 코제트 재해석 추가요! 그저 '예뻐서' 남자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코제트보다 자기의 지로바리케이드에 들어가는 코제트를 보고 싶다. **김현정**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_앤디 삭스

미국 뉴욕의 패션을 주도하는 이들의 일상이 담긴 장면만으로 만족스럽지만, 소설이 원작인 영화에서 인상 깊은 건 주인공 앤디의 변화다. '패알못' 앤디는 패션 잡지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로 채용된다. 그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동안 자신이 피도 눈물도 없다 여긴 미란다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앤디에게 나를 대입해 보았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것이고, 남성인 나는 자연스럽게 남성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아 발견에 여성과 남성이 따로 있을 순 없기에. **김규보**

영화 <조커>_조커

그동안 억눌린 사회적 약자의 분노가 기괴한 출사위로 분출된다. 고담시에서 코미디언을 꿈꾸는 광대 아서 플렉에게 어머니는 '해피'라고 부르며 언제나 웃을 것을 강요하지만, 정작 웃음이 터지는 정신병이 발작했을 때 사회가 그를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영화는 사회가 소외시킨 인물이 고담시 군중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빌런'이 되기까지를 면밀하게 담으며 캐릭터에 몰입하게 한다. 사회적 약자 지위에 상대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여성이 조커를 맡는다면 더욱 공감할 것 같다. **이내경**

애니메이션 <알라딘>_지니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째나타난다. 자신을 소환한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유능한 존재. 램프에 묶인 몸이지만 시종일관 유머를 잃지 않아 사랑스럽다.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으려 가짜 왕자 노릇을 하는 알라딘 곁에서 적재적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 두 주인공의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극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지니가 여자라면 어떨까? "소원을 말해 봐~"를 노래하던 소녀시대처럼 당차고 멋진 여성이어도 재밌겠다. **진주영**

영화 <럭키>_최형욱

킬러 형욱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기억을 잃는다. 이를 본 N년 차 무명 배우 재성이 자신의 목욕탕 리커 열쇠를 형욱의 것으로 바꾼다. "청소하면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칼도 좀 잘 다루는 거 같습니다." 마흔다섯 살에서 서른두 살로, 최형욱에서 윤재성으로 살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내 기억이 돌아온다. 뻔한 결말이지만, 고독한 킬러에게 따뜻한 가족이 생긴다는 마무리. 킬러의 고독함(+정장이 잘 어울리는), 몸에 밴 자상함에 김밥 싸는 모습까지 귀여운 이 캐릭터! 저는 이시영 배우가 생각났어요. **표다정**



400년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고목(古木), 거례리 사랑나무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세요.





여전한 아픔 기록해야 할 이유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살아 돌아온 한국인의 삶을 카메라로 포착한 김효연 작가를 만났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요술공주 밍키 밍키 밍키.” 경남 합천에 사는 소녀가 1980년대 만화 <요술공주 밍키>의 주제를 부른다. 같은 지역의 한 할머니는 1943년에 발표한 일본 군가 ‘젊은 독수리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김효연 작가는 부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까지 배를 타는 내내 촬영한 바다 물결에 두 사람의 노래를 더한 영상 작품 ‘세이렌’을 선보였다. 오래된 만화 주제가와 일본 군가, 항해 풍경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을 안고 서울의 한 전시장으로 김효연 작가를 만나러 갔다.

한 사람의 사정이 아닌 모두의 역사

2017년 가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핵무기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김효연 작가가 걱정됐던 어머니는 “만약 전쟁이 나거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와라”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지나친 염려라고 여겼으나, 마음 한편에선 전쟁이란 단어가 점점 부피를 키워 갔다. 그때부터 윗세대를 스쳐간 전쟁의 상흔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합천에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인 수십 명이 생활하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작가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히로시마가 고향인 그의 어머니 쪽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효연 작가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렀고, 종종 부엌에서 일본 노래를 부르곤 했다. 할머니는 한국인 강제 징용 노동자였던 할아버지를 만나 1945년 이전에 부산으로 넘어왔다. 이후 고향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히로시마에 살던 할머니의 가족 중에서는 작은오빠가 원폭 피해자인 동시에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이런 사정은 그저 가족사일 뿐이었다. 그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폭 피해자가 많은 나라다. 1945년 히로시마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거주했고, 그들 중 대부분이 합천 출신이었다. 종전 이후 귀향한 이들의 역사는 오늘로 이어진다. 우리 곁의 누

(위부터) ‘Abnormal Sense 042’, ‘Abnormal Sense 048’



© 김효연



(왼쪽부터) 'Abnormal Sense 025', 'Abnormal Sense 011', 'Abnormal Sense 037'

군가는 원폭 피해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라는 숙명을 안고 살아간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수장고에는 5000여 개의 원폭 피해자 신상 자료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김효연 작가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할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의 서사가 아니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러나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무얼 해도 안 될 것 같았다. 엄청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순 없었다. 무작정 카메라를 둘러멘 그는 합천에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비슷한 구석이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 속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선물하고 싶었다. 이후 지금까지 합천과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을 프레임에 옮기는 중이다.

76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일

합천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그 옛날 히로시마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억했다. 김효연 작가는 거동이 불편한 그 대신 일본으로 향했다. 교통편은 일부러 배를 선택했다. 수십 년 전,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해 망망대해를 건너 타국에 갔다가 커다란 슬픔을 안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이때 촬영한 영상에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의 노래를 더한 작품이 '세이렌'이다. 배 종착지인 시모노세키항에서 히로

INFORMATION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김효연 작가는 그날 이후 지우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을 담담한 시선으로 기록했다. 몇 년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한데 모은 개인전 <감각이상>은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에서 8월 15일까지 열린다.
문의 02-330-6229

시마까지는 철도를 이용했다. 그 시절, 부산과 히로시마를 오가는 여정을 똑같이 밟은 것이다. 그렇게 도착한 히로시마엔 다행히 할아버지의 집터가 남아 있었다. 집 형태는 바뀌었어도 주소는 그대로였다. 작가가 보여 준 진심 어린 태도에 여러 어르신과 그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김효연 작가는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진 속 사람들은 편안해 보인다. 동시에 보는 이가 짊어져야 할 부담감도 덜어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 작가는 계속해서 합천과 히로시마를 포함해 우리 주변에 남은 그날의 흔적을 기록해 나갈 것이다. 현재진행형인 그날의 이야기가 그의 손길을 거쳐 또 하나의 역사가 된다. ✎



'Abnormal Sense 009'



사과나무가 자랄 테니까

민구 시인에게 8월은 크리스마스가 있고 카레가 익는 계절이다.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정

8월의 크리스마스

민구

크리스마스에
사과나무를 심었어

누군가 몰래 사과를 따도
붉은빛이 매달려 있는
여름밤

크리스마스에
사슴을 봤어

네가 다 자라 이곳으로 오면
정원은 향기로운 화환
나는 이미 죽은 사람

크리스마스에
카레도 만들었지

양파가 노래질 때까지 볶아서
오래 끓인 카레를
당신과 나누어 먹었다

그릇이 비면
우리는 옛날 사람
여름에 눈사람을 만들고

눈이 녹으면
교리를 잇은 성자의 빗자루처럼
이야기들만이

마당을 쓸고 있을 것이다

“구야, 잘 있니?”라는 인사로 이 글을 시작하고 싶다.
민구 시를 본 지 오래되었다. 어느 해인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민구가 수십 편의 시를 버렸다고 말했다. 시인으로 데뷔하고
나서 쓴 시의 대부분이었다. “한 편도 봐줄 만한 게 없어요.”
나는 아깝다고 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도 몇 편은
잘 살려서 모아 두어야 시집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 나 진짜 별로였네. 시집 출간을 축하하는 상자에 사과나
귤을 담은 것쯤으로 생각했다. 거듭, 아까우니까. 그리고 민구
시는 좋으니까. 아무튼 민구는 민구를 의심하는 시인이었다.
우리는 같이 대구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러. 이성복 시인이다. 이성복 선생님은 나에게도 관심이
없으셨고, 민구에게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떤 시가
괜찮았는데 그 후에 쓴 것들은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난다. 민구 시가 변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민구는 민구를 믿지 않으니까. 민구 시
말고, 민구를. 대구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콩나물국밥을 먹었다.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콩나물국밥은
처음이었다. 콩나물처럼 키가 긴 민구는 콩나물을 씹으며
“좋아하는 사람이란 놀러 와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 같아요.
형, 진짜이 콩나물국밥은 맛있는 거 같아요. 형도 좋고”라고
리플레이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어느 빛이 맑던 오후에는 민구와 같이 서울 연희문학창작촌
뜰에 앉아 있었다. 나무처럼 고요하게. 나는 시 쓰는 게 외롭다고
말했고, 구는 망설임 없이 “형은 첫 시집에서 그 많은 이미지를 다
지워 놓고 무슨 걱정을 해요”라고 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동생 앞에서 낯에, 날씨도 좋은데 우는 건 시인 같기에 참았다.
그러나 내가 ‘지운’ 것들이 나를 외롭게 했음을 민구는 알았을
것이다. 그 시절, 민구와 내가 시인으로서 가야 할 길은 그런
것이였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이였다. 낯선 꿈을
꾸는 사람은 외롭다고 여기 적으면 자기 위안적이며 아마추어
같다는 걸 안다.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민구는 “크리스마스에/ 사과나무를 심었어”라고 적는
사람이다. “우리는 옛날 사람/ 여름에 눈사람을 만들고”라고
적는 사람이다. 나는 이 시를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 담담하게
적은 문장이 시적인 무엇을 환기하는지 관심 없다. 다만
저 문장에 아무런, 조금의 기교도 담겨 있지 않아서. 그 단순한
마음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담아
응원한다. 민구는 자신이 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민구는 자신이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직하고’ ‘단순하게’ 시를 사랑하고, 시적인 태도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아니라면 저런 문장을 쓸 수 없다.
민구가 민구를 믿지 않는 건, 시인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시가 시인을 말해 줄까? 시인은 시의 기원인가? 나는 민구를
통해 시인의 삶을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다.
그러니 구야, 잘 있니? 이제 8월이고, 너의 크리스마스에는
카레가 익어 가고 있어? 누군가 몰래 사과를 딴 자리에 매달린
빛을 보고 있니? 구야, 안 궁금하겠지만 매번 사과 따는 사람
나야. 너에게 붉은빛을 보여 주려고.
대체로 내가 이 지면에 쓰는 글은 ‘여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를 여행과 연결하자면, 달리는 KTX 안에서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읽기에 좋다. 눈의 초점을 약간 흐릿하게 두고
공간에서 이탈한 느낌으로. 크리스마스는 멀었고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만날 날도 여전히 멀게 느껴지지만, 시간은
흘러간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어떤 날인 동시에 낯선 지명
갈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열차를 타고 크리스마스라고
있을까? 내 크리스마스는 어디지? ‘이야기’들이 ‘마당을 쓸고
있’는 곳. 좋은 때가 오면 그곳에서 서로 안부를 길게 길게 나누게
되겠지. 민구야, 너는 아직도 너를 못 믿니? 그렇게 네가 버린
수십 편의 시가 사과나무가 되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그 나무가 있는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더 외롭자.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도 부디 그러하기를. 각자의 사과나무에
붉은빛이 매달리기를. ☑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어리다고 고민이 없으랴. 자랄수록 세상은 넓어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 간다. 코로나19로 편하게 얘기하거나 함께 놀 대상이 줄어든 요즘은 더할 것이다. '게임을 자제하고 싶지만 어려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해?' '인기 있는 친구가 부러워' 같은 고민을 마음굴리기 대장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조언해 준다. 따뜻한 조언에 귀 기울이는 동안 내면의 힘과 자존감이 커진다.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지음 김효진 그림 고래이야기 펴냄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

육식은 첨예한 이슈다. 인간이 고기를 다량 섭취하면서 동물의 수난은 심각해졌다. 값싼 고기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알고 채식을 선택하는 이도 있다. 저자는 스물여덟 나이에 귀농해 두 눈으로 직접 그 열악한 현실을 보고 육식을 포기했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란 동물 고기는 먹어도 될지 궁리한 끝에 돼지 세 마리를 키운다. 긴박감 넘치는 돼지 사육 현장부터 안타까운 마지막 순간까지 드라마틱한 이야기 속에 묵직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동호** 지음 **창비** 펴냄



<저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사고 생존자인 저자는 지금도 그날의 습도, 온도, 사이렌 소리, 피비린내가 생생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살아남았으니 다행 아니냐, 앓는 소리 그만할 때도 되었다, 이제는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를 보자고 한다. 세월호 사고를 두고 비슷한 말이 오가던 2018년 저자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사고의 기억이 자신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본인과 가족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두를 위한 사회적 기록이다. **산만언니** 지음 **푸른숲** 펴냄



<가만히, 걷는다>

"바다에서 자란 내게 가난은 사치였는데, 나중에 바다를 잃게 되자 모든 호화스러운 것들이 내게는 잿빛으로, 걸딜 수 없는 빈곤으로 보였다." "달이 떴다. 달은 먼저 희미하게 수면 위를 비추다가 더 위로 올라 찰랑거리는 물 위에 글씨를 쓴다." 문장에 마음이 후드득거린다. 플로베르, 유르스나르, 카뮈, 생텍쥐페리 등 인류가 영원히 읽고 사랑할 프랑스 근현대 작가 21명의 산문 36편을 모았다. 산문 독서의 즐거움을 누린다. **퀴스타브 플로베르 외** 지음 **신유진** 엮고 옮김 **봄날의책** 펴냄

광주, 탐나는 여행

대한민국 역사여행 대표도시 광주

1913 승정역시장

KOREA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 AI 인공지능중심도시

EXHI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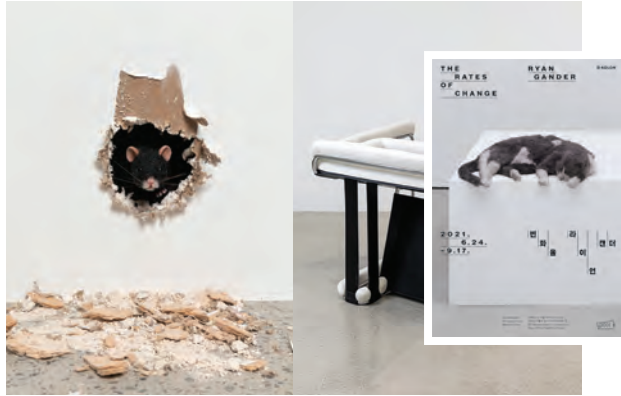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동희, '나리코 신발 채희아', 서울 광창동 보현산신각, 1981/2021, 디지털 인크젯프린트, 39.7×59.4cm, 작가 소장, 데이터 도서출판 눈빛 제공



<한국여성사진사 I: 1980년대 여성사진운동>

12회를 맞은 '서울사진축제'가 사진사(寫眞史)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 사진가의 활동을 모아 펼쳤다. 첫 번째 파트에선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하게 작업한 여성 사진가의 자료를 전시하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발굴한 사진가를 소개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김동희, 김민숙을 비롯한 10명의 작품으로 1980년대 '여성사진운동'을 조명한다. 한국 사진사의 공백을 메우면서 여성 사진사 기술의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다.
기간 8월 22일까지 문의 02-2124-5201(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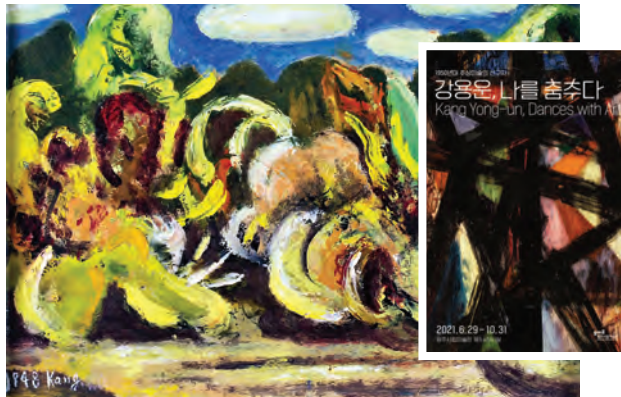
<변화를>

일상 속 사물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영국 미술가 라이언 갠더가 설치와 조각, 사진을 아우르는 작품 28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개념미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 영국 테이트 모던 등 세계 유수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좌대 위에 모형 고양이를 배치하거나 자갈 모양 콘크리트에 손목시계를 채운 작품으로 관람객 스스로 이야기를 창조하도록 유도한다. 기간 9월 17일까지 문의 02-3665-8918(스페이스K 서울)



<정재철: 사랑과 평화>

지난해 작고한 정재철 작가의 현장 프로젝트 작품과 기록은 물론 드로잉·화첩 24점, 작가 노트·아카이브 자료 50여 점을 공개한다. 조각가로 활동하던 정재철은 매체를 확장해 가다 2000년대 들어 해외와 한국에서 각각 '실크로드 프로젝트'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중국·중앙아시아·유럽에서 마주친 현지인과 공동 작업하고, 한반도 바다의 해양 쓰레기 루트를 추적해 드로잉으로 남긴 그의 예술 프로젝트를 살핀다. 기간 8월 29일까지 문의 02-760-4850(서울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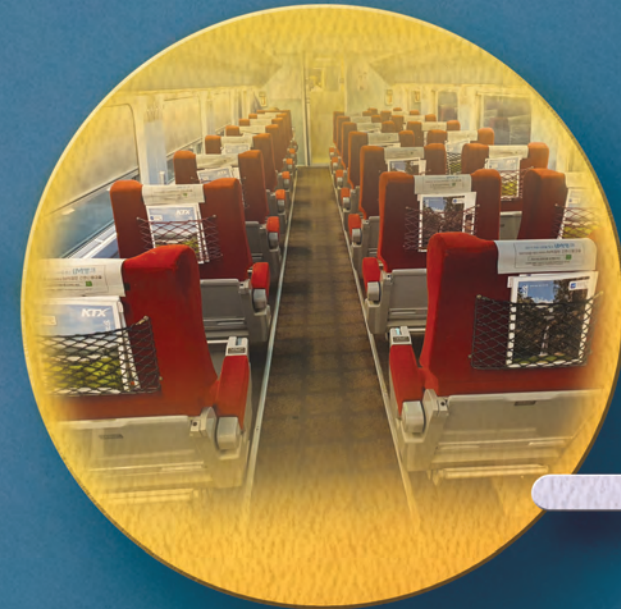


<강용운, 나를 춤추다>

1950년대 추상미술을 선도한 강용운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60년의 예술 발자취를 정리했다. 1940년대 일본 유학기 대표작 '여인', 흑평과 반박이 오간 이른바 추상 시비 사건으로 1950년대 화단의 보수성을 드러낸 '예술가', 2000년 작품 '기억III' 등 2006년 숨을 거둘 때까지 전통 질서를 넘어서려 노력한 작가의 회화 작품 83점과 페인팅 작품 8점을 전시한다. 이론에도 탁월했던 강용운이 신문에 기고한 글도 아카이브 공간에서 만난다. 기간 10월 31일까지 문의 062-613-7100(광주시립미술관)

<KTX매거진> 2021 추석호 특별 광고 안내

"1년에 한 번뿐인 추석, 단 한 번 만나는 특별한 마케팅 기회가 있는 9월호! 놓치지 말고 꼭 탑승하세요"



Train Ticket

고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KTX에 독점 비치된 <KTX매거진>. 열차 승객이 증가하는 추석 기간에 기차로 이동하는 분들에게 1년 중 가장 뜨거운 홍보 마케팅 기회를 안내합니다.

어떤 분들께 좋을까요?

- GUEST 1 추석 전후, 고향으로 배송할 선물 아이템을 홍보하려는 기업
- GUEST 2 <KTX매거진> 채널에 추석 연휴 관광지를 소개하고픈 지자체
- GUEST 3 정부 정책 혹은 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널리 알리려는 공공기관



광고 문의 성우애드컴 광고팀 02-890-0907

* 2021년 8월 10일 이전에 문의하신 분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전국에서의 춤>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창작산실 우수 작품 제작 지원 선정작인 창작 발레 공연이 완성도를 끌어올려 다시 찾아왔다.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 모습을 보다 깊이 조명했으며 무대와 의상을 교체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한국 발레단의 양대 산맥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의 전·현직 발레리노 이동탁, 강민우 등이 출연해 역동적인 동작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기간** 8월 13일~15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COOL SUMMER CLASSIC-클래식 인 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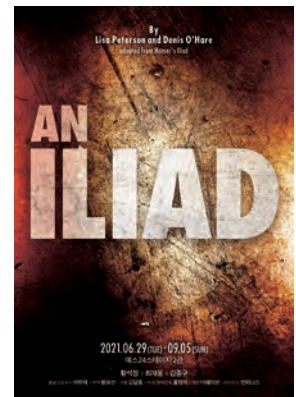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잊지 못할 한여름 밤 추억을 남긴다. 백윤학이 지휘하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파리넬리> 같은 명화에 등장한 오페라 <카르멘> '하바네라', <리날도> '올게 하소서', <피가로의 결혼> '편지 이중창' 등을 성악가 김미주·김순희와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나온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을 연주한다. **일시** 8월 1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 문의 031-390-3500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금지곡(禁樂)>

조선 시대 궁중의 음악과 무용을 담당한 관청 장악원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을 담은 판타지 사극 뮤지컬이다. 순조 재위 말기, 이영(효명세자)은 장악원을 기반으로 왕권을 다지려 계획하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천재 악공 성울을 만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으로 호평을 받고 현재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역임 중인 원일이 작품을 진두지휘한다. **기간** 8월 18일~29일 **장소** 경기도 수원 경기아트센터 문의 031-289-6471



<일리아드>

배우 한 명이 연극을 이끌어 가지만 무대 위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배우는 내레이터가 되었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면서 배역을 자유자재로 오간다. 배우 황석정·최재용·김종구가 같은 내레이터 역할을 맡는데, 세 배우가 각기 다른 콘셉트의 주인공으로 분하는 게 특징이다. 황석정은 기타, 최재용은 퍼커션, 김종구는 하프를 연주하며 트로이전쟁 이야기기를 들려준다. **기간** 9월 5일까지 **장소** 서울 예스24스테이지 문의 02-6954-0772



Good morning & Good night.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 하얀 세면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끝난 저녁엔 피로를 씻어내는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LEEHYUN BATH



'시스템욕실(System Bathroom)'이란?

욕실의 모든 구성부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여 현장설치/완성하는 건식 공법

TPR방수판 열융착공법 열가소성수지를 열융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욕실의 다양한 형상 및 크기에 적용 가능
PU복합판넬 접착성이 우수한 PU와 타일을 일체화시켜 방수, 단열, 치음, 방균 성능이 뛰어난 벽판넬
천장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 세럼미와 편안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욕실 천장

TEL. 02-923-3855~7

건식 욕실 시공의 장점

습식공법의 방수성능 저하 해결, 공간 비좁음, 인력수급문제 등 해소,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격조있는 고품격 욕실 구현

특허 및 인증 현황

기술연구소 인장서,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관련 특허 21건, 디자인 32건 보유

MOVIE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갈매기>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찬사를 받으며 국경쟁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평생 자신을 챙겨 본 적 없이 가족에게 헌신한 오복은 험한 일을 겪은 뒤 가족과 세상에 외면당한다. 처음으로 펄떡이기 시작한 오복.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 나는 언제 챙겨?” 나로 살겠다 결심한 오복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세상의 편견에 맞선다. 농밀한 연출로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7월 28일 개봉.

감독 김미조 출연 정애화, 이상희



<방법: 재차의>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용의자의 사체가 동시에 발견됐는데, 용의자는 3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또한 “내가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하는 자가 방송국에 인터뷰를 요청하더니, 되살아난 시체를 운운하며 앞으로 세 번 더 살인이 일어날 거라 예고한다면? 기괴한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 임진희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지닌 백소진이 스릴과 공포를 버무린 이야기로 여름을 서늘하게 만든다. 7월 28일 개봉. 감독 김용완 출연 엄지원, 정지소



<코다>

‘N차 관람’ 열풍을 주도한 <라라랜드>의 음악 감독 마리우스 드 브리스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악영화. 2021년 제 37회 선댄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비롯해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는 합창단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루비의 하루하루를 그린다. 버클리 음악대학 오디션 기회까지 얻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의 앞날이 걱정이다.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일상이 흥겨운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8월 개봉. 감독 셉 헤이더 출연 에밀리아 존스, 피디아 윌시필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드디어 돌아왔다. ‘배트맨’과 ‘슈퍼맨’으로 유명한 DC코믹스 세계관의 악당 캐릭터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만으로 코믹스 팬과 영화 팬을 열광시킨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다시 세상을 사로잡는다. 캡틴 부메랑, 블러드스포트, 킹 샤크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지는 안티히어로들은 물론이고, 1편에서 가장 인기를 끈 할리 퀸이 등장해 우주 최고의 적을 상대한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액션이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8월 개봉. 감독 제임스 건 출연 마고 로비, 이드리스 엘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1,380만 도민을 위한 새로운 시대 경기도의회가 열어갑니다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Central Seoul, Friendly and Traditional

Article and photos by **Tifi Aiyanyo** (Korea Travel Qrator, US-Nigeria)

Seochon (neighborhood lying west of the Gyeongbokgung Palace) is one of the oldest network of alleyways in central Seoul. Over the years, it has preserved its friendly atmosphere and traditional aesthetics. You can start the night at Sejong Village Food Street, which provides a glimpse of the simple life and culture. The traditional market street is filled with many small restaurants and grocery shops, making it the perfect place to wander at dinner time.

As a post-meal stroll, head towards the Jogyesa Temple. Every year, the temple hosts the lantern festival in celebration of Buddha's birthday. Apart from the lantern festival, several Buddhist events and ceremonies are held year-round in the Dharma hall.

Still feel like walking? Walk towards the Jongno 2-ga Intersection through Insa-dong. In Insa-dong, you can find amazing traditional goods on display if you arrive before 9 p.m.. If not, walk towards the intersection and grab a snack from the street vendors. The cinnamon honey-filled *hotteok* (sugar-filled griddlecake) sold at the extreme end of Insa-dong street makes it worth every step. Most of the snacks are extremely hot so take your time as you walk towards Cheonggyecheon Stream. Every bridge has its own personality—some have music playing, some have dancing lights, and many more. Stop, sit, and immerse yourself in the calming sounds of flowing water, and you will realize why the place symbolizes gathering, harmony, peace, and unity.

It is fascinating how Korea has preserved its history and utilized every resource available to create a simple but sophisticated area rich in culture. 

Traveler's Room

Hanok 24 Guesthouse Gyeongbokgung *Hanok*, or traditional Korean houses, is a must-see when you come to Korea. Luckily, Hanok 24 Guesthouse is located right in the middle of central Seoul. The guesthouse is comprised of four *hanok* structures with similar traditional aesthetics. The rooms are equipped with a traditional *ondal*, which is the Korean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instead of beds. Despite its traditional authenticity, the guesthouse still provides modern amenities like indoor plumbing, WiFi, and a kitchen. As you glance up at the traditional ceiling from your bed, let your imagination take you back in time to life in the Joseon era. **02-732-3000** www.stayguesthouse.com

* Korea Quality, certifi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a certified designation system that helps tourists select high-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롯데호텔 울산

헬로! 웨일 패키지

울산의 유일한 5성급 호텔인 롯데호텔 울산이 '헬로! 웨일(Hello! Whale) 패키지'를 선보인다.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객실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에게 추천한다. 패키지에 장생포고래박물관과 장생포고래문화마을 입장권을 포함해 아이와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 준다. 세계적인 펠리구 명가 파버 카스텔의 색연필 세트와 롯데호텔 컬러링 엽서로 구성된 컬러링 키트를 제공해 아이와 오늘을 기록하는 시간도 추억으로 남는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

☎ 052-960-1000

www.lottehotel.com/ulsan-hotel



휘닉스 평창

라운지에서 즐기는 와인&맥주

휘닉스 평창의 포레스트 캠핑이 야외 인기 프로그램이라면, 실내에는 와인 마리아주가 있다.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와인과 생맥주, 세미 뷔페를 무제한으로 즐긴다. 와인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10종 중 매일 여덟 가지를 내놓아 선택의 폭이 넓다. 세미 뷔페에는 주스와 스낵도 있어 아이와 방문해도 좋다. 와인 마리아주를 평일에 이용할 예정이라면 휘닉스 평창 관광곤돌라 이용권을 추가한 '와인&비어 파티(Wine& Beer Party) 패키지'를 눈여겨보자. 휘닉스 평창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로 여행이 된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

☎ 1577-0069 www.phoenixhnr.co.kr



밀레니엄 힐튼 서울

웨딩 메뉴로 변모한 펜트하우스

코로나19로 스몰 웨딩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많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호텔 개관 40주년을 앞두고 23층 복층 펜트하우스를 럭셔리 웨딩 메뉴로 변모시켰다. 그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공간에 걸맞은 최고급 플라워 데코레이션과 업그레이드한 케이터링 메뉴로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다. 남산 전망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도 낮과 밤에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데, 낮에는 눈부신 자연 채광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밤에는 화려한 야경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껏 자아낸다.

☎ 02-317-3433 seoul.hilton.co.kr



<KTX매거진> 7월호를 보고 나서



태고에서 미래까지, 연천 시간 여행 군 부대가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경기도 연천이 이렇게 이야기와 볼거리가 다채로운 곳인지 이제 알다니요... 연천 여행 기사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조현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비가 와도 신뜻하게, 선물 같은 '잇템' 잡지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곧 장마라 우의를 고르는 중에 <KTX매거진>에서 찾아서요. 저번에 진행한 반려동물 앱 소개 기사도 정말 좋았어요. **한지수**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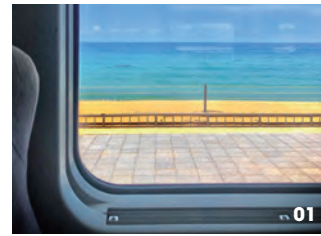
꿈의 바다에서 바람 한 조각, 낙산사 가족과 일출 보러 양양 낙산사에 자주 갔죠. 두 번은 안개 때문에 실패, 세 번째는 성공했어요. 의상대에 앉아 시원한 바람 쐬던 그날이 그리웁니다. **이수정**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대학 시절 언니와 맺은 인연이 10년을 바라보네요. 조카가 벌써 열세 살입니다. 넓은 동해를 곁에 두고 살아서 그런가요. 늘 바다같이 저를 품어 주고 사랑해 주는 민재네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어요. **주하연**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56길

02 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휴가 장소를 정하려 조카네 가는 길에 만난 '특별 부록'. 올여름 가족 여행은 <KTX매거진>에서 추천하는 포항으로 2박 3일간 갑니다! 조카들과 잘 다녀올게요. **이연** 경북 영주시 신재로12번길

03 출장이 잦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KTX를 이용합니다. 사진은 긴 하루를 보내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러 이동하는 길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기분이 좋은 것 같죠? 퇴근은 늘 즐거워요~ 서울아, 안녕~ **안태진** 부산시 기장군 기장대로



-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 02**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 05** 마감은 8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코웨이 뷰티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핑크 볼륨 라디언스 컬러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핑크빛이 얼굴 아래 반사판을 댄 듯 화사함을 선사합니다. 뭉치지 않는 부드러운 발림성과 산뜻한 마무리가 특징인 크림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세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흡수시킨 다음 이마, 눈 아래와 콧등, 턱 중앙 등 입체감이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 줍니다.



제4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나도 태워 줘요'

- 180 한국철도 소식
- 186 시간표
- 196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8 열차이용안내
- 200 비상시 행동매뉴얼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한국철도 소식

KORAIL NEWS



한국철도,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지' 참여

한국철도가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고!고! 챌린지'는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철도 정왕국 사장직무대행은 공식 SNS에서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GO! 지구환경은 살리GO!"라며,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운영사로서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통해 'ESG 경영' 실천과 '2050 탄소 중립' 달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정부가 할당량 탄소 배출 목표량 211만 톤 대비 약 27퍼센트인 56만 톤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직장인을 위한 횡수 차감형 KTX 할인 카드 'N카드' 출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상생하려는 취지로 지난달 한국철도가 업무상 KTX 열차를 이용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N카드'(기업용)를 출시했다. N카드는 기업 관리자가 구매 후 직원을 등록하면 해당 직원이 철도를 연간 지정한 횡수만큼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하는 기업 전용 횡수 차감형 할인 카드다. '전 구간 이용 가능형'과 원하는 구간을 최대 5개까지 지정 사용하는 '특정 구간 지정형'으로 나뉘며, 할인율은 승차권 운임의 15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에 달한다. 전 구간 이용 가능형 N카드의 가격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기본 운임인 5만 9800원의 7퍼센트를 기준으로 원하는 이용 횡수를 곱한 금액이다. 특정 구간을 지정하는 N카드는 해당 구간 중 최장 구간 운임의 7퍼센트에 이용 횡수를 곱하면 된다. 최소 이용 횡수는 180회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우측 상단의 '기업 전용' 서비스 메뉴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앱 '코레일톡'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하면 된다.

KTX광명역 새 주차 빌딩 개장, 주차장 네 곳에 4300여 대 수용



지난 7월 한국철도가 KTX광명역 B주차빌딩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B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다. 주차 공간은 기존 354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807면으로, 이제 광명역은 주차장 네 곳에 총 4307대를 수용하게 된다. 주차료는 기본 30분당 2400원, 1일 1만 5000원이다. 열차 승차권 서비스와 관련해 광명역을 방문할 경우 30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새 주차 빌딩은 주차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며, 층별 주차 안내와 주차 유도 시스템을 구축한 최첨단 주차 시설이다. 직선형 층간 이동 통로 폭은 평균보다 넓은 4.1미터로 설계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 또 주차장 내에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둔 중앙 중정형 구조로 건축하고, 에너지 절약 시공법을 적용해 동작 센서 조명등을 설치했다.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국철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8월부터 열차 지연 배상금 ‘자동 환급’ 시행

현재	고객이 역 창구나 앱에서 직접 신청
↓	
개선	별도 신청 없이 고객이 지불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반환

• 열차 지연 배상 기준

지연 시간	지연 배상 금액
20분 이상~40분 미만	운임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	운임의 25%
60분 이상	운임의 50%

한국철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열차 지연 배상 제도를 개선했다. 열차 지연 배상 제도는 열차가 천재지변이나 안전상 조치 이외의 사유로 20분 이상 늦을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퍼센트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고객이 역 창구나 앱 ‘코레일톡’에서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구매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반환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현금 결제한 고객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역에서 네일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전문 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제공하는 네일 케어 서비스 숍 ‘심심옥수’

철도역 맞이방 ‘심심옥수’에 오시면 전문 네일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승차권만 있으면 무료!!



▶ 운영 지점 및 위치

지점	위치
부산역점	부산역 2층 맞이방(매표소 앞)
익산역점	익산역 2층(동광장 출입구 앞)
대전역점	대전역 1층(서광장 출입구 앞)
용산역점	용산역 아이파크몰 4층
김천구미역점	김천구미역 1층(수유방 옆)

▶ 운영 시간 10:00~18:00(월~금요일)

▶ 제공 서비스

당일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무료 네일 케어 서비스 제공 *손톱 관리 + 영양(약 40분 소요)

▶ 이용 방법

카카오톡에서 ‘심심옥수’ 검색,
‘상담원 채팅’을 통해 예약 후 방문

‘심심옥수’는 한국철도공사가 장애인고용공단, 민간 기업, 국가철도공단과 함께하는 국민 행복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푸른 바다가 부르는 남도로 떠나는 휴가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섬 여행

한국철도 용산역 여행센터는 코로나19 시대 안심 여행으로 2인부터 떠날 수 있는 홍도·흑산도 섬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자유 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완도 여행 상품과 KTX 연계 남도 순환형 버스(나주, 강진, 장흥, 완도, 영암, 해남, 진도)도 있다. 문의 02-3780-5555, 02-3780-5584(한국철도 용산역 여행센터)



완도군 손꼽히는 남해안 휴양지

신지도 | 명사십리해수욕장

글로벌 비영리단체 환경교육재단(FEE)이 친 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 부여하는 '블루 플래그'를 3년 연속 받은 해수욕장이다. 바닷물은 미네랄 등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했고, 백사장은 길이 3.8킬로미터, 폭 150여 미터로 장대하게 펼쳐졌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달궈진 고운 모래가 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하는 모래찜질 효과를 배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완만한 경사, 얇은 수심과 넓은 백사장, 우거진 해송이 어우러진 탐방로, 샤워장, 주차장 등 편의 시설도 갖춰 여름철 피서객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다.



장도 | 청해진 유적지

완도 동쪽 장좌리 앞바다, 전복을 얹어 놓은 형상의 장도에는 약 12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장보고 장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청해진이 바로 그곳. 청해진은 장보고가 중국 해적으로부터 신라인을 보호하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중개무역을 한 군사·무역 기지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발굴 작업을 진행해 청해진성과 방어 시설인 외성문, 내성문, 고대 등을 복원했다. 고대는 성 안쪽과 바깥쪽을 두루 조망하는 언덕 위에 설치한 경비 초소 역할을 했다. 남해의 다도해 풍광을 바라보며 성을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해도 좋다.



장도 유적지 ©

신안군 1000여 개 섬의 고장

홍도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신비의 섬이다. 홍갈색 사암과 규암의 수직절리가 깎아지른 해안이 독특한 홍도를 여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돌계단을 따라 골목에 들어선 아기자기한 상점을 구경하다가 깃대봉, 일출 전망대, 몽돌해수욕장 등 여행지를 둘러보는 도보 여행과 유람선 투어.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와 구멍 뚫린 남문바위, 만물상, 거북바위 등 홍도 10경을 감상하면서 전설을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30분 정도 소요.



흑산도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97.2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최서남단 섬은 멀리서 보면 전체 산세와 물빛이 푸르다 못해 검은빛을 띠어 흑산도라고 부른다. 11개의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해 100여 개 섬이 군도를 이루는데, 모두 더한 해안선 길이가 무려 185킬로미터에 달한다. 현재 흑산도는 홍어로 유명한 고장이지만, 과거에는 정약전·최익현을 비롯해 많은 선비의 유배지였다. 흑산도항 근처 자산문화원에서는 정약전 선생의 유배 생활 모습과 그가 흑산도 연해 수족 155종을 채집해 기록한 <자산어보> 등 자료를 전시한다.



흑산도 ©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爾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15	07:28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4	15:01	15:23	15:36	15:53		16:36	16:54		17:22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8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서울 首爾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33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월화수목 KTX-산천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밀양 16:15	16:48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2	08:09	08:33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금토일 KTX-산천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8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이음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凉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중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묵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1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13:47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14:45	15:02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16:54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17:31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21:26	21:43			금토일
885		20:15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정읍 井邑	광주송정 光州松汀	나주 羅州	목포 木浦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Seodaejeon	Iksan	Jeongeup	Gwangju songjeong	Naju	Mokpo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37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50	15:05	15:28	15:40 공주 15:57		16:15	16:31	16:50		17:21	
423			15:36	15:51		16:21	16:37	16:55	17:11	17:30	17:40	18:05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26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3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용산 龍山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공주 公州	서대전 西大田	익산 益山	전주 全州	남원 南原	곡성 谷城	구례구 求禮口	순천 順天	여천 麗川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Yongsan	Gwangmyeong	Cheonan Asan	Osong	Gongju	Seodaejeon	Iksan	Jeonju	Namwon	Gokseong	Guryegu	Sunchon	Yeocheon	Yeosu-Expo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19 계룡 13:34	논산 13:51 14:16	14:32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31		15:49 계룡 16:05	논산 16:23 16:51	17:07	17:34		17:53	18:08	18:22	18:30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3: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n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청량리 淸涼里	양평 楊平	서원주 西原州	원주 原州	제천 堤川	단양 丹陽	풍기 豊基	영주 榮州	안동 安東	비고 備考
Train NO.	Cheongnyangni	Yangpyeong	Seowonju	Wonju	Jecheon	Danyang	Punggi	Yeongju	Andong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42	09:54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8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목포 木浦	나주 羅州	광주송정 光州松汀	정읍 井邑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Mokpo	Naju	Gwangju songjeong	Jeongeup	Iksan	Seodaejeon	Osong	Cheonan Asan	Gwangmyeong	Yongsan	Seoul	Haengsin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3	06:00	06:10 장성 06:25	06:43 김제 06:58	07:12 논산 07:36	계룡 07:54 08:10	08:29	08:42	09:08	09:24	09:29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2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29	14:56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5:57	16:24	16:34	16:53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54	20:10	20:15		
484									19:59	20:15	20:25	20:42	KTX-산천
482	16:53		17:26 장성 17:40	17:58 김제 18:14	18:30 논산 18:55	계룡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여천 麗川	순천 順天	구례구 求禮口	곡성 谷城	남원 南原	전주 全州	익산 益山	서대전 西大田	공주 公州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용산 龍山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Yeosu-Expo	Yeocheon	Sunchon	Guryegu	Gokseong	Namwon	Jeonju	Iksan	Seodaejeon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영동 永東 Yeongdong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5	13:06	13:19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8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영동 永東 Yeongdong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eup	장성 長城 Jang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장성 長城 Jangseong	정읍 井邑 Jeong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y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47	08:54	09:16	09:35	09:48 조치원 10:08	10:35	10:51	10:10		11:36	11:52	12:19	12:29	12:41	12:58	13:13	13:21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y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s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2	16:00	16:15	16:31	16:43	16:53	17:21	17:39		18:05	18:23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창원 昌原 Chang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평택 09:42 09:55	10:16	10:40	11:31	11:47		12:16	12:22 경산 12:31	12:56	13:14	13:24	13:33	13:39	13:51	14:09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진영 進永 Jin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28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7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gyo	홍성 洪城 Hongseong	광천 廣川 Gwangcheon	대천 大川 Daechon	웅천 熊川 Ungcheon	서천 舒川 Seochon	장항 長項 Janghang	군산 群山 Gun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7:10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2007	08:51	09:02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2009	09:57			10:14					10:38		10:53		11:07	11:10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2013	12:00	12:10		12:18				12:40			12:58		13:12	13:15	
2015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17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19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1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2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202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202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2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31	20:32			20:49				21:10	21:16	21:26	21:34	21:43	21:51	21:54	
2033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2035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2021년 8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06	07:22	07:26	07:35	07:44	07:52	08:02	08:07				08:29			08:47	
2008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01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2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4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16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18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0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2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202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026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2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30	18:53	18:57		19:12		19:26	19:32				19:54	19:59		20:13	
2032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34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36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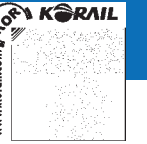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淸涼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200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200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0	09:13	
200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200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2	10:05	
201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2013	09:49			10:06			10:43		10:58	11:01	
201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2017	10:59	11:09	11:13	11:17		11:50	11:58		12:12	12:15	
2019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21	11:57	12:07	12:12	12:17		12:50	12:58		13:13	13:16	
2023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2025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2027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29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2031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33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2035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37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2039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2041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2043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2045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2047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49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051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淸涼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0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200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08	08:47	08:51	09:00	09:09		09:27	09:50			10:07	
201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12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201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2016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2018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2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2022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2024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2026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2028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2030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2032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2034	16:55	16:59		17:14			17:52			18:08	
2036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2038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2040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2042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2044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2046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2048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22:36	
2050	21:48	21:52		22:06	22:14		22:48	22:51		23:05	
2052	22:13	22:17		22:34		22:53	23:16			23:32	

열차 시간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객실 | Passenger Compartment

KTX 93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 First Class Service

KTX 11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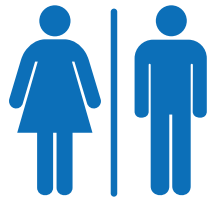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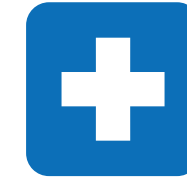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
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비스 | Optional Services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전용 라운지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 ※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 ※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선불 전국 호환 교통카드
-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 등
- ※ 구입 및 충전 역 매표 창구, 지하철 무인 기기,
스토리웨이 매장, 이마트24 등
- 청소년·어린이 할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여행사, 인천공항 철도 안내데스크**
승차장 서울역 서편 전용 정류장,
용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환승 정류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주차 대행 서비스 위치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맞은편
A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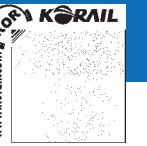


수하물 택배 서비스
열차 이용 시 휴대하기 불편한
짐을 할인된 택배 요금으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신청 및 접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문의 1588-0011

KTX 특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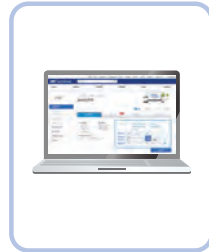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울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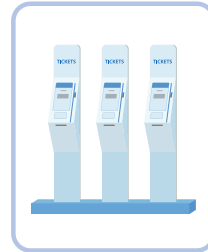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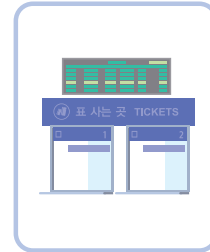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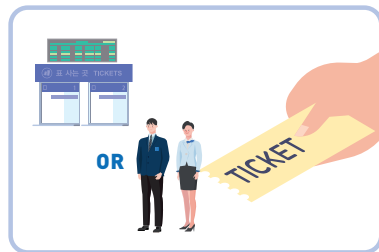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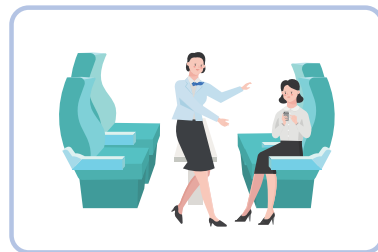
'네이버'·'카카오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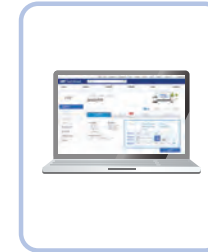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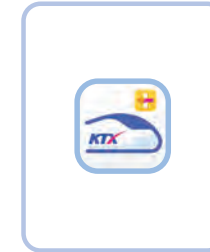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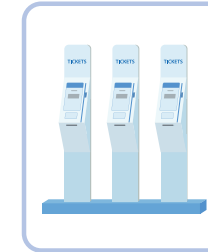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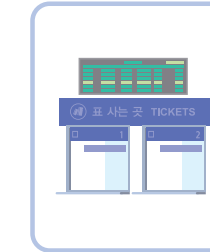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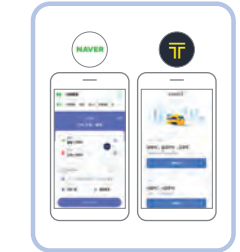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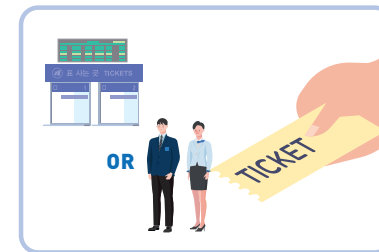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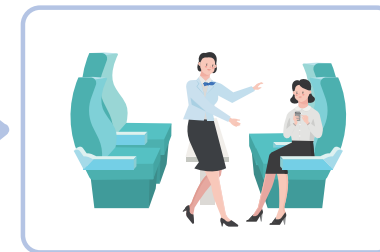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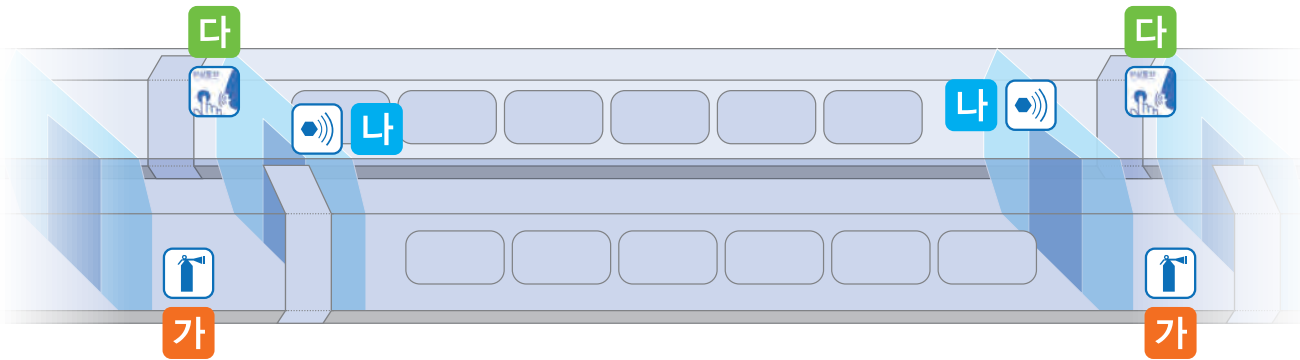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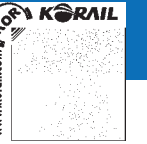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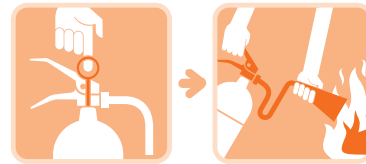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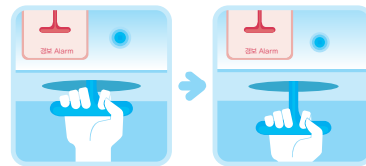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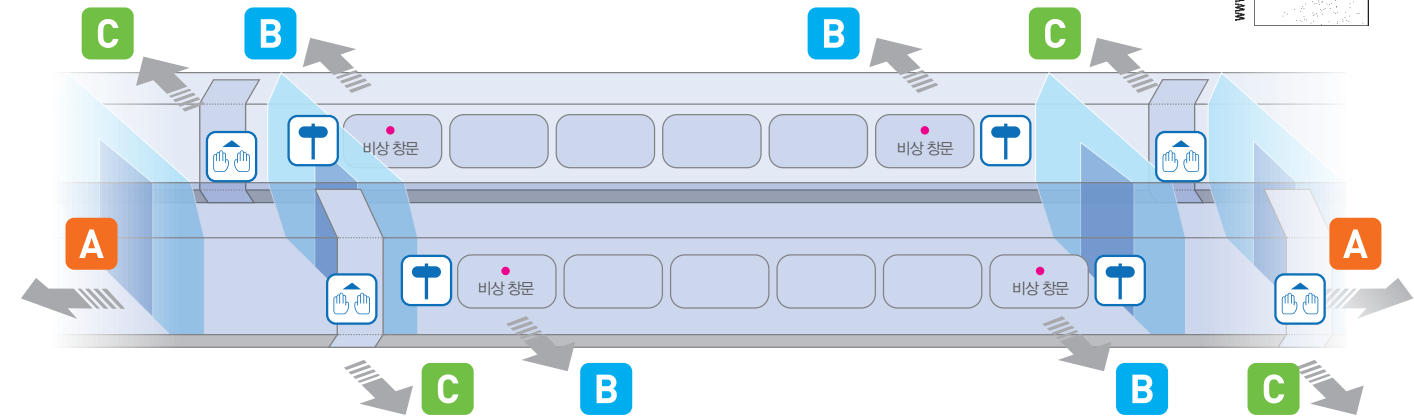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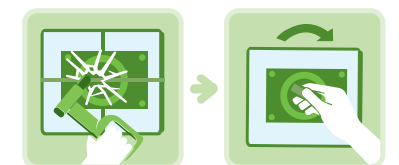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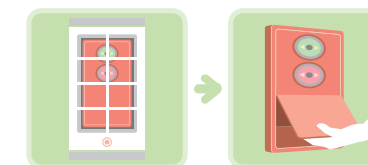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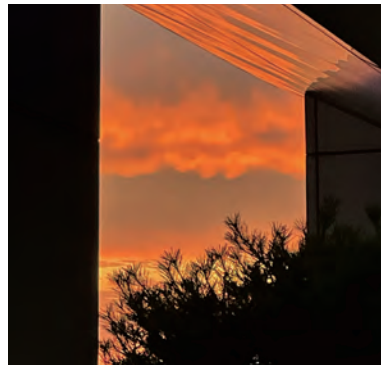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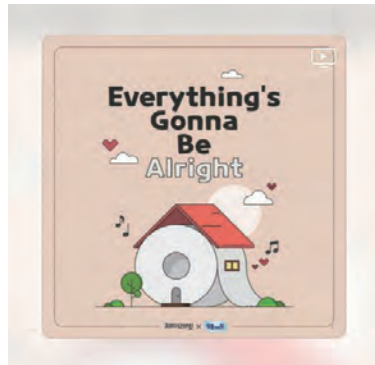


광주♥규보

입대하면 얼마간 훈련소에서 생활한다. 전방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내 훈련소는 광주였다. 서울에서 출발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란 고속도로를 달려 광주에 닿았을 때 착랑한 기분, 부대로 들어가기 직전 패밀리랜드에서 저수지를 바라볼 때 착잡한 심정, 다 생각난다. 이후 광주를 보지 못했다. 훈련병 기간엔 부대를 나갈 수 없거니와, 자대에 배치될 때도 컴컴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군용 트럭 천막 친 뒷자리에 앉아만 있었기 때문이다. 제대 후 광주를 몇 번 갔으나 제대로 봤다 할 수 없다. 이번 '트래블 이슈' 취재에선 광주를 제대로 봤다. 양림동의 문화, 이이남스튜디오의 예술, 스페이스 5G네의 기술, 전일빌딩245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광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광주만의 분위기가 있고 그게 좋았다. 이이남스튜디오 배효경 사무장님에게 공간 설명을 듣다 창밖 양림동이 예뻐 사진으로 남겼다. 이유 같은 거 만들지 않고 광주에 가고 싶다. 가서도 좋고 싶다. 이 좋은 마감 끝난 뒤에 꼭, **김규보**

Everybody 솔리솔리풀러라 팝팡!

마감을 시작하는 순간 월화수목금토일이 모두 똑같다. 일상이 돌고 도는 무한 루틴을 밟는다. 어김없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음악 앱을 켜며 출근한다. 그냥 일상이니까. 오늘은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 오른 구름이 유난히 예쁘다. 버스 안에서 멍~때리며 차창 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귀에 노랫말이 쑥쑥 꽂힌다. "어제도 오늘도 알 수 없는 내 미래도/ 버티다 보면 지나갈 테니까/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모두 다 잘 풀릴 거예요/ Everybody 솔리솔리풀러라 팝팡!" 마법을 부렸는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제이레빗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다. 부제는 '잘 풀리는 대한민국 프로젝트'. 곡명을 보자 정말 잘 풀릴 일만 남은 듯하다. '그래, 다시 힘을 내 보자!' 다짐한다. 마감은 매번 바쁘지만, 이번에는 더욱 정신없었다. 아마도 이달까지 함께하는 주영 씨와의 이별을 앞두고 있어서라고 생각해 본다. 같이 야근하다가 없으니 빈자리가... 그거 알죠? 보고 싶을 거예요 ㅎㅎ 연락해요, 우리. 그리고 응원해요~ "Everybody 솔리솔리풀러라 팝팡!" **이내경**



떠나요~ 훌훌 버리고~

1. 얼마 전 쓰레기를 주우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줍깅' 행사에 참여했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다.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숨어 있는지. 여기저기 버린 쓰레기가 눈에 콕콕 박혔다. 몰랐다는 말이 세상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 적어도 모른 채하며 살아가진 말자고 다짐한다. 2. 마감 주간, 새벽 퇴근길엔 이런 주문을 읽는다. "제발 아무도 안 만나게 해 주세요! 택시 기사님 빼고!" 누군가에게겐 나도 그런 존재겠지만, 늦은 밤에 마주치는 이는 관스레 무섭다(물론, 매일 보는 얼굴이 더 무서울 때도 있다 ㅎㅎ). 이젠 이런 기도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7월엔 유독 "기사 잘 보고 있다"라는 연락이 많이 왔다. 오랜만에 전해 온 안부에 차마 "곧 그만뒀어요"라고 말하지 못했다. 이달에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다. 저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며칠 전 다정 씨가 편집 후기 사진을 정했느냐고 물어보았다. 검사경사 지난 취재 사진을 돌아보다가 2019년에 은주 실장님과 다녀온 울릉도 편에서 멈췄다. 즐거웠던 그날이 생각나서. 떠나자, 어디로든~ **진주영**

맑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비를 피해 취재 날을 잡아 보려고 6월 말부터 기상청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했다. 다행히 촬영 날 비는 안 왔지만 어머니가 계시는 대구에는 비가 쏟아졌다. 7월 내내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뛰다가 옷에 아이스크림이 배어들었다. 그날 먹은 아이스크림은 올해 먹은 것 중 가장 달았다. 그게 지난주인데 멀게만 느껴진다. 열흘 정도 되는 마감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힘들어서, 바람 쉴 겸 옥상에 자주 올라갔다. 그 덕분에 예쁜 하늘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7월 16일 하늘은 다홍색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은 쌍무지개가 떴는데, 사무실이 떠들썩했다. 그때 난 무지개를 보러 갈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일어나서 쌍무지개를 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지금 돌이켜 보니 잘했다. 음... 그리고 주영 선배가 이달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싱긋 웃어 주는 선배가 그리울 테지만 우리는 집이 가까우니까(자주 만나 주세요. 제발~) 볼 기회가 많다. '야 꿀멤(야근 꿀찌 멤버)' 탈퇴를 축하해요. **표다정**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The 4th Jeongseojin Picnic Classic Festival 2021

연결되어 있는 우리

프로그램

[Opening Night]

- 국내 음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의 하모니

[Opera Night]

- 오페라 명작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무대

[Finale Concert]

- 저명 클래식 스타들이 선보이는 피날레 콘서트

[서로 인 클래식]

- 서구 곳곳으로 찾아가는 인천 연주단체들의 무대

[양코르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 지역 클래식 연주자들의 화려한 무대

장소

인천서구문화회관

청라블루노바홀

정서진광장 수변무대

그 외 인천 서구 곳곳

2021.
08.29. — 10.31.

*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환경도시 서구

주최
200 인천서구문화재단

협력
인천서구문화재단

티켓예매
유튜브 & 네이버TV

엔티켓

문의 032-510-6044-5 iscfkr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Jeongseojin Picnic Classic Festival

KTX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인천

시를 닮은 섬, 희망을 말하는 공원
인천 서구에서 발견한 보물



Resilience

2021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 카니발

기간 8월 20일~28일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글. <KTX매거진> 편집부 진행. 이내경

Tea Carnival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1 순천
CULTURE CITY OF EAST ASIA 2021 SUNGHEON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이란?

INTRO

벌써 햇수로 8년째,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굳은 약속이 이어진다.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협의한 3개국 문화 교류 사업은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로 열매를 맺었다. 이후 매년 한중일 3개국은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1년간 교류한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국 순천, 중국 사오싱·돈황, 일본 기타큐슈다. 전남 순천은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 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 등 유적이 자리한 문화 도시다. 함께 주최하는 중국 사오싱은 '벽이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며 <아Q정전> 작가 루윈의 고향으로 유명하고, 돈황은 2100년 넘는 역사가 흐르는 실크로드의 주요 축이다. 일본 기타큐슈는 OECD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정한 'SDGs(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한 세계 모델 도시'로 창조적인 미래를 그리는 도시다.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주간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그중 '문화의 확장-생태 만물상(Beyond Culture - Ecology all things)'을 주제로 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과 문화 틱움 예술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이 행사의 꽃, 생태를 테마로 실현한 미디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이 예술과 융화하는 페스티벌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각국의 차 문화를 즐기는 카니발에서는 서로의 문화를 가슴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한국·중국·일본이 문화를 통해 한 걸음 가까워지는 현장이다.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문화도시 융합 상대 문화 이해 역대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작 2014년 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2015년 한국 청주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2016년 한국 제주 중국 닝보 일본 나라 2017년 한국 대구 중국 창사 일본 교토 2018년 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 2019년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 2020년 한국 순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큐슈 2021년 한국 순천 중국 사오싱·돈황 일본 기타큐슈 동아시아문화주간 프로그램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문화 틱움 예술제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제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 동아시아 그림책 웹툰 페스타 2021 가든 뮤직페스티벌

1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Resilience> 한중일 대표 작가 초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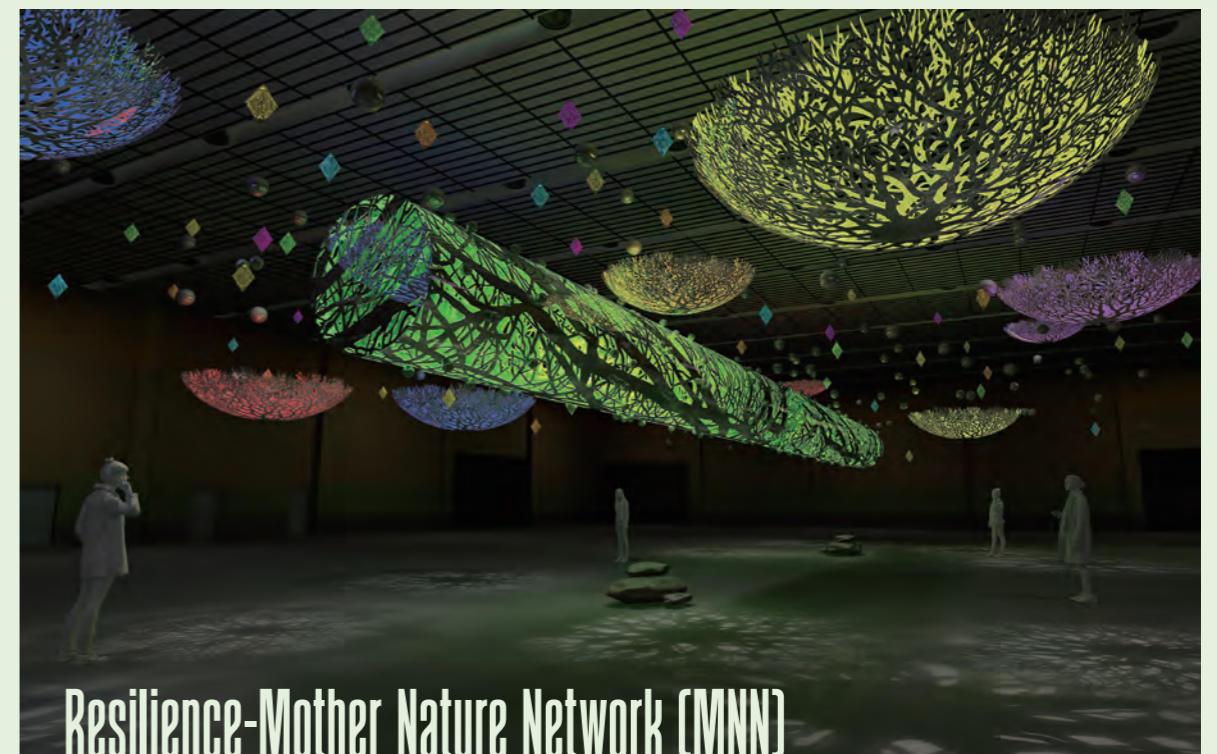
자연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자연이 된다. 그 경계를 아름답게 허무는 한국 작가 권치규·안진의·한임수와 중국 작가 우더하오·리우이중, 일본 작가 에가미 예츠, 사카이 코타 등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주제로 회화, 조각, 설치미술 작품을 공개한다.



권치규
Kwon Chi Gyu

차가운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에 온화한 초록빛 바람을 불어넣는다. 외부 힘에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성질인 '회복 탄력성'에 집중한 작가가 이번 전시에는 '대자연 네트워크'를 출품한다. 인간과 자연이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 관계망과 교감을 표현한 이 작품은 대자연의 일부인 인간과 자연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디지털 이미지를 픽셀화해 구현한다. 미래에도 변치 않는 사실 하나는 자연 생태계는 보존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다.

권치규 ©



Resilience-Mother Nature Network (MNN)

안진의 Ahn Jin-Ee

꽃은 어디에나 있다. 자연 속 꽃뿐 아니라 컵이나 문구 같은 소품부터 거대한 장식물까지 인간은 꽃을 새기고 그린다. '꽃의 작가' 안진은 30년간 꽃과 색을 탐구해 작품에 옮겼다. 단순히 꽃 모사를 넘어 자유분방한 모양과 강렬한 색갈의 그림에는 꽃의 향기와 생명력이 그대로 담겼다. 색이 있는 천연 광물성 안료인 석채(石彩)를 사용해 빛을 받을 때 반짝거리는 질감이 고급스러운 미감을 낸다.



에가미 에츠 Egami Etsu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한 오해와 편견을 강렬한 붓 터치로 캔버스에 형상화한다.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는 포스트 페인팅 흐름의 선두 주자로, <포브스>에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했다.



우더하오 Wu Dehao

조각과 설치미술, 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여 온 작가가 대형 조각 '강산은 이토록 아름답다'를 전시한다. 흙에 뒤섞여 성장하는 생강을 세로 3.5미터에 이르는 유리 조각으로 만들고 통통 튀는 색을 입혀 새로운 시각 체험과 사유의 기회를 준다.

사카이 코타 Sakai Kohta

작가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나무로 평범한 사람과 동물을 조각한다. 조각조각 이어 붙이지 않고, 한 덩어리의 나무 안에서 형상을 발견해 이끌어 낸 작품이다. 누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질문하다 자신을 보기도 한다.



리우이중 Liu Yizhong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10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방울. 단 한 방울이지만 역동하는 물 입자가 생생하다. '컨버전스 (Convergence)'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는 결집,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의 융합을 나타낸다.

한임수 Han ImSsu

붉은 갯벌의 찬란함. 한임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바뀌어 가는 순천만의 칠면초 군락과 그 위의 하늘에 마음을 빼앗겼다. 붉은색이 번져 나가다 결국 흐릿한 회색으로 전환되는 빛깔. 과제처럼 머리에 저장한 풍경을 화가는 바라 보고 또 생각했다. 그 풍경에 길 없는 길을 내고 형체 없는 새들의 날갯짓과 피지 않은 갈대의 사그라져가는 소리를 채웠다. 그것이 이토록 강렬한 그림으로 남았다. 또 다른 순천만이 새겨진다.



Resil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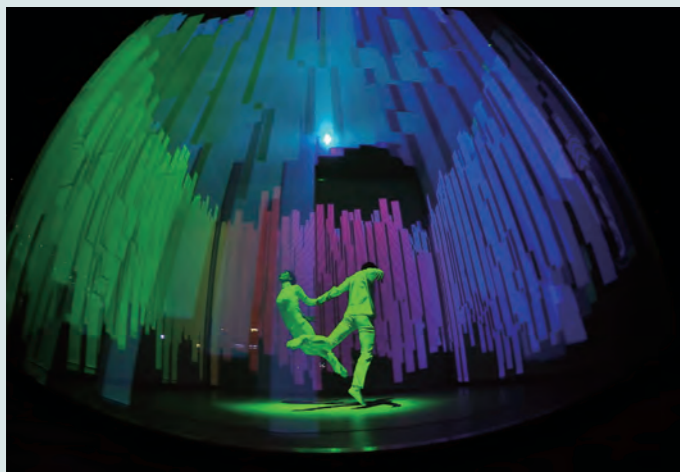
2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Let There Be Light〉지역 연계 아트와 테크의 만남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5명을 비롯해 한국 작가 21명, 중국 작가 18명, 일본 작가 10명이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Let There Be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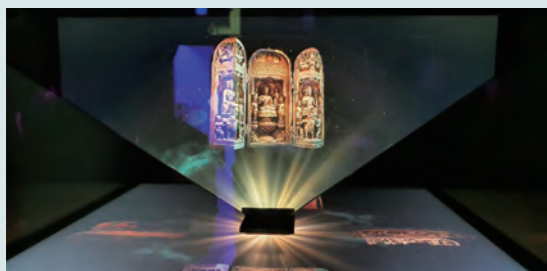
장안순 Jang An-soon

시중유화(詩中有畫) 화중유시(畫中有詩). 시 속에 그림이,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말이다. 순천 태생 작가는 순천만 갈대밭의 포근한 빛과 아름다운 색을 보며 자랐고, 이 시적인 풍경을 서정적으로 담아낸다. 갈대가 물을 정화하듯 그림이 마음 정화한다.



진시영 Jin Siyon

‘인간은 빛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인공의 빛과 자연의 빛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가장 컴컴한 어둠 속에서 발광하는 색색의 빛이 자기 내면의 빛을 돌아보게 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전한다.



국보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홀로그램,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기술과 예술의 융합.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이동이 불가능한 국보 제42호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을 4면 홀로그램 입체 조형물로 제작했다. 높이 13.9센티미터, 너비 17센티미터 목조 불감의 섬세한 질감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구현한 영상이 감탄을 자아낸다.



지의류 천연물 생산 균주 영상, 한국지의류연구센터

순천대학교 한국지의류연구센터는 다수의 지의류 유전체를 해독하고 효능을 연구해 왔다. 지의류는 항암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놀라운 생명체다. 센터는 공해로 멸종 위기에 놓인 지의류 대량생산 가능성을 높여 주목받고 있다. 영상으로 경이로운 생명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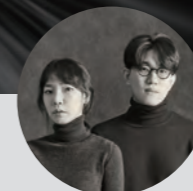
3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Toward the Future〉첨단 기술이 예술을 만났을 때

세계를 무대 삼아 활약하는 사운드 미디어 아트, 키네틱 아트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 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미술과 기술의 만남처럼 이색적이다.

Toward the Future



그레이코드, 지인 GRAYCODE, jiii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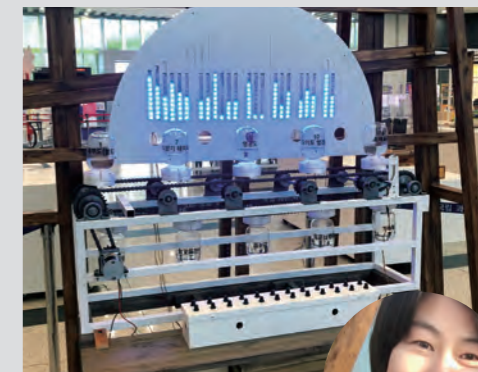
사운드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GRAYCODE, jiiiin(조태복&정진희)은 한 달에 한 곡씩,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음악 작품을 발표하는 ‘뮤징 포레스트(Musing Fores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에는 음악 세 곡을 편곡한 ‘6월, 7월, 8월(June, July, August)’을 준비했다.



맹옥재 Maeng Wookjae



새하얀 세상이 눈길을 끈다. 작가는 예술이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를 이야기하거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을 도자기로 표현했다. 작품 ‘섬-비둘기’는 지구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하게 한다.



김동현 donghyun KIM



키네틱 아트 작가 김동현의 작품은 시화호 열 군데 바닷물의 pH 값을 미드로 변형하여 관람객이 직접 노브를 돌려 음을 조합하는 물대위법 자연 신시사이저다. 작가는 중력, 마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힘에 의해 연달아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를 2009년부터 선보여 왔다.



토니 림 Tony Lim



VR 미디어 아트로 순천만습지의 사계절을 5분 만에 감상한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고 두루미와 쌍둥이가 습지를 쏘다니는 모습을 보노라니 순천만습지 앞에서 있는 기분이다. 영상 속 모든 색은 습지를 촬영한 사진에서 추출한 것이라 더욱 실감난다.

Tea Carnival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 〈East Asia Culture City Tea Carnival〉 한중일 차 문화 교류 대회

INFORMATION

기간 8월 20일(금)~28일(토)
장소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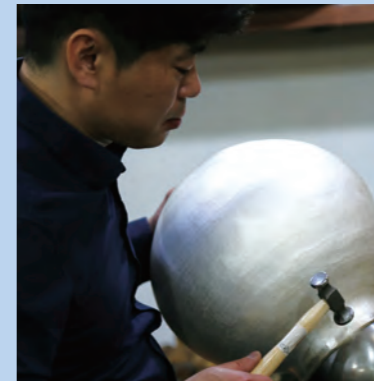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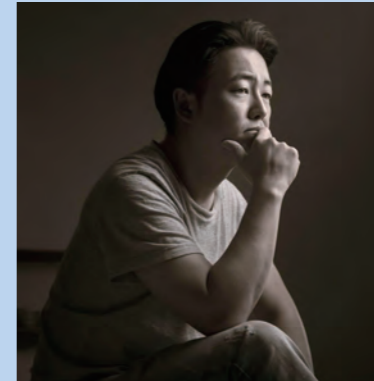
단순히 차만 마시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한국·중국·일본 다실에서 각국 전통을 체험하거나 한국 지역별 차 품평 대회를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은 차를 더욱 깊고 보다 흥미롭게 느끼도록 한다. 8월 20일~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열리는 축제는 순천문화재단과 한국차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차위원회는 차 문화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세계 30여 개 나라에 한국 차 문화를 적극 알리고 있다. 차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티마스터스컵의 국가 대표 선발전 한국 주관 기관이기도 하다. 차 문화 국제 교류에 노후를 쌓은 한국차위원회가 주관하는 만큼, 축제는 기존 틀에 박힌 차 행사와 다른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차 체험의 정수를 선사한다. 오원희 한국차위원회 이사장은 "중국과 일본의 차 전문가들과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자 노력해 왔다"라면서 "기존 차 행사에서 진일보한 프로그램으로 그윽한 차의 세계를 소개하겠다"라고 말했다.

4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 〈3인 3색 미래지향 차 도구 특별전〉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 다구는 어떤 모습일까. 변재형, 이상협, 이치헌 작가가 자신만의 철학을 투영해 만든 다구를 전시한다. 금속과 자연 등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 하나하나 독특하다. 세계가 공감하고 감탄할 한국 전통 다구의 예술적 변주를 감상할 기회다.

변재형 Byun Jae-hyung

다양한 재료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변재형 작가는 유약과 가마를 직접 만들어 필요한 물성과 재질을 창조하는 도예를 추구한다. 아름다움은 빛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찾아가는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언제나 새로운 재료에 도전하는 도예가의 다구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이상협 William Lee

금속에 열을 가해 두들기거나 누르는 단조 기법으로 금속의 물성이 지닌 한계에 도전하는 이상협 작가의 작품을 만난다. 그는 전통 도자 형태를 금속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한국만의 조형미를 담아내고자 노력해 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등이 작품을 소장 중이다.

이치헌 Lee Chi-heon

개인전 13회, 해외 초대전 20여 회, 그룹전 200여 회를 진행한 이치헌 작가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을 닮으려 노력하는 도예가다. 차가 좋아 차 공부를 이어 가는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다구 작품에 전념한 결과 독창적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번 축제에서 자연을 주제로 완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방자 여사 유물전

〈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는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기구한 삶을 살았다. 일본인이었으나 남편 영친왕이 승하한 후에도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전념했다. 전시에선 이방자 여사의 다완과 서예, 그림을 살필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 한중일 차 문화 교류 대회

순천문화재단과 한국차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티카니발'은 한중일 3개국의
공동 문화인 차를 교류하는 대회다. 기존 차 문화 대회와 차별화된 젊고 세련된 현대 차 문화를 제시한다.

한중일 전통다도체험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다실에서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기타큐슈의 겐마이차, 돈황의
백차·팔보차, 사오싱의 녹차를
마시며 각 나라의 차를 경험

-3개국 전통 의상인 한복, 치파오,
기모노를 입고 한국의 전통 다례,
중국의 전통 공부차, 일본의
오모토센케 다도 체험

나만의 야생차 만들기 체험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재배차와 야생차는 어떻게
다를까?

-자연 속에서 자란 야생
차잎으로 만드는 시원한
녹차, 홍차 체험



한중일 차 문화 포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구의 아트&테크-
킨츠기(Kintsugi):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선해 새로운 예술로
승화하는 한중일 도자기 수선 기술
전문가 초청 포럼



언택트 대한민국 차 블라인드 테스트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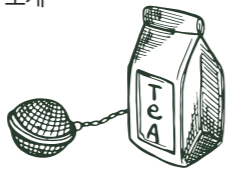
기존 차 품평 대회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중에 판매하는 차를
선정 후 전문가와 일반인이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전시 <3인 3색 미래지향 차 도구 특별전>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젊은 도예 작가
변재형·이상협·이치현의
다구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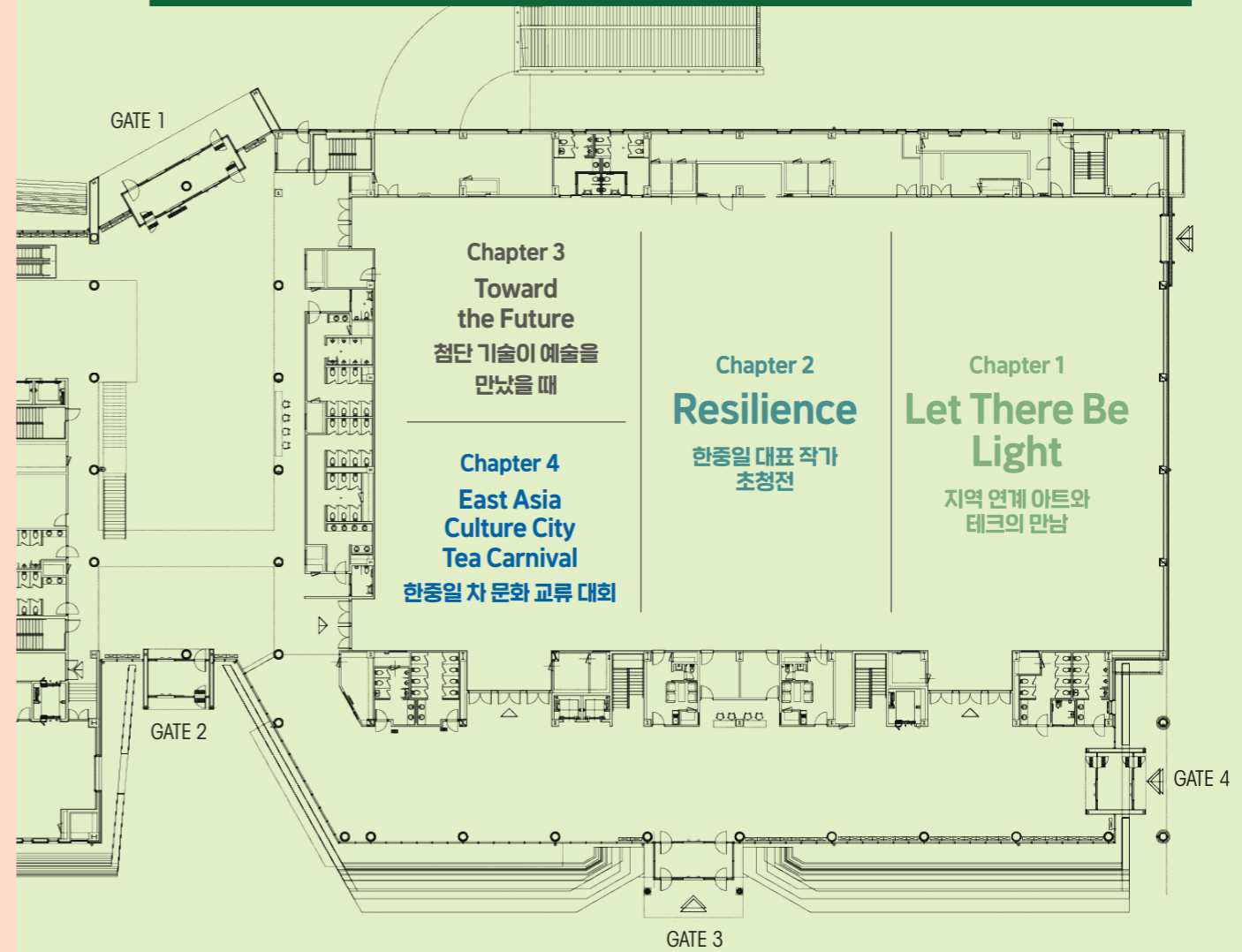
전시 <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 마사코입니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가 직접 제작한 다완,
서예, 그림 등 전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전시 공간 안내



축제·교통 안내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1
미래융합 페스티벌·티카니발

☎ 061-746-2900
🌐 www.cceasuncheon.com
📍 culture_foundation_of_suncheon
📍 순천문화재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순천시 생태배움길 22
☎ 061-811-3115



KTX 순천역 순천역 정류장에서 66·53번 버스 타고 각각
국가정원(동문)·풍덕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이후 도보 약 10분.



여수공항 공항 내 정류장에서 96·960번 버스 타고 명말 정류장 하차.
이후 도보 약 20분.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2·15·16·18·30·31·32·33·34·35·68·
69·111번 버스 타고 명말 정류장 하차. 이후 도보 약 15분.

-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66·53번 버스 타고 각각 국가정원(동문)·
풍덕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이후 도보 약 10분.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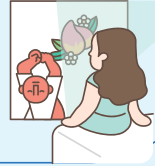
2021. 8.20.(금) ~ 28.(토) 9일간

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통합 프로그램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한중일 역사, 문화예술, 기술 등 융합형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8. 20.(금) ~ 28.(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실내



문화 토크 예술제

· 한중일 3국 댄스, 노래 / 8. 20.(금) ~ 22.(일)
· 茶문화 교류대회 / 8. 20.(금) ~ 28.(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동아시아 청소년예술제

한중일 공동작품 기획(온택트),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 등
8. 27.(금) ~ 28.(토)
문화건강센터 일원 등



동아시아 그림책 웹툰 페스타

그림책 & 웹툰 주제의 전시·체험·공연·프리마켓·토크쇼 등
8. 27.(금) ~ 28.(토)
순천 시민로 일원



2021 가든 뮤직페스티벌

국내 최정상 가수 초청공연
8. 28.(토) | 순천만국가정원



문의: 순천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팀 T. 061-749-3222~3 <http://cceasuncheon.com>(홈페이지)